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5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9월 30일(음력 8월 12일) 수요일(주간)

법구경

백만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현대불교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북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황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국립공원 속 절땅 해제해달라"

조계종 문광부 환경부 등에 공문

조계종이 사찰경내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며 7월 2일 통도사에서 개최한 '전국 본말사주지 결의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담은 요구서를 환경부와 문광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사찰경내지의 국립공원 해제 공식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적 스님은 "요구서는 9월 8일 종무회의에서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결의된 것으로 중장기 과제 중 실현 가능한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10개 국립공원 내 34개 사찰(암자 포함 119개 사찰) 경내지 1억 4529만 5,984㎡의 해제 요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표 참조>.

이번 요구서에 담긴 해제요청 사찰 경내지는 가야산 경주 속리산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 월출산 북한산 변산반도 등 10개 국립공원에 속한 해인사, 불국사 등으로 전체 국립공원 면적 대비 4.3%로 사찰경내지 총합의 63%에 이른다. 총 19개 육상국립공원 중 △사적 및 명승 지정지 △사찰지 비중 30% 이상 △환경부 해제기준 부합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분류기준을 통해 1차적으로 선별한 것. 환경부는 해제 기준으로 경내지 5%이하의 국립공원과 20세대 이상의 거주지가 있는 경내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이번 요구사항을 토대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용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종단의 각 부처를 상대로 한 노력으로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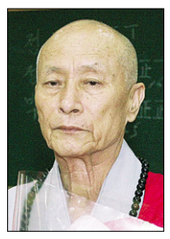
국립공원	해당 사찰	공구역 해제요청 면적	사찰경내지 면적대비
가야산	해인사외 22개 암자 (23개)	1850만0000(1850만)	80%
경 주	불국사,석굴암,백률사,보리사,기림사,천룡사,부흥사,상선암,황룡사,골굴사,굴불사,금선사(12개)	875만1118(875만)	100%
속리산	법주사외11개 암자 (12개)	1920만0000(1920만)	44%
지리산	화엄사,천은사,연곡사,실상사,쌍계사 외 22개 암자(27개)	2624만1169(2624만)	100%
설악산	백담사,신흥사외 7개 암자(9개)	4072만4123(4074만)	100%
오대산	월정사외11개 암자(12개)	153만5524(153만)	3%
내장산	백양사,내장사외 10개 암자(12개)	2194만9334(2194만)	100%
월출산	도갑사(1개)	376만4056(376만)	100%
북한산	화계사,도선사,진관사,승가사,금선사(5개)	49만5303(49만)	100%
변산반도	내소사,개암사,월명암,실상사외 2개 암자(6개)	413만6357(413만)	100%
합계	총 119개	1억4529만5984㎡	63%

지난 40년간 각종 법적 규제로 사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침해 당했음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조계종의 오랜 숙원사업이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당선

22일 중앙종회서 선출… 25표 획득



태고종을 이끌어 갈 제24대 총무원장에 인공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 태고종 총무원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0회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제24대 총무원장에 인공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총무원장 선거를 목적으로 열린 종회에는 의원 48명(재적 50명)이 출석했다. 인공 스님은 과반 이상인 25표를 득표했으며, 지허 스님은 16표, 대은 스님은 7표를 획득했다. 도산 스님은 투표 직전 열린 후보정견발표에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인공 스님은 당선 확정 후 중앙선관위원장 보경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고 "선거를 원만히 이끌어 준 태고종 모든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서는 선거에 임하는 4인 후보들의 선거결과 인정 및 승복, 종단운영 협력을 담은 서약서가 중앙선관위를 통해 불전에 봉헌됐으며, 당선발표 직후 대은 · 지허 스님은 인공 스님에게 꽃다발을 안기며 선거 승복과 종단화합을 다짐했다.

한편, 태고종은 9월 29일 총무원장 인준을 위한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조만간 취임식을 봉행할 계획으로, 10월 10일경 새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면

노덕현 기자

인정·관용으로 종교평화 이끌어야

제5차 아셈 종교간 대화 '대화와 희망찾기'



'아셈 종교간 대화' 불교방문단은 9월 23일 자원봉사자(문사수)의 안내로 봉은사를 둘러보며 도심 속 사찰의 매력에 감탄했다.

한국과 핀란드가 공동 주최한 '제5차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종교간 대화'가 '종교간 대화와 새로운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9월 23~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24 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종교간 대화를 통한 화합과 상생'을 주제로 한 전체 회의와 분과회의 등 본 행사가 이틀간 진행됐으며, 개회식 전날인 23일 한국 7대 종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인단 14명은 봉은사를 방문했다.

아시아 · 유럽재단(ASEF)과 핀란드, 독일 등에서 온 참여단은 정윤선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의 브리핑 '다종교사회 한국, 가치혼동의 위기인가, 사회통합의 기회인가'에 질의응답을 하며 한국 종교계의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지만 최근에 종교편향, 종교차별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아셈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 속에서 종교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45개 회원국 대표단과 함께 교황청, 이슬람회의기구 등 관련 인사 150여명이 참가했다.

글 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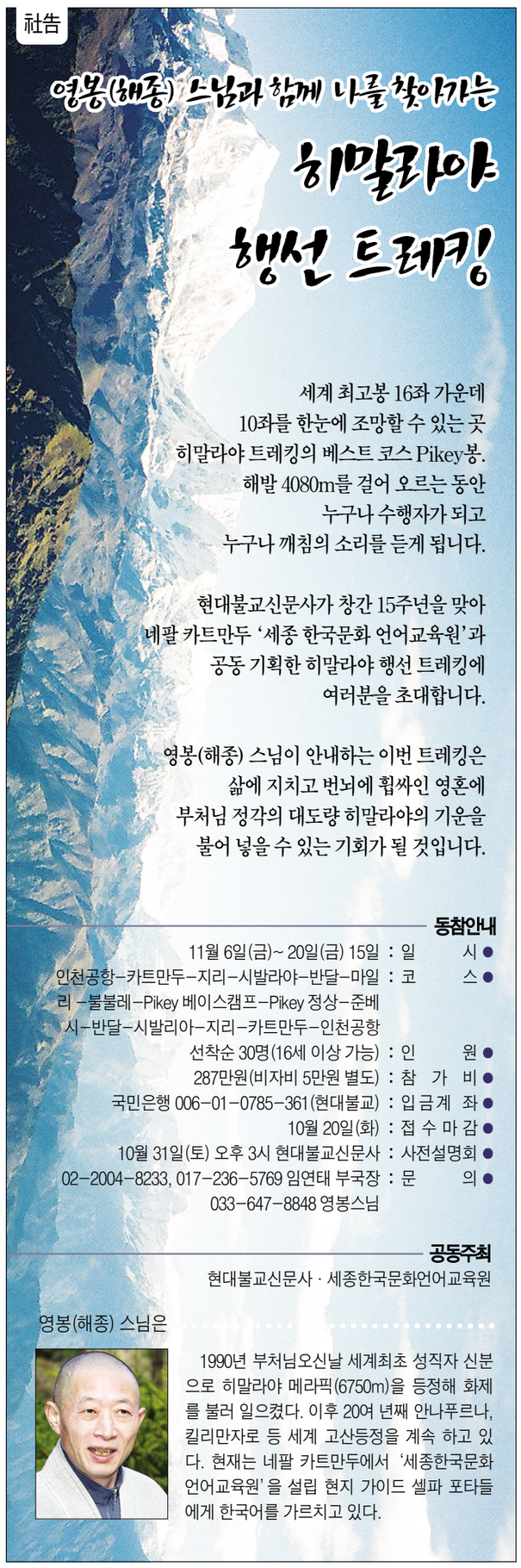
금주의 Hot


달라이 라마
14선지식


원행 스님
08불자들


정진규
19문화

社告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닭벼슬 아닌 용틀임 되기를…

'닭벼슬' 또는 '비천룡'의 형국을 띄어 이름 붙여진 계룡산은 금계포란(金鷄抱卵) 비룡승천(飛龍昇天)의 산세로 일컫어진다. 이러한 절경에는 명승대찰이 빠질 수 없어 동학사, 갑사, 신원사 등 대찰이 즐비하다.

올해 3월 경 불교환경연대와 오체투지 순례 취재 차 계룡산 갑사와 신원사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당시 조용한 갑사 산문 앞 주차장 인근 위락지구에서 스피커를 통해 노래 소리가 흘러 나왔다. 노래 소리에 흥얼거림도 잠시 '노래소리에 산사 특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사에는 고즈넉한 산사만의 소리와 멋이 있다. 새의 지저김과 조용한 가운데 울려퍼지는 풍경소리, 있는 듯 없는 듯한 스님들의 발자취 같은 것들이다.

많은 불자들은 산사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한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느낌을 받고, 고찰 문간에 고급 승용차가 있으면 마치 감로수를 찻잔이 아닌 수도꼭지로 마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둔 승가공동체에도 그에 맞는 문화가 있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갖은 잡음이 흘러 나오고 있다.

'괴문서' 유포와 그에 대한 조사, 발표를 두고 호법부와 승적관리 부처인 총무부 간의 갈등이 표출된 데 이어 종회의원들의 특정후보 지지로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야합'이냐 '화합'이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각 예비후보들이 주장하는 특정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도 '검증'과 '분란' 사이에서 이설이 많다. 불협화음은 선거 당일까지, 자칫 선거 이후까지 계속 증폭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과열양상에 정작 각 사찰에서 신행생활을 이어가는 스님들과 불자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지켜보며 어떤 것이 종교다운 선거문화일까를 생각하고 있다. 불자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산사'에서 '법음'(法音)이 울려퍼지는 것이 아닐까?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종정으로 선풍을 드날린 효봉 스님은 "중 벼슬은 닭 벼슬만도 못한 것"이라며 그 허상을 지적하신 바 있다. 각각의 후보들이 진정 애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나선다면 '스님 소임이 비천룡보다 더 낫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각 후보의 여법한 선거운동으로 이번 선거가 '닭 벼슬 다툼'이 아닌 '비천용의 용틀임'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선거 끝났지만 문제 산적

태고종, 종단 부채 · 종헌종법 개선 등 시급한 과제

태고종이 우여곡절 끝에 제24대 총무원장으로 인공 스님을 선출했다. 선거 파행과 법원 가처분 등을 통해 선거법 등 제도미비를 드러낸 태고종은 선거제도 개선과 종단 화합 전 집행부 종무조사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공 스님이 이끄는 집행부의 과제 중 최우선 과제는 전 집행부에 대한 종무조사가 꼽히고 있다. 인공 스님도 종무조사를 제1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종단부채 문제 발생의 책임소재 규명은 향후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봉원사 부채를 비롯한 종단 부채 문제는 차기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다. 태고종 종책위는 8월 △봉원사 연지원 납골당 61억 △논산노인요양병원 공사 24억 △천중사 불사 7억 등 총 92억 원의 종단 부채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증축도 11월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 국고보조금 환급 등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조계종과의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도 주요과제다.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은 봉원사 소유권을 두고 법원에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총무원장 선거로 인해 드러난 종헌 · 종법의 미비점 개선과 선거제도 개편 및 확립은 오랜 종회활동과 종회의장을 역임한 인공 스님의 역량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 외적인 현안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 온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조화를 이루는 일도 선결과제로 꼽힌다.

"심부름꾼으로 앞장설테니 모두 참회하자"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인공 스님

인공 스님은 당선 이후 첫날인 9월 23일 전남 순천 선암사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예방하고 당선 인사를 드렸다.

또 24일에는 서울 남부종무원장 법진 스님 취임식에 참석하고 지방 종회의장과 지방 사정원장을 임명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인공 스님은 9월 22일 당선소감을 통해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한 모든 종도들에게 감사하며, 선거가 원만하고도 투명하게 치뤄져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했다. 인공 스님은 또 "봉원사 부채관계 등 종단 현안 문제 해결에 더욱 나서달라는 목소리로 알고 낮은 자세로 충실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종도들의 심부름꾼으로 앞장설 테니, 지난 과오를 잊고 모두 함께 참회하는 자세로 나서자"며 특히 함께 후보로 나선 대은, 지허, 도산 스님의 후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인공 스님은 "종단이 지난 3년여 동안 분열을 겪다보니 불교 4대 종단 가운데 가장 위상이 떨어졌다. 재임기간 인재양성과 종단안정에 매진해 예전의 위상을 되찾아 놓고 싶다"고 말했다.

인공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해 "새로 모실 부원장 3분과 협의해 종단에 신선하고, 훌륭한 분들로 모실 계획"이라며 "집행부 구성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 알리겠지만 10월 10일 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자승 스님 승적 논란 해명하라"

월서 스님 등 예비후보자 5인 공명선거 성명



다섯 예비후보들이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각명 · 종하 · 정념 · 월서 · 대우 스님. 월서 · 정념 스님은 이달말 출마할 것을 밝혔다.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예비후보 자승 스님의 승적 관련 논란을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월서 종하 정념 대우 각명 스님 등 다섯 예비후보 측은 9월 24일 템플스테이센터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검증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공명선거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섯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섯 예비후보 측은 "이미 선거는 은밀히 진행된 '편법과 회유로 아수라 장'이 되고 있다"며 중앙종회 4대 종책모임과 무당파 종회의원 등 종회 대다수에게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될 자승 스님 측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다섯 후보 측은 "화합을 빌미로 부정을 감싸는 행위나 주장을 한다면 그야 말로 '사자신충'(獅子身蟲)"이라며 "모 스님 신상에 관한 내용은 청정한 승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후보 측은 이날 명확조사를 위한 특위조사 등 5대 공명선거 대책을 발표하며 자승 스님의 승적 정정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해명을 촉구했다.

다섯 후보들은 "33대 총무원장은 각종 의혹이 없이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공명정대한 선거로 원융화합"

원로의장 유시 · 총무원장 담화문 이어져

공정하고 청정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당부하는 원로의장 유시와 총무원장 담화문이 이어졌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9월 24일 내린 유시(諭示)를 통해 "원융화합의 계기가 되라"고 당부했다.

종산 스님은 "이번 선거는 불법홍포를 위한 종단 행정 대표를 뽑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종정 스님과 원로의원 대종사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산 스님은 또 "종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종행위에 관한 종헌종법으로서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이에 앞선 22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과정의 금권, 비방, 각종 부정행위는 모든 행정력을 다해 끝까지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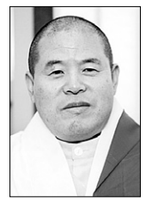
지관 스님은 "현 종단 집행부는 종헌 · 종법에 의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익명의 비방성 투서는 해종행위로, 반드시 엄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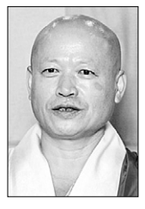
총무원장 선거 출마선언 줄이어

자승 · 각명 · 대우 스님 등 예비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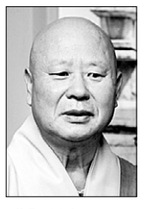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줄잇고 있다.



자승 스님.



각명 스님.



대우 스님.

전 종회의장 자승 스님(은정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9월 24일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화엄회 총회에서 총무원장 후보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화엄회와 무차회, 무량회, 보림회가 맺은 선거 연대방침에 따라 자승 스님은 중앙종회 4대 종책모임에게 단일 후보로 지지받게 됐다.

4대 종책모임의 자승 스님 추대식은 9월 29일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후보로 추대된 직후 "기꺼이 종단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며 "결심까지 고뇌의 시간이 있었지만 애종심과 불교 중흥을 이룩하겠다는 원력과 의지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열린 종단'을 지향해 종단 소통을 원활히 하며, 종단 밖 타 종단이나 이웃 종교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을 원만하게 할 것"이라며 "'화합'의 모범을 바깥세상에까지 펼쳐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화엄회는 자승 스님의 승적 정정문제에 대해 "구비서류와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으며, 29일 후보 추대 기자회견에서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6대 기조와 12대 분야 종책을 담은 화엄회 종책자료집이 배포됐으며, 화엄회는 선거여비 및 숙식제공을 받지 않는 것도 결의했다.

이에 앞서 각명 스님(법주사 봉곡암 주지)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스님은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 보다 어떻게 하면 청정한 인물을 뽑을까가 화두가 돼야 한다"며 "깨끗한 후보가 나서야한다는 주변의 요청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개혁종단 당시 조계종 포교원장, 총무부장을 역임한 대우 스님(정읍 벽련선원 회주)도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대우 스님은 9월 22일 서울 미얀마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 선거로 총무원장 선거가 승단의 양심이 살아있는 잔치가 되도록 하자"며 출사표를 던졌다.

노덕현 기자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일 시 : 2009년 10월 9일(금) 오후 1시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주최·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10·27법난 기념법회
일시 : 2009년 10월 9일 (금) 오후 1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10·27법난 기념심포지움
일시 : 2009년 10월9일 (금)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10·27법난 기념사진전 "언론보도로 본 10·27법난의 진실"
일정 : 2009년 10월9일 ~ 10월 27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

▮문의처 : 02-2011-1820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구례~노고단

케이블카 재추진 불교계 반발

구례군 4.5km 로프웨이 설치 위해 환경부에 신청서 제출 예정

구례 온천관광지에서 지리산 노고단까지 4.5㎞에 달하는 국내최장 케이블카 건설이 재추진돼 지역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에 따르면 지리산온천지구인 산동면 좌사리에서 성삼재를 거쳐 노고단까지 국내 최장인 총 4.5㎞ 길이의 로프웨이를 설치하기 위해 조만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와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9월 24일 밝혔다.

이에 2008년 구성된 구례군로프웨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의)는 "지리산 온천지구와 노고단 지역을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로프웨이 설치에 군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 '범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례군 문화관광과 관광계발계는 "최근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 훼손 면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것이 자연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리산권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은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 현재 2㎞인 국립공원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허용기준이 '시행령안 제14조의2'에 따라 5㎞로 늘어나고 또 공원지구에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도 '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에 따라 현행 9m에서 케이블카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높이인 15m로 상향 조정돼 경제성 등 제반여건이 좋아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지원과 관계자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구례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국립공원변경신청서는 정책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상사 화엄사 쌍계사 등이 참여중인 지리산생명연대는 "우리나라 자연공원은(육지부 기준) 국토면적의 4.93%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공원은 생태보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몰린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마지막 남은 생활터전이다"며 "케이블카는 설치 공사를 할 때부터 나무들을 계속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녹지보호가 우선인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설치로 생태 훼손은 물론 지역공동체가 파괴된 사례가 있다"며 "우후죽순 격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서는 지자체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광특구사업 이라는 명목 하에 환영하는 지자체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구례군이 환경부에 신청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10·27법난 명예회복 해법 모색해

조계종과 10·27심의위, 10월 9일 기념법회 · 사진전 등 개최

'10 · 27법난' 발생 29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해법들을 모색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는 오는 10월 9일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법회와 학술 심포지움, 사진전이 마련된다.

기념법회에서 주최 측은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공로자에 대한 감사장과 표창패를 수여한다. 또 행사당일인 10월 9일부터 27일까지 법난과 관련 사진과 당시 오도된 언론 보도내용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 전시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학술심포지엄은 '10 · 27법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 10 · 27 법난의 발생 배경과 과제(김광식 부천대 교수) △10.27 법난 피해현황(김관태 산림 컨설팅대표) △10.27법난 특별법의 의의와 명예회복 방안(최용춘 상지대학교 교수)등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총 9주제)는 책자로 발간해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10 · 27법난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공유하는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10 · 27법난은 1980년 신군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내세워 불교계 정화라는 명목아래 특정 종교와 교단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국가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2009년 출범한 '10 · 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교육관 건립'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 이다. 박선주 기자

"생명 지키기 위해 평화로워야"

KCRP · KOCUN-IDP '세계 평화의날 기념식'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에서 7대 종단 대표가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세계 평화의 날 기념 '2009년 세계 평화의 날 기념식'이 9월 21일 오전 12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유엔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KOCUN-IDP) 공동 주최로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열렸다.

'2009년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는 7대 종단 대표자들의 '평화를 위한기도', 성직자들과 일반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염원이 담긴 '평화나무 메시지 달기', '평화의 사진전', '평화의 문' 등으로 마련됐다.

개식사에서 김성곤 IPCR 상임이사는 "평화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10만명의 어린이들이 총을 들고 전쟁을 하고 있다"며 "평화는 우리 개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7대 종단 성직자들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 낭독에서 재경 스님(불교)은 "인간의 자연 파괴는 결국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자연환경의 회복과 인간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 기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캠페인 메시지(WMD-We Must Disarm : 우리는 군축해야 한다)가 비디오로 방영됐다.

반기문 총장은 "세계평화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폭력이 중단되는 날이다"며 "평화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핵군축 문제에 대해 새로 맺어진 조약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이회창 총재 급식봉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9월 24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을 찾아 '어르신 급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살피는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총재는 복지관을 찾은 300여명 어르신의 중식을 손수 배식하는 한편, 복지관의 시설들을 돌아보며 관장 스님과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급식봉사에는 이흥주 최고위원, 김낙성 사무총장 등 당직자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나은 기자

금장사 장학금 전달

14 년간 학인스님과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서울 금장사(주지 본각)가 9월 13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금장사는 승가대 학인스님, 대학생, 청소년, '보리방과후교실' 어린이들과 금화사 학생 등 26명에 화엄장학회와 오향장학금에서 마련한 장학금 1100만원을 전달했다.

화엄장학회는 현재까지 30회의 전달식을 가졌고 1억8000여 만 원을 전달해왔다. 이나은 기자

여수박람회 공직자 종교편향 심각

'여수 복음엑스포' 등 수시로 기독교행사 열려

2012년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정부의 엄중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운영책임자 이경우 지원과장은 9월 10일 한 기독교언론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는 하나님의 은혜"라며 "여수가 성자의 도시로 전 세계인에 각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여수 기독교계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복음 전파의 장으로 만들고자 '여수 복음엑스포 대회'를 2008년 7월 순천제일교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오현섭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이성웅 광양시장, 서갑원, 주승용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참석해 종교중립 의무 훼손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8년 8월 22일 오현섭 여수시장은 기독교언론에 '여수세계박람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음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기고하는 등 종교편향 물의를 일으켜 여수불교계에 공식사과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종교편향 행위이면에 처벌규정이 없는 공무원법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공무원 종교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정장식, 이하 중공교)은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등과 협의를 거쳐 '공직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18회에 걸쳐 실시했다.

특강은 정장식 원장 부임이후 중공교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교화합 교육'의 일환으로,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지혜롭게 사는 길), 가톨릭 미래사목연구소장 차동엽 신부(무지개 원리) 등 종교지도자 강연이 진행돼 공직자들의 종교이해 폭을 넓혔다.

중공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종교 차별 예방을 위한 특강을 수시로 실시해 공평무사한 직무수행의 초석을 다지는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비구 · 비구니 불평등조항 고쳐야

불교여성개발원 '성 인지적 종책 제안 토론회'



'성 인지적 종책제안 토론회'서 유정길 정토회 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살아 숨 쉬는 모든 존재들의 생명 가치는 부처님이나 미물이나 같다는 평등사상은 2500여 년간 불교가 존속될 수 있었던 근본 배경이 돼왔다. 그럼에도 불교 내에는 율법과 종헌종법이라는 명목하에 오랜 기간 비구 · 비구니스님의 불평등 조항이 있다.

이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과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9월 22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불교 성(性) 인지적 종책 제안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열린 토론회는 불교계의 성차별적 상황 극복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성인지적 관점의 종책 제안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불교계 성차별문화 개혁 및 의식화 운동 △종헌종법 개정 추진 △여성 불자들의 정법수호를 위한 정진 △선거인단에 비구니스님 할당제 추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유정길 정토회 법사는 "양성평등은 상대가 가진 파이를 뺏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지녀야할 것, 정당히 지닐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며 "불교계의 양성평등 구축이야 말로 불교문화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 고문은 "조계종 종법 제10조에는 '교구본사자격은 제6조의 추천당시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인 비구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2008년 기준 전국 재적 승려 1만3860명 중 비구스님 5413명, 비구니스님이 5331명 인 것을 볼 때 선거인단에서 비구니스님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비율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비구니스님의 선거참여권을 주장했다. 박선주 기자

담 화 문

- 제33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종단은 부처님의 가피력과 선대조사들의 치열한 수행정진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대중수행공동체를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특히 제32대 집행부 임기 4년 동안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이라는 모토 아래 종단안정과 화합, 사회적 위상 강화에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안으로는 결계와 포살 제도의 시행 등으로 수행종가의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밖으로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와 상생의 사회적 화두를 제시하여 한국불교 대표 종단으로서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부대중은 한국불교 역사상 최대의 인원이 모여 범불교도대회를 엄숙하고 장엄하게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우리사회는 종단의 각종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화합과 원융이라는 승가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여법한 선거를 치러내는 것은 우리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더욱 고양시킬 것 입니다. 국민과 불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만약, 갈등과 반목, 부정선거 등 비불교적인 승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한국불교의 위상추락은 물론 국민들과 불자대중의 외면을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10월 22일 치러지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는 우리 종단의 향후 백년, 나아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 할 것입니다. 현 종단 집행부는 종헌 · 종법에 의거하여 금번 총무원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지는 금권, 비방,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끝까지 확인해서 엄벌할 것입니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재연되고 있는 익명의 비방성 투서는 해종행위로 규정하여 종단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반드시 엄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종단의 행정수반이자 대표, 우리사회의 종교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가 종도들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성원 속에 회향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현 집행부의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회향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선거는 오늘의 성과를 살리고 내일의 종단이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종단이 역사에 빛나는 승가공동체, 사부대중 공동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3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가르침의 '일자일획' 마음에 새긴다

23일 불교방송 사경도반 10만 결사 입제… 도현 스님 지도법사로

"내 이제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이 경전 파손되지 않고 설사 삼재(三災)로 삼천대천 세계 부서진다 해도 이 사경 허공처럼 파괴되지 말지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반들과 함께 마음에 새기는 '불교방송 사경도반 10만 결사 입제법회'가 9월 23일 서울 마포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사경도반 10만 결사'는 사경수행에 동참하는 불자들이 절차에 따라 사경수행을 해나가면서 도반 10만 명 모으기를 발원한 수행캠페인이다.

300여 사부대중이 모인가운데 열린 이번 법회에서는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이 법문을 하고, 지도법사인 도현 스님(정혜사 주지)이 사경 시연을 했다.

도영 스님은 법문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일념이 돼서 주인답게 사는 자가 보살도를 실천하고 부처가 된다"며 "보살도를 실천하고 사경수행을 하기 위해 모인 불자들을 보니 마음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사경은 부처님의 육성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기에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발심은 이미 다 됐으니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9월 23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불교방송 사경도반 10만 결사 입제법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내원정사에 주석하고 있는 성주 스님이 10만 결사 법회를 축원하는 시조 축창(祝唱)을 했고, '마음소리' 스님들이 찬불가를 들려줬다. 이어 사경도반 10만결사의 지도법사를 맡은 도현 스님이 위촉장을 전달 받았다.

1년간 지도법사로 활동하게 된 도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경은 간단히 말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베껴쓰는 것이지만 단순히 글자만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일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이라며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절차에 따라 사경수행을 해나가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어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 복을 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에서는 사경수행을 해온 한 불자의 수행담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임홍순 불자(남 · 천안시)는 "만 2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금강경 사경을 해오면서 마음이 안정돼 성격이 차분해지고 매사 불안한 마음에 여유가 생겼으며 불교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재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도현 스님의 지도 아래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사경하는 사경수행 시간도 진행됐다.

불교방송 사경법회는 매달 넷째 수요일 오후 2시에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사경 점검법회로 진행된 예정이다. (02)705-5301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상담심리 만나 '비전 세우자'

지혜로운여성, 11월 24일까지 '행복가정 만들기' 강좌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이 나섰다.

지혜로운여성은 9월 22일~11월 24일 매주 화요일 불교인재원 교육관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행복가정 만들기'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불교 사상과 상담심리학을 연결해 가족 간의 이해와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총 10회에 걸친 강의는 부모, 부부사이의 문제 등을 짚어보고 참회와 서원의 과정을 통해 부처님 법으로 녹아들어 '내 가정의 비전'을 세우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22일 열린 첫 강의는 '결혼과 부모됨의 신비'에 대해 이정호 (사)아동청소년마음을키우는사람들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하는 (사)아동청소년마음을키우는사람들 이정호 대표.

이정호 대표는 "심리학자 위니컷이 '충분히 좋은 엄마란 갓난아기 때는 환상적으로 잘 해주다가 점차 환멸을 느끼게 하는 엄마'라는 것"을 예로 들어 "어머니와 아기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 아기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토대구축에 실패한다"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시기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 수강생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힘들었다"며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결혼생활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주영 지혜로운여성(www.bwdi.or.kr) 사무처장은 "여성 불자들이 법당에서 제일 많이 기원하는 것은 가족일 것"이라며 "여성 불자의 간절함과 강좌를 통한 전문지식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6일에는 가족 모두가 연예인이자 불자인 김용림씨의 공개강좌 '우리 가족 삶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02)722-2101

박선주 기자

신행게시판

● **'청정도론' 특강법회=**서울 제따와나선원은 10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2회(오전반 10~12시, 오후반 8~10시) 제3기 불교수행 아카데미 '청정도론 특강법회'를 연다. △ 10월 6, 7일: 수행의 개요, 계율 수행 △ 13, 14일: 선정수행의 개요 △ 20, 21일: 선정수행의 실제(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 자애수행, 무색계) △ 27, 28일: 지혜수행 개요, 사대수행(물질) 등을 주제로 일문 스님이 특강한다. (02)595-5115

●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명상선원 오솔길은 10월 9일 오후 5시부터 18일까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평등 스님과 함께 하는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교재는 전재성 역 <숫타니파타>이며 오후불식으로 진행. (033)333-8429

● **주말 위빠사나 수행=**천안 호두마을은 10월 2~4일(능혜 스님 지도), 9~11일(능혜 스님), 23~25일(마가 스님), 10월 30일~11월 1일(능혜 스님) 주말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55명. (041)567-2841

● **3박4일 철야 참선정진=**부산 해운정사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3박4일 철야 참선정진을 갖는다. 회향날은 200여 불자를 대상으로 재가오계 수계식도 봉행한다. 동참비 스님 무료, 재가자 5만원. 간화선 수행도량인 해운정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10월 6일), 18일(10월 12일), 24일(10월 18일)에는 조실 진제 스님의 법문도 진행된다. (051)746-2256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개막

10월 10~18일 삼랑성 전등사서 개최

삼랑성역사문화축제추진위원회와 강화 전등사가 주관하는 '인천광역시 제9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10월 10~18일 삼랑성 전등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소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금 소통(疏通)보다 소통(笑通)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歷史와 笑通(역사와 웃음으로 소통)'이란 부제와 함께 새롭게 마련됐다.

행사는 가을음악회, 다례재, 영산대재, 문화마당, 소리마당, 전시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특히 전통 기법으로 법화경 인출과 서책을 만드는 과정, 오래된 기와에 전등사의 단청을 그려 넣은 전시 등은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한편,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인천의 대표적 문화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 군민시민들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축제이다.

이은정 기자

대원상 후보 추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 및 전파에 앞장선 이들에게 시상하는 제7회 대원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시상부문은 대상에 출가 및 재가부문 각 1명과 단체부문 1곳, 특별상은 숨은 재가자 및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또 불교미디어콘텐츠상을 신설, 1인 또는 단체 한 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상금 1000만원), 불교미디어콘텐츠상(상금 500~1000만원), 특별상(상금 300~500만원). 마감은 11월11일. (02)719-1855 김성우 기자

봉은사 장학금 전달

중앙승가대 200여 명에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9월 24일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태원)에 재학하는 조계종 소속 스님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봉은사는 5월 14일 상반기 장학금으로 687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장학금은 신도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 6810만원으로 학인 스님 227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수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을 비롯해 황남수 봉은사 신도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봉은사는 2007년부터 중앙승가대학교 발전과 인재불사를 위해 매년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방하착 수행' 강좌 성균관대 강타

법상 스님 10월 13일부터 특강

일산 덕양선원장 법상 스님(사진)의 '방하착(放下着) 수행' 강의가 대학 강단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법상 스님은 10월 13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퇴계인문관 31604호실에서 열리는 성균관대학 '동양사상 입문' 강좌에서 '방하착 수행'을 주제로 특강한다.

지난 해에도 성대에서 특강을 가진 바 있는 스님은 지난 3월과 9월 경기대학의 '문학의 이해' 강좌와 9월 18일 경원대학의 '동양철학' 강좌에서도 강연을 펼쳐 대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이 가진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게 하는 방하착 수행은 각자가 스스로 존재함을 성찰하고 삶에 대해서도 한층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한다. 학생들은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환하게 생기를 발산하기도 하면서 선(禪)의 세계로 빠져들곤 한다는 후문이다.

법상 스님은 "이 강의가 물질의 풍요가 자칫 정신의 빈곤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씨앗이 됐으면 한다"면서 "대학의 강의 요청이 늘어나지만 가능한 한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선원(cafe.daum.net/zeol)에서는 현재 신묘장구대다라니 27차 49일 정진이 진행 중이며 스님 집전 아래 매주 목요일 오전과 금요일 철야로 다라니 108독 정진을 한다. (031)907-7172

김성우 기자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0돌 개산대재

보살계 · 만등불사 · 산사음악회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가는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 809년)에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0돌이 되었습니다.
기축년에 창건하여 1200돌을 맞는 기축년 기축일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3년 10월

개산대재 대법회 10월 11일 (일요일 음 8. 23)

▫ **보살계 · 만등불사**
3師 전계대화상 설정큰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교수아사리 혜인큰스님 (약천사 회주)
갈마아사리 지하큰스님 (전 종회의장)

▫ **산사음악회**
장윤정, 박현빈, 현숙, 조항조, 유지나, 윙크,
명창 박계향, 박명진, 주운숙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 법회 안내 ■

▫ **10월 10일(토) 오후 3시**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부도전)

▫ **10월 11일(일)**
· **오전** 9시 30분 - 헌공 (어산작법, 육법공양)
11시 - 개산법요식
· **오후** 1시 - 보살계 수계식
2시 30분 - 산사음악회
6시 -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보살계 - 1인 2만원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동대구역 지하도 → 하양 → 은해사, 남부정류장 → 경산 → 은해사
포항역 → 영천 → 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 종무소 **054)335-3318~9**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www. eunhaesa.org

한국불교대 포항도량 21일 개원법회 봉행

대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포항도량이 9월 21일 포항 학산타워에서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아홉번째 분원 도량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포항분원은 한국불교대학의 9번째 분원으로 포항 도심 고속버스터미널 옆 학산타워 6층에 200여 평의 규모로 마련됐다

행사에서 우학 스님은 "포교 여건이 열악한 포항을 불국토 건설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포항분원을 설립했다"며 "불자들이 수행정신을 통해 자비심을 가꾸고 봉사하는 도량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054)727-8228

손법천 대구지사장

대경풍경소리 10년 용연사서 사진전

대구경북 풍경소리(대표 상원, 대구 용연사 주지)는 9월 19일 용연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사진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성선원 한북 스님이 인도여행을 통해 부처님 성지 등을 돌아보며 작품화한 사진들이 '인도성지 그리고 인도불교'를 주제로 전시됐다.

상원 스님은 축사에서 "풍경소리는 사람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 대중의 청량제 역할을 하며 법음을 전해왔다"며 "말없는 포교의 선봉자로, 문화포교 단체로서 문화를 계승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알리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연사 전시를 마친 사진들은 대구 동화사 등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인재불사 요람, 명문 전통 잇자

대구 능인중 · 고교 개교 70주년, 은해사 입구에 설립기념비

일본강점기 불교계 선각자들에 의해 세워져 사학명문으로 자리매김한 대구 능인중 · 고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념비를 제막하고 제2의 웅비를 준비한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이사장 종광)은 10월 9일 오전 11시 개교지였던 영천 은해사 입구에서 학교설립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한다.

기념비 설립에는 능인학원을 비롯해 은해사, 능인총동창회, 능인 중 · 고교가 주체로 참여했다. 능인학원 등의 인사가 참여해 꾸려진 건립위원회에는 이사장 종광 스님과 박명호 총동창회장을 건립위원장으로 은해사 총무국장 보림 스님, 능인학원 사무국장 일릉 스님, 김상기 총동창회 운영위원장, 강상득 총동창회 사무처장, 김영현 능인중 교장, 이종서 능인중 교감, 양근식 능인고 교장, 조상승 능인고 교감, 장영진 능인중 운영위원장, 김일부 능인고 운영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건립위 간사로는 김상만 능인중 교학부장과 이은진 능인중 행정실장, 김홍석 능인고 행정실장이 참여했다.



10월 9일 능인중 · 고교 개교지에 세워질 표지석 전면의 모습.

제막식에 세워질 기념비 앞면에는 '민족 사학의 요람 능인중 · 고등학교 개교지'라 새겨졌고, 뒷면에는 불타정신구현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돼 종립 명문사학으로 길을 걸어온 학교 약사가 기록됐다.

1940년대 영천 은해사, 대구 동화사, 의성 고운사, 문경 김룡사, 경주 기림사 등의 선지식들은 불교교육과 체계적인 중등 교육으로 민족의 얼을 고취시키고자 1940년 4월 8일 영천 은해사에 능인중 · 고교의 전신인 오산불교학교를 개교했다. 이후 1945년 오산농림실수학교를 열고, 같은 해 대구 남산동 교사로 이전한 이래 1951년 능인고 설립, 1954년 대구 이천동 교사로 이전, 1986년 현재의 대구 지산동 교사에 이르기까지 대구지역 중등교육의 요람으로 소임을 다해왔다.

대구 · 경북지역 불교계 선각자들이 혜안으로 설립한 능인중 · 고교는 일본강점기에는 독립운동과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했고, 한국전쟁 때는 학도병으로 참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다. 지금도 주호영 특임장관을 비롯한 이 학교 출신 6만여 동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종광 스님은 "부처님의 옥호(玉毫)에서 나온 빛은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듯 능인중 · 고교에서 배양된 인재들이 온 천하에서 활약하고 있으니 선각 대덕들의 혜안은 참으로 밝았다"며 "개교 70주년을 맞아 학교 설립의 숭고한 의미를 알리고자 개교 표지석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성전암 현응선림 상량 대구 파계사 성전암 현응선림 상량식이 9월 15일 봉행됐다. 파계사 현응선림은 정면 7칸, 측면 3칸 구조의 32평 규모로 건립 중이며 10월 중 낙성될 예정이다. 이날 상량한 상량보에는 파계사 조실 청운 스님이 직접 쓴 상량문이 함께 봉안됐다. 한편, 행사에는 파계사 조실 청운 스님을 비롯해 주지 법광 스님, 성전암 원주 벽담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한가위 달맞이 템플스테이

서산 부석사서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10월 2~4일 '한가위 달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추석 전날 송편 만들기를 비롯해, 당일 합동 차례, 차담(茶談), 참선 배우기, 한가위 작은 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선착순 30명, 참가비는 성인 7만원, 초등학생 6만원이다.

이어 10~11일에는 '산사음악회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행사에는 제7회를 맞은 부석사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자유산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성인 4만원 초등학생은 3만원이다. (041)662-3824 조동섭 기자

마곡사 생태농장 개원

23일 생태도량 선포하고 자비 배추심어

공주 마곡사가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생태농장을 개원하고 생태도량으로 거듭났다.


9월 23일 마곡사 생태도량 개원식 후 주지 원혜 스님이 대중들과 배추를 심고 있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는 9월 23일 경내 생태농장에서 생태도량 선포식과 자비의 배추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 주지 원혜 스님이 사찰 운영을 위해 강조한 3대 지표 중 '지수화풍(地水火風)과 하나 되는 생태도량'을 위해 마련됐다.

생태도량 선포식에 이어 '자비의 배추심기'에서는 7000여 포기의 배추가 심어졌다. 마곡사는 이 배추들을 3개월 동안 가꿔 도농 직거래장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사찰인근 불우이웃에게 김장을 담궈 나눠줄 예정이다.

원혜 스님은 "마곡사가 생태농장을 개원한 것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백장 선사의 청규를 실천하는 생태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불사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마곡사 생태농장을 지역 주민과 불자들에게 개방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먹을거리를 직접 가꿀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영평사 구절초 축제 오세요

10월 18일까지 꽃차 시음회 · 사진전 등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는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10회 구절초 꽃축제'를 개최한다.


공주 영평사 구절초 축제에서 단란한 부녀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구절초 꽃축제는 주지 환성 스님이 구절초가 좋아 심은 것이 영평사 인근 산야 3만여 평을 가득 메우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구절초가 피는 가을이면 공주 영평사를 찾는 사람들이 7만여 명 넘을 정도로 이제는 공주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축제가 됐다.

구절초는 들국화의 일종으로 손발 등 몸을 덥혀주는 약재와 차, 술의 재료로 쓰인다. 또, 향이 좋아 향수 등 화장품 원료로 쓰이며 살균작용 등이 있어 상처에도 사용된다. 구절초라는 이름은 9월 꽃잎이 약초가 제일 좋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행사에는 구절초 꽃차 시음회와 국수 공양, 천연비누 만들기, 사진전시회, 108배 참회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편, 매년 축제기간 중 열렸던 산사음악회 등은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취소되고, 10월 10일 마당극과 11일 공주지역 음악동호인들의 공연으로 대체됐다.

조동섭 기자

옥천불교연합신도회 26일 창립

회장 박영학씨

옥천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영학, 前 옥천교육감)는 9월 26일 10시 30분 옥천농협예식장에서 창립대법회를 봉행했다.

옥천불교연합신도회는 이용희 국회의원(前 국회 정각회장), 연규학 · 박효근(前 문화원장)씨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옥천군사암에서 회원 5명씩을 추천해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옥천불교연합회(회장 혜철)를 비롯한 원로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에는 창립 대법회에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의 초청법문이 있었다.

박영학 신임회장은 "불법을 호지하는 일에 신명을 바치겠다"며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11)455-2652 혜철 충청지사장

덕산 스님, 청주서 '직지' 무료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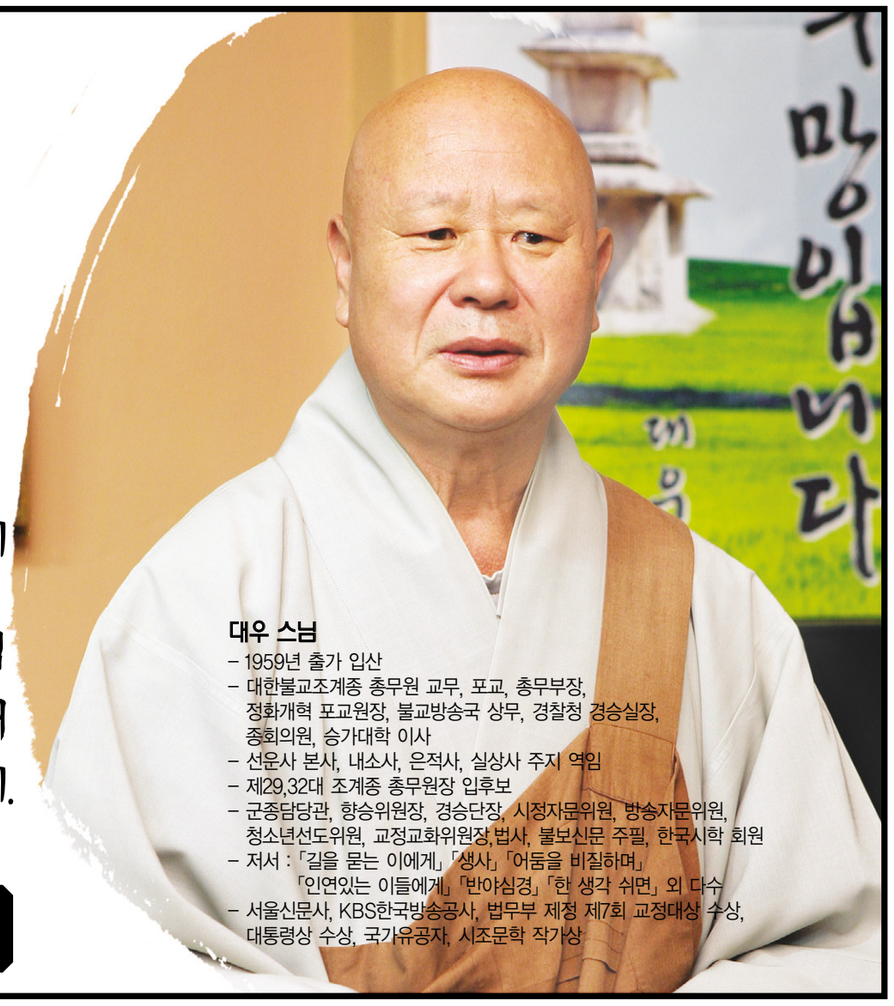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에 관한 무료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은 9월 24일 저녁 7시부터 매주 목요일 청주 삼운회 교통봉사대강의실에서 '직지' 주제 무료강좌를 연다.

덕산 스님은 "'직지심체요절'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청주의 자랑"이라며 "많은 이들이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는 있어도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해 무료강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덕산 스님은 1982년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제방의 선방서 수차례 안거 후 1985년부터 염불수행을 시작해 2007년 <염불선>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043)297-5115 혜철 충청지사장

시조문학 작가상 수상!!
대우스님 禪詩
그대 그리운 날
어느 가을날
詩人 대우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를 묻길래
세월에 놀라 버리고 떠날 줄 아는
낙엽을 붙들고 있다고 손 내밀었네
고요도 몸져누운 뜨락에 지는 낙엽
그 무게 얼마인지 궁금함을 눈짓해
바람에 가서 물어보라 말해 주었네.


법보시 문의 받습니다
생명의 나라 진리의 고향 우주의 주인
백련참회굴 백련선원 대우 합장 010-2625-3307

대우 스님
- 1959년 출가 입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총무부장, 정화개혁 포교원장, 불교방송국 상무, 경찰청 경승실장, 종회의원, 승가대학 이사
- 선운사 본사, 내소사, 은적사, 실상사 주지 역임
- 제29,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입후보
- 군종담당관, 향승위원장, 경승단장, 시정자문위원, 방송자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교정교화위원장,법사, 불보신문 주필, 한국시학 회원
- 저서 : 「길을 묻는 이에게」「생사」「어둠을 비질하며」 「인연있는 이들에게」「반야심경」「한 생각 쉬면」 외 다수
- 서울신문사, KBS한국방송공사, 법무부 제정 제7회 교정대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국가유공자, 시조문학 작가상

해 외 WORLD

미얀마 스님은 감옥투옥 中

휴먼라이츠, "2007년 반정부 시위로 수천명 감시당해"

미얀마 스님들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탄압에 저항한 대가로 2년간 혹독한 감옥생활을 치르고 있다고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와치(HRW)가 보고 했다.

HRW는 9월 22일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일어난 반정부시위로 240명의 스님들이 힘든 감옥생활을 보냈으며, 수천 명의 스님들은 승복을 빼앗기고 감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2010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면 현재 반복되고 있는 시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HRW는 "2007년 미얀마 정부의 스님들에 대한 체포와 폭력이 있고난 뒤에 최소 31명의 민간인이 반정부시위대를 진압하는 보안군들에게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미얀마 군정부는 지역 수도원에서 운영하던 사회, 복지, 보건 서비스 시설 마저도 폐쇄하고 그들을 탄압 ·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RW의 보고에 따르면 많은 스님들이 2008년에 지역을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억압으로 수도원을 떠나거나 해외로 피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당시 사이클론의 피해로 미얀마인 13만8000여 명이 죽었는데 스님들과는 달리 미얀마정부는 사이클론 피해에 안일한 반응을 보여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HRW 아시아 국장인 브래드 아담스는 "스님들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하지만 정부의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그들의 모습은 좋은 본보기가 돼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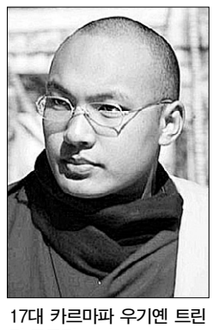
이와 함께 HRW는 미얀마 정부가 고승들에게 선물과 수도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불교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미얀마 정부의 억압과 폭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도운 죄로 체포했던 기자 2명을 풀어주고 7000명 이상의 반정부 포로를 석방시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미얀마정부의 포로 석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미얀마 당국은 아웅산 수치 여사도 석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나은 기자

"비디오게임은 감정조절법"

달라이 라마 후계자 카르마파 밝혀


17대 카르마파 우기옌 트린리 토르지 스님.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로 지목된 17대 카르마파 우기옌 트린리 토르지 스님이 힙합음악과 비디오 게임을 즐긴다고 해 눈길을 끈다.

현재 인도 델리에 머물고 있는 그는 타임즈오브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비디오 게임을 감정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갖고 있다. 수행을 하는 승려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간들은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갖는데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나에게는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운드가 현대적인 힙합음악을 즐겨 듣는다. 카르마파 라마는 "나는 티베트 불교의 오랜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글로벌 시민이기도 하다"며 "힙합은 21세기를 사는 내가 존재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르마파 라마는 자신이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맡을만한 상황이 아니며 그럴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나은 기자

국제인권상 수상

달라이 라마 공로 인정

달라이라마가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슬로바키아의 얀란고시(Jan Langos) 국제인권상을 수상했다.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달라이라마는 9월 9일 브라티슬라바의 한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상을 중국과 티베트 간의 '상호 이해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얀란고시 재단은 인류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노력한 공직자나 정치인, 또는 압제권력에 저항한 인사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헝가리 민주화에 힘쓴 아르파드 괸츠 전 헝가리 대통령이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상은 달라이라마가 중국의 티베트 통치에 맞서 보여준 비폭력 투쟁과 인권신장에 힘쓴 공로로 수여한 것이다. 이나은 기자

"십시일반 자비심 보태요"

아름다운동행, 이웃에 쌀 · 연탄 900세대에 전달

조계종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추석을 맞아 주변이웃들의 먹거리와 난방걱정을 덜기 위한 자비행을 펼쳤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은 9월 25일 쌀 20kg들이 900포와 연탄 3만6000장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가구 900세대에 전달했다.

서울(조계사), 오산(대각사), 대전(고산사), 대구(동화사), 양산(통도사), 광주(원각사)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 행사는 그 동안 아름다운동행이 전국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금으로 물품을 마련, 회향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서울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세영 스님,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고두심씨, 총무원 교역직 스님 및 종무원,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봉사활동자로 나섰다.

이날 봉사자들은 6년째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지원해온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사장 변형윤)'의 진행아래 종로구 부암동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9세대에 각각 연탄 300장, 쌀 1포씩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지관 스님과 홍보대사 고두심씨가 연탄 전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관 스님은 연탄 배달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에게 "춥고 배고픈 겨울을 지내봐야 이웃의 고통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자"며 "이렇게 뜻 깊은 일에 동참해준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홍보대사 고두심씨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아름다운 동행에 같이 '동행'해 매우 보람되고 뜻 깊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배 100원 모금 법회, 자비의 등 달기, 한끼 나누기, 자비 연꽃배지 달기 등의 다양한 자비나눔운동을 전개해 9억4000여 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동안 모연된 기금은 상반기에는 실직가정 ·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치료비 및 생계비, 쌀, 학비 등으로 3억6000여 만원이 지원됐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글=이나은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상례지도사 모집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에서 '제2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을 모집한다.

불교상례전문지도사란 불교상 · 제례와 관련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사찰 상조회, 신행단체에서 상가봉사활동과 불교장례를 지도할 실무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워 상 · 제례 업종에 진출하게 되는 전문직종이다.

이번 지도사과정은 동국대불교문화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석 · 박사출신들이 중심이 돼 불교 상 · 제례이론과 실습, 공중보건, 상조문화와 외국장례, 자연장, 장례시설, 현장 견학 등을 진행한다.

문화원 관계자는 "불자들이 사용할 상용집이 없어 전문교육을 시켜 불교계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09년 7월 불교계 최초로 교육을 실시한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68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故 노무현 · 김대중 前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교육기간은 10월 24일~2010년 3월 27일 6개월 과정 총 108시간이며 수강생들은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02)737-7277 이나은 기자

궁플란트 · 대각사 협력병원 조인

매월 신도 중 독거어르신 1인에 무료 틀니 시술

의료봉사로 자비나눔을 꾸준히 진행해온 궁플란트 치과(원장 최우환)의 자비행이 또 한번 이어졌다.

최우환 원장은 9월 19일 서울 대각사에서 주지 장산 스님과 협력병원 조인식을 가졌다.



대각사 주지 정산 스님과 궁플란트 최우환 원장이 9월 19일 협력병원 조인식을 가졌다.

대각사는 매월 1명의 대각사 신도 중 무의탁 독거어르신을 선정해 궁플란트치과로 추천하면 치과는 무료로 틀니를 시술하는 형태로 앞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의료 봉사를 실천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많은 의료봉사를 제공할 것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포교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궁플란트는 조계사와 무의탁 독거어르신 1명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 2명을 매월 추천받아 무료틀니 ·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로구청과 협력병원 제휴를 맺어 관내 18세 이하 소년 · 소녀 가장에게 무료진료를 해오고 있다.

이나은 기자

김준배 거사 대통령 국민포장

노인의 날 맞아 노인복지 증진 공로 인정


김준배 거사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김준배(85 ·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장 · 사진)거사가 대한노인회중앙회관에서 9월 25일 대통령 국민포장을 받았다.

김 거사는 지난 38년간 서울시 송파구내의 150여 개의 경로당을 관리하며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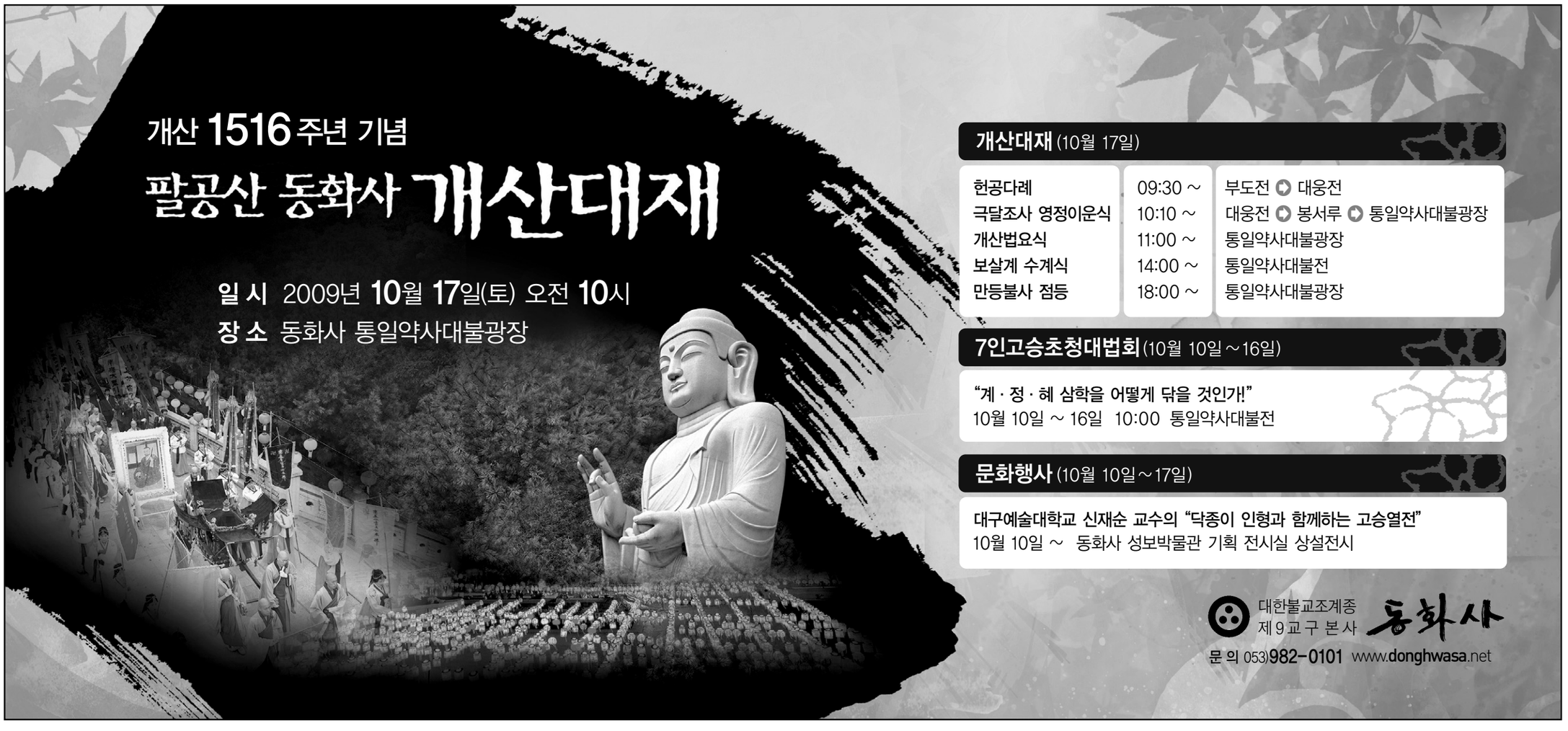
△지역사회발전분야 △노인문화창달분야 △노인지도자양성분야 등에 큰 업적을 남긴 김 거사는 특히 장묘문화 개선사업 분야와 같은 각종 다양한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공로가 커 포장을 받았다.

노인복지 및 권익신장에 기여한 김준배 거사가 다시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황적으로 열악했던 불교계 언론사에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다.

김 거사는 80년대 법등 스님이 조계사 주지일 당시 '광서당'이라는 인쇄소를 10여 년간 운영하며 불교신문 등을 저렴한 가격에 인쇄, 공급해 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힘썼다.

김준배 거사는 "더 잘하라는 뜻에서 주는 상인 것 같다.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자활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나은 기자



‘대중의 사표’ 한영 스님집중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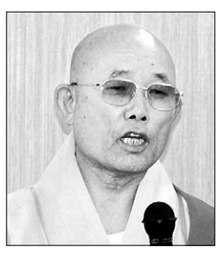
선운사 ‘석전영호 대종사의 생애 사상’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불교 초대 교정을 역임하며, 근현대 선지식으로 불교교육과 민족 독립 등에 앞장섰던 박한영 스님(1870~1948). 스님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시절, 많지도 않았던 월급에서 필묵 구입비 외에는 모두 제자의 학비에 쓰도록 내놓았고, 스님이 순례하던 때는 한 주지스님이 진수성찬을 내자 한마디 사례조차 없이 나서는 등 승려의 본분을 지키며 민중 계몽과 불교 유신운동에 헌신하는 등 이사(理事)를 겸비한 시대의 선구자였다. 그동안 업적과 사상 등에 대해 주목받지 못했던 박한영 스님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20일 ‘석전영호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제2회 백파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혜남 스님(통도사 율원 전계사)의 기조강연 ‘석전영호 대종사의 강맥’을 비롯해 △‘석전영호 대종사의 불교사상과 그 유신운동’(노권용 원광대 교수), △‘석전영호 대종사의 계율사상’(운문사 승가대학 교수 효탄 스님), △‘석전영호 대종사의 항일운동’(오경후 한국불교 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석전영호 대종사의 문학관’(김상일 동국대 교수), △석전영호 대종사의 선사상과 관련한 선종사적 배경 고찰(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이 발표됐다.







석전영호(박한영) 스님(왼쪽)과 통도사 율원 전계사 혜남 스님(오른쪽 위), 원광대 노권용 교수.



1941년 3월 13일 선학원 유교법회 후 사진(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석전 스님, 그 오른쪽 옆에 만공 스님).

혜남 스님은 기조강연에서 “조계종의 핵심 종지는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표방하는 통합 종단으로 선 · 교 · 율은 물론 정토교와 밀교까지도 통합된 종단”이라며 “조선 후기까지 종사로서 법문 못하는 분도 없었고 선사로서 강사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혜남 스님은 “백파의 강맥을 이은 제78조 설유처명(1858~1903) 스님도 종통과 설통을 겸한 선지식이었으며, 이 법맥을 이은 영호 스님 역시 종설겸통의 선지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혜남 스님은 “선가의 전법은 일인일전(一人一傳)인 것처럼 전강(傳講)도 강사의 자리를 제자에게 물려주는 것이나 이제는 자립해 연구하고 교수할 수 있음을 스승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됐다”며 “전강의 순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법맥 · 강맥에서 아랫 상좌가 똑똑하다고 맏상좌에 앞세우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노권용 교수는 박한영 스님의 사상을 △겸학정신과 계율엄정 △화엄적 세계관과 실천관 △겸전적 선사상으로 정리했다.

노 교수는 “스님의 사상기반은 서산휴정의 선교일치(禪敎一致), 설파를 통해 이어진 화엄교학, 백파의 선서통달(仙書通達)과 지율엄정의 가르침이 설두(1824~1889), 설유(1858~1903)를 거쳐 스님에게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청정계행을 강조했던 박한영 스님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계학약전>을 저술했다. 계율의 의의와 구체적인 계상, 수학의 권유 등 3장으로 구성된 책은 사분율과 <범망경> 계율은 물론 <능엄경>을 강조했다.

노권용 교수는 “스님이 <계학약전>을 지어 계율엄정을 천명한 것은 불교계율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불교의 타락상을 바로 잡아 민중과 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불교의 기틀을 다지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한영 스님은 한국불교의 주체성 확립과 불교인의 자각, 불교청년의 교육 및 포교의 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한 불교유신운동을 전개했다.

노 교수는 “스님은 불교청년 교육에 최대 역점을 두고 후진양성에 헌신하고, 참다운 불교정신에 바탕해 현실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민중을 선도할 수 있는 포교의 현대화에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효탄 스님은 석전 스님 이후 희미해진 선운사 등의 호남지역 계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조선불교중앙총무원의 초대 교정을 지내는 등 1945년 해방을 전후해 종단 내외적으로 추앙 받던 박한영 스님은 계사(戒師)로도 많은 활동을 했을 것”이라며 “내장사, 백양사, 금산사 등에 율원 및 계단을 설치해 호남계 율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후 박사는 “박한영 스님의 선교관과 당시 불교계에 대한 비판은 교육과 포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개혁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호법과 항일운동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박한영 스님이 만해 등과 함께 벌인 임제종운동은 일본불교의 침투와 일본불교에 경도돼 가는 한국불교계에 각성을 촉구했고, 불교유신회 활동으로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령 폐지를 위한 건백서 제출과 일본의 책동에 기만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논설을 쓰는 등 박한영 스님은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한성임시정부 수립 당시 13도 대표이자 불교계 대표로 국민대회취지서에 서명했고, 조선민족대동단 등에서도 활동했다. 또,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 발기인과 진단학회 찬조회원으로 나서는 등 불교개혁과 호법운동에 국한하지 않고 국학진흥사업을 통한 민족수호운동도 펼쳤다.

국한문 혼용시대를 살았던 박한영 스님은 다수의 문학작품을 통해 불교적 문학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님은 “지극한 도는 말이 없고 주석으로 드러내나 그 한계가 있다. 다만 언어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불교인은 ‘선게(禪偈)’라 하고 세속인들은 ‘시가(詩歌)’라 부른다”고 말했다.

김상일 교수는 “스님은 시와 선을 하나로 보는 한시(漢詩) 중심의 시적 개성론을 갖고 있었다”며 “고 말했다.

김호귀 연구교수는 “박한영 스님은 임제종 종지에 근거한 조사선 가풍을 이었다”며 “스님은 긍정적 안목을 바탕으로 구도자 정신에 대해 준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선지식”이라 설명했다.

법만 스님은 “박한영 스님의 수행과 학문,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사회 소통에 ‘집단 지성’ 필요

승가대신문 20년 기념세미나서 윤남진 소장 주장

“불교계와 사회의 소통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집단 지성’의 장(場)이 펼쳐져야 한다. 또, 불교계 내부의 소통을 위해서는 ‘소통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 출가와 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승가대신문 20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윤 소장은 주제발표 ‘오늘날 출가자와 재가자의 바람직한 소통방안’에서 “소통에서의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일치된 인식에 기반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고 말했다.

윤남진 소장은 소통의 전제로 △문제의 통일성 △논증적 태도와 방법 △도반의식에 기초한 조직학습을 제시했다.

윤 소장은 “불교에서 소통의 기본문제는 ‘그것은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행하면 해롭고 괴롭게 되며 또한 이것은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 행하면 이롭고 행복하게 되는가’일 것”이라며 “불교적 소통은 이러한 기본문제를 전제로 편견과 권위를 떠나 집단적 수행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람직한 불교적 소통을 위해서는 (사찰 등에서) 구성원의 문제를 발견하고 현대적 언어로 정의해 효율적인 소통의 매체를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소통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며, 대외적으로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지식의 집적을 이루며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학교의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먼저 승가대신문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동문회장 정념 스님(평창 월정사 주지)은 “승가대신문은 불교계 유일의 대학신문이며, 학인스님이 직접 제작하는 신문”이라며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승가대신문 동문회장 초격 스님은 “승가대신문은 학인스님들의 눈과 귀를 통한 불교계 유일의 대학신문”이라며 “승가대신문이 대중매체로서 불특정다수에게 알 권리를 주는 언론의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간 20주년을 맞은 승가대신문은 1990년 창간됐다. 창간 당시부터 학보지가 아닌 조계종도의 기대지로, 1990년대 종단 혼란기를 거치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중앙승가대의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8면 분량, 연12회 발간도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

조동섭 기자

“다종교사회 평화유지 대응책 마련”

조계종 불학연구소, ‘불교와 국가권력, 갈등과 상생’ 세미나

평화로운 다종교사회 유지를 위해 종교차별에 대한 불교계의 장기적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9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와 국가권력, 갈등과 상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정웅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은 주제발표 ‘범불교대회의 배경과 성격’을 통해 “2008년 8월 27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8 · 27범불교도대회는 한국불교현대사의 획기적인 사건”이라 평가했다.

정 사무처장은 8 · 27범불교도대회의 성과를 △불교계가 권력에 대해 독립적 · 자주적 행보를 취하게 된 기폭제 △종교차별 문제를 헌법정신 수호, 민족문화와 역사보존을 위함이라는 사회적 의제로의 확산 △연령을 초월한 참여가 보여준 불교도의 인식변화 등으로 정리했다.

정웅기 사무처장은 “이제는 종교차별 문제의 분석과 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비전과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에 앞서 불교계가 철저히 공익적 가치로 무장하고 그릇된 관행을 개선해 (불교계가 개신교가 가진 기득권의 틈을 이용해) 권력에 편승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는 주제발표 ‘1960~1980년대의 불교차별과 배경’에서 “종교적 불평등이 불교의 사회적응 능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이 현재 주요 종책으로 추진 중인 자연공원법 개정 등을 언급한 차 교수는 “불교재산법,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등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교의 자율성과 자주권이 침해돼 왔다”며 “인재불사 등을 통해 불교계 내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문사철 가을호

‘봉인사’ 등 18편 실려



인간학과 고전학의 대중화를 위한 인문학 계간지 <문학 · 사학 · 철학> 가을호가 출간됐다.

이번호에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한국불교에서 봉인사의 사격’, 조인숙 고려대 박사의 ‘불설과 비불설 논쟁에 관한 소고’, 오지연 동국대 외래교수의 ‘천태 십승관법에 관한 재조명’ 등 18편의 글이 실렸다. (02)2260-3583

조동섭 기자

봉 국태민안과 경제극복기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기원 축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 서경보존자 탄신 95주년 기념 및
제38회 일붕문도의 날 봉축 및 일붕문도108고승 초청 마정수기 대법회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국내외 6천7백명의 제자로 구성된 전국일붕문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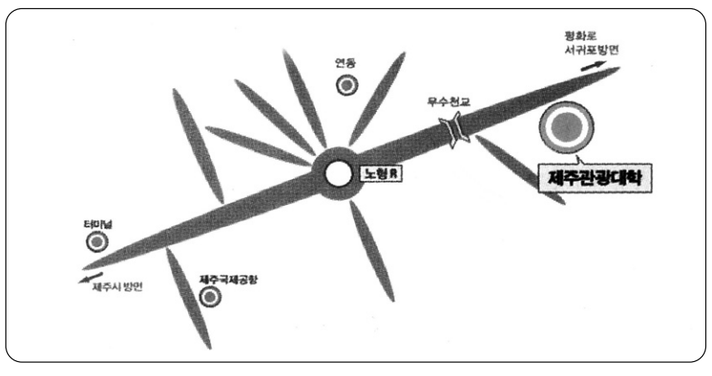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일붕존자님 탄생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

• 일 시 : 양력 10월 10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장 소 : 제주관광대학교 실내체육관

10일 오전 9시 30분 - 정기총회
오전 10시 - 봉축대법회
정오 12시 - 오찬
오후 1시 - 일붕성지순례
오후 5시 - 제주도 출발(해산)

* 당일 참석하실 분은 행사장으로 10시까지 도착하십시오.



제주관광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535
☎ (064)740-8700(행사장)

전국일붕문도회 회장 김도기합장 일붕문도회 : (02)777-0901, 일붕신문사: (02)777-0959, 회장주석사찰 영주관음사 : (054)633-1138

일주문



천태종, 단양다문화가족지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23일 단양경찰서와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단양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사업에 나섰다.



진각종 진기 63년 추기스승강공 개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10월 21~22일 1박 2일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진각종 진기 63년 추기스승강공을 개최한다. (02)913-0751



인드라망, 제2차 화엄광장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0월 17일 오후 3시부터 1박2일간 지리산 실상사에서 제2차 화엄광장을 개최한다. (02)576-1886



제87차 정기월례학술대회 개최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9월 26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간화선의 원리와 심리학적 고찰'을 주제로 제87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꽃마을 행복한 노인 사진공모전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10월 5일까지 '행복한 노인 · 해피시니어 사진공모전' 출품작을 접수받는다.(031)898-1498



법타 스님, 대불련 사상강좌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9월 30일 경북대 제2합동강의실에서 대불련 대구 · 경북지구 학생을 대상으로 사상강연을 펼친다.



불교환경연대 후원의 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10월 14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환경운동 10년'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02)720-1654



민추본 평화통일사진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 본부장 명진 스님은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에서 '제2회 평화통일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02)720-0531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월 16~18일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 지역 사찰에서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 (033)339-6800



칠장사 어사 박문수 전국 백일장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10월 10일 경내에서 '제1회 칠장사 어사 박문수 전국 백일장'을 개최한다. (02)788-2028

청와대불자회장 22일 총무원장 예방

12대 청와대불자회(이하 청불회) 회장으로 임명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9월 22일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하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재완 청불회 회장은 "전 회장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청불회 회원들의 도움과,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차분하게 열심히 중책을 수행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은 작고하신 선친을 사찰에 모시고, 고시 시험 준비를 할 때 1년 여를 사찰에서 기거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이 깊다. 박회장의 법명은 '금산(錦山)'으로 작년에 지관 스님이 지어 주셨다.

박 회장은 "최근 정부와 불교계 사이에 벽이 많이 낮아진 느낌이 있지만 신뢰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스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의견을 정부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불교계 "10.27법난 사료관 건립문제 등도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원만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호남불교 중흥 위해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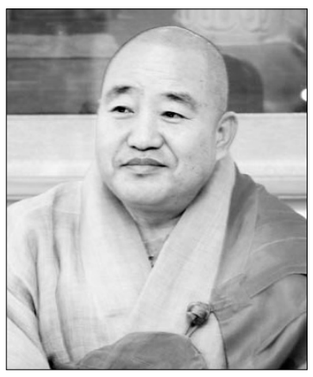
원행 스님 교구본사 김제 금산사 주지 재임

"불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호남불교로 가꿔 가겠습니다."

조계종 제17 교구본사 김제 금산사 주지로 재임명된 원행 스님은 9월 22일 총무원 4층에서 열린 임명식 후 "호남불교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금산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호남불교를 중흥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본말사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전북불교의 대표 사찰인 금산사가 호남불교 중흥에 앞장서도록 열심히 소임을 살겠다"고 말했다.

금산사는 현재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 · 수련공간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왜군에 의해 소실된 4백년의 세월을 거슬러 내년 하안거에는 '화림선원(가칭, 華林)'이 개원 예정이며, 금산사에서 활약한 임진왜란 3대 승병장 처용 대사의 명호를 딴 수련장 '처용관'도 300평 규모로 건립예정이다. 또 호남불자의 장례복지를 위해 수목장과 납골당 등 공원묘지 건립불사와 전주불교방송국 개국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원행 스님.

원행 스님은 이에 대해 "최근 전국 포교사 2000여 명이 금산사에서 팔재계 수련대회를 개최했으나, 공간 협소로 자리를 깔고 정진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영남권과 같이 수계산림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수련관이 호남지역에도 있어야 신행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지역은 타종교의 공원묘지에 비해 불교계 공원묘지가 부족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불교방송국도 없다"며 "수목장 · 납골당 방식의 공원묘지 건립과 전주불교방송 개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원행 스님은 호남불교계의 화합과 단결로 타종교에 비해 열세인 호남불교 중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전남지역 4개 본사와 전북지역 2개 본사는 매달 첫주 월요일 모임을 갖고 여수 엑스포 불교계 동참과 북한 복돼지 운동 등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북지역 지장도량인 선운사와 더불어 미륵도량 금산사는 스토리를 가지고 불자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륵도량으로서, 유식사상 근본도량으로서 학림 설립과 세미나 개최 등 사상배양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형인 전 포교원장 도영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원행 스님은 "공식 출마를 밝히지 않아 구체적 말씀을 드릴수 없다"며 "출마한다면 문중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제18회 행원문화상 24일 시상식 개최



주영운 이사장(오른쪽)이 백도수 연구원(왼쪽)에게 역경상을 시상하는 모습.

불교문화발전을 도모하는 (재)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9월 24일 제18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원문화상은 역경상 부문에 금강대학교 백도수 연구원, 예술상 부문에는 LMB싱어즈 중창단(단장 황영선)이 수상했다. 이번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 이유로 백도수연구원은 산스크리트, 빠알리어에 능통해 30여년간 등 불교 학문 정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이 인정됐으며, 예술상을 수상한 LMB싱어즈는 수 백회에 달하는 사찰과 불교계의 주요행사에서 음성공양 및 환아돕기 자선음악회 등 불교음악을 통한 포교와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주영운 이사장은 이번 18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에 대해 "이처럼 훌륭한 수상자를 발굴해 시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숨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불교문화의 창달과 진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제1회 불교교리경시대회 수상자 발표

대상에 차민성 이재선 서정원 수상



왼쪽부터 차민성, 이재선, 서정원 학생.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대상에 이재선(곡란중, 한마음선원), 차민성(동일초, 화계사 어린이회), 서정원(동대부고) 학생이 선정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주최한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수상자가 지난 9월 22일 발표됐다.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최소연(성포중, 한마음선원), 박리혜(행남초), 안소연(오남초, 봉선사), 임혁(광동중), 이경민(동대부속금산고), 장혜경(서울과학고) 학생 6명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에는 박지수(봉은사 파라미타) 학생 등 9명이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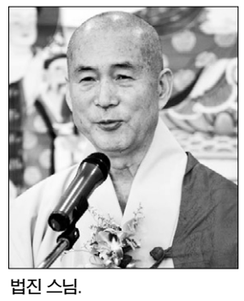
장려상은 김태우(민락초, 불광사) 학생 등 30명, 입상은 임민정(합천초) 학생 등 102명이다. 특별상에는 김지연(동대부여중), 이기소(진주기계공고), 김혜정(청담정보통신고), 김장협(화중초), 신지혜(해남중) 학생이 선정됐다. 또 최우수단체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동대부속여고가, 동국대 이사장상에는 청담중학교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단체상인 포교원장상에는 동대부속금산중, 불교신문사장상에는 보문중학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상에는 순천 금당절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대회에서는 지체장애인으로 응시한 홍현승(자운고, 화계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시상식은 9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

법진 스님, 태고종 서울 남부종무원장 취임



법진 스님.

태고종 강서, 양천, 관악, 금천 등 남부지역 7개구 130여 사찰을 관장하는 서울 남부종무원장으로 법진 스님이 취임했다.

법진 스님은 "22일 당선되신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해 오늘 출범하는 남부종무원 등 한국불교 태고종은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며 "종무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종도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다른 종무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1955년 9살의 나이로 동진 출가해 1958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7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해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78년 태고종 남허 스님께 입실한 바 있다.

스님의 종무원장 취임은 조계종에서 전종한 스님들의 대우개선과 종단사와 봉원사 문제 등이 얽힌 조계종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단초로도 평가받는다.

법진 스님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신도 그동안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의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종무원 취임에 화합을 우선 하라는 의미로 알고 애종심으로 포교활동 및 종도 신행생활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자인 인공 스님을 비롯해 각부 원장 스님, 동문수학인 조계종 불암사회주 일면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임야 · 임상도 전달

21일, 산림청 제공

국립공원 제도개선 및 사찰환경 보호, 사찰수림 보존 및 개발 등 불교계 과제사업의 필수자료인 사찰산림DB가 산림청으로부터 제공됐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9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국 25개 교구본사 소유의 산림 경계 및 수목 자원 등을 담은 '사찰산림 임야경계도'와 '임상도'를 전달했다.

이날 산림청이 제공한 자료에는 조계종 교구본사 소유 3만 헥타르 경계와 사찰림 수목류 및 수령, 자원분포 등이 담겨 조계종과 산림청이 2010년부터 진행하는 수목정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사찰림 유격조정, 산림자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노덕현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부산 한의사 협회 회장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가면서도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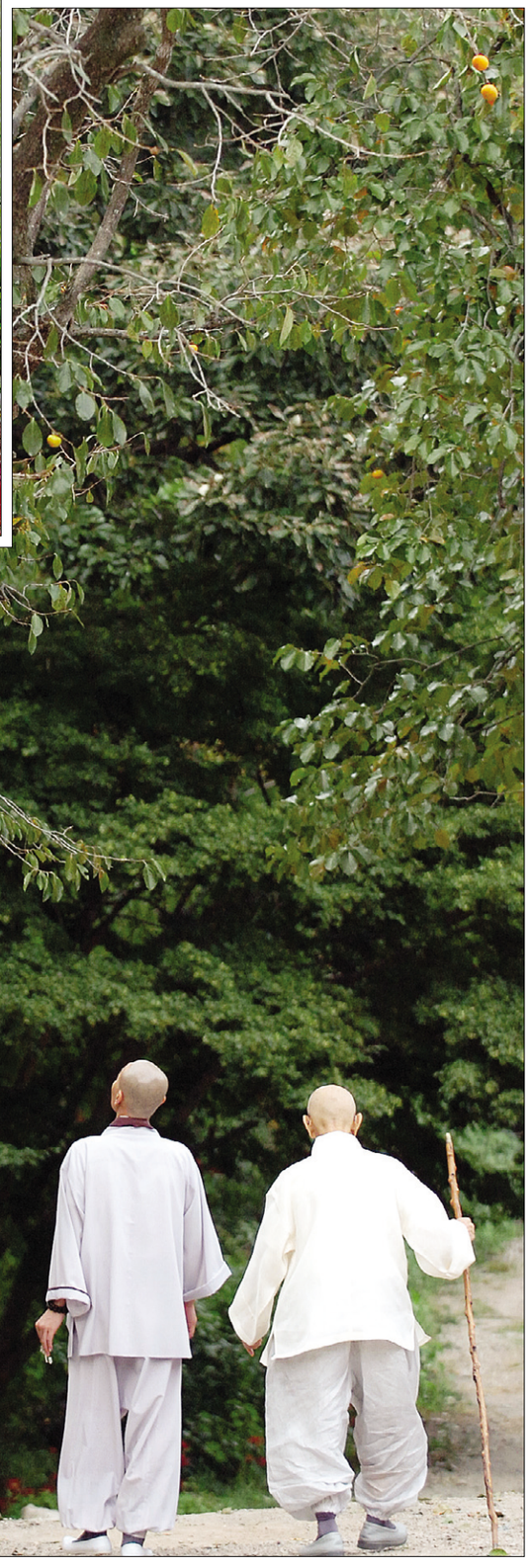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림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 2009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9월 24일 12시 종강
· 2009년 9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8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5일 12시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삼봉 (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붉은 부도밭
불갑사



붉디 붉은 꽃무릇 걸음 걸음 화두 드네



불갑사는…
창건시기가 분명하지 않아 384년(침류왕 원년)에 마라난타가 창건했다고도 하고, 백제 문주왕 때 행은이 창건했다고도 한다.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후반에 중창했으며, 고려 후기에 각진국사가 머무르면서 크게 중창했다. 정유재란을 겪은 이후 법령 스님이 중창했고 1634년에는 해령 스님이 중창했으나, 여러 차례 중창을 거치면서 절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다. 1938년에 설제 스님이 중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갑사로 가는 길은 온통 붉은 꽃무릇으로 요란하다.
붉은 꽃잎들이 조율을 마친 악기처럼 가을 햇살 속에 서있다. 꽃길 끝에 도량이 보인다.
인도 스님 마라난타존자가 창건한 불갑사다.

몇 해 전 겨울에 왔을 때 하얀 눈을 밟으며 마당을 걸었던 기억이 난다.
하얀 눈 위에 찍힌 큰스님의 발자국을 따라 염화실까지 걸었던 기억도 나고,
"이번 안거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온다"며 "빗자루 들랴, 화두 들랴 여느 때보다 바쁘다"고 말씀하셨던 큰스님 생각도 난다.

염화실 담장 너머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큰스님을 모시고 스님들이 후원으로 간다. 저녁 공양 시간이다.
큰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시자스님은 큰스님 지팡이랑 똑같이 걷는다.
선방을 지나고, 군데군데 꽃무릇을 지나고, 노랗게 고개 숙인 감나무를 지나고, 향냄새 가득한 법당을 지난다. 밥 냄새가 난다.

나오는 길에 부도밭이 보인다. 부도들 뒤로 꽃무릇이 피어있다.
저녁예불을 알리는 법고 소리가 들려오고, 길어지는 부도의 그림자 끝은 이내 붉게 물들어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1대학-1사찰' 결연 맺고 공동사업도

21일, 전법도량 · 대학생 불교연합회 부산지부 협력 조인식 가져

조계종 전법도량(의장 심산, 부산 홍법사 주지)이 침체된 대학생 불교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전법도량은 9월 21일 혜원정사 만불전에서 '전법도량-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류용선, 이하 대불련) 협력 조인식'을 갖고, 불법 홍포와 대학생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의장 심산 스님은 "우리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포교하느냐에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일인데 어린이는 동련, 청소년은 파라미타가 맡고 있지만, 대불련은 오직 동문회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정도였다"며 "전법도량과 대불련이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협력, 후원해 함께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1대학-1사찰' 조인으로 대불련 부산지부 소속 1개 대학교와 전법도량의 1개 사찰이 각각결연을 맺고, 대학생 불자들의 불법 홍포와 불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며, 상호협력 가능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개시켜 나가게 된다.



9월 21일 부산 혜원정사에서 열린 전법도량-대불련 부산지부 협력 조인식. (좌로부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류용선 대불련부산지부장, 전법도량 의장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이에 자매결연은 '부산대와 홍법사(주지 심산)' '부경대와 대광명사(주지 목종)' '동아대와 미타선원(주지 하림)' '동의대와 혜원정사(주지 원허)' '부산외국어대와 금천선원(총무 정운)' '동명대와 동명불원(주지 정산)' 등 근거리 중심으로 맺어졌다.

류용선(부경대3)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그간 침체된 대불련에 전법도량 스님들의 관심과 자비로, 더 많이 불법을 배우고 스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정말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1969년 창립 이후 1970~80년대에는 20여개 대학에서 2000여명에 이르는 불자 대학생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총 6개 대학에서 정확한 회원수를 추산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됐다. 홍상명 대불련 부산지부동문회장은 "우리 불교가 요즘의 대학생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변모해야한다"며 "이번 전법도량과의 협력 조인이 대불련 부산지부의 저변 확대와 재도약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개채불사 한걸음

21일 회향법회

지난 8월 29일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계획을 발표한 동명불원(주지 정산)이 이번에는 '사천왕상 개채불사'로 불교문화 중심도량으로 거듭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명불원은 9월 21일 오전 11시 대웅전 및 사천왕문 일대에서 '사천왕상 개채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약 6개월간 진행된 이번 개채불사는 오랜 세월 비와 바람, 햇볕 등으로 본래의 색을 잃었던 동방 지국천왕, 서방 광목천왕, 남방 증장천왕, 북방 다문천왕 등 사천왕상의 채색을 재정비했다.

주지 정산 스님은 "이번 개채 불사는 단순히 본래 색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강렬한 색감을 현대적인 색채로 바라보기 편안하게 재구성했다"며 "신도분들 모두가 이러한 사천왕상을 모시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눈높이 포교로 친근한 불교 전할 것"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 정각원장 화랑 스님

"9월 10일에 임명장을 받고, 보름 만에 취임식을 치르고, 또 원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파악까지 모두 하려니까 워낙 바빠서 정신이 없다가도, 학생들에게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돼 빙그레 웃곤 합니다."


화랑 스님.

9월 25일 신라 천년고도에 자리한 경주 동국대 정각원장으로 화랑 스님(김해 은하사 주지)이 취임했다. 어느 날 갑자기 정각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게 아니다. 약 10년 전부터 동국대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2학기 이수해야하는 필수과목 <자아와 명상>을 정각원에서 지도해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이지만 화랑 스님이 강의하는 이 과목과 불교는 당최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다.

"매 학기 설문조사를 하는데 스스로 불자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극히 드물고, 출석률이 낮은 학생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포교 효과를 거두는 것은 어렵지만, 비불자인 학생들이 매주 법당을 찾아와 스님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법문을 통해 불교의 좋은 점들을 듣게 되니까, 이게 바로 포교지요."

그래서 화랑 스님은 정각원장 임기동안 불교가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인 '취업' 때문에 종교를 등한시 하는 세태를 헤쳐갈 방편이기도 하다.

"돈과 도덕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취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돈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대학은 참사람을 기르는 곳으로 철학과 문화, 인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이고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새롭게 해줄 불교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님의 마음을 알리 없는 수업태도가 불량한 일부 학생들은 화랑 스님이 학점에서 만큼은 자비롭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아무리 시험성적이 훌륭해도 3번 이상 결석을 하면 좋은 학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화랑 스님 수업의 제1원칙이기 때문이다.

"정각원까지 찾아와 불법을 들어주는 모든 학생들에게 A+를 주고 싶지만, 자유로운 가운데 절제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니까요. 학생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자비롭고 좋은지 전하는 것. 그게 제가 이곳 정각원에 있는 이유 아닐까요?"

화랑 스님이 정각원정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닫혀있던 원장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학생들은 복도를 오가며 스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한가롭다면 차담을 나눌 수도 있다. 이제 화랑 스님은 '스님'이라는 무거운 근엄함을 벗고, 학생들 곁으로 친근하게 다가와 '진짜 불교'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박지원 기자

화랑 스님은 1974년 범어사로 출가해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하고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안양 용화사 유치원장, 범어사 포교 · 교무국장, 미국 시카고 불타사 주지, 대한불교신문 편집국장,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김해 은하사 주지, 동국대 선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던 중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불교 만나러 왔어요"

중국체험단 34인, 7박8일간수행문화 체험

오후 4시 30분 저녁공양을 1시간여 앞둔 가장 출출한 시간, 통도사 템플스테이전용관에서 중국 스님들의 발우공양법 예행연습이 한창이다.


중국 스님들이 한국식 발우공양을 하는 모습.

숙달된 조교의 시범과 함께 통도사 율원 진목 스님이 우리말로 설명하면 통역사는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중국어로 전달한다.

중국에서 온 달관 스님은 "발우공양법이 중국의 큰 사찰에서만 명맥을 이어올 뿐 대부분 간소화하고 있고, 이렇게 대중선방에서 모여 생활하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긴장한 기세가 역력했다. 공양을 마친 후 발우를 보자기에 싸는 방법은 배우지 않기로 했다. 한국의 스님들도 길게는 일주일씩 연습해야 터득할 수 있는 고난도 과정이라고 진목 스님이 설명하자, 긴장을 풀고 그제야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중국 수행체험단의 첫 한국식 발우공양이 끝났다.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모인 중국불교 수행체험단이 통도사에 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9월 18~25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제6차 중국불교 수행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방문한 중국 수행체험단은 중국 말사 주지급 스님 22명,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생 12명 등 34명이다.

18일 오후 6시 금강계단 참배를 시작으로 한국사찰의 의례 및 발우공양법, 한중불교 비교 토론 등 다채로운 한국불교 수행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박지원 기자

제70회 석암장학회

19일 장학금전달식

침체된 어린이포교를 이끌어갈 손소영 양(동국대 불교아동학과3)과 의술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권현범 군(동국대 한의학과3)등 불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이 전달됐다.

대한불교석암장학회(이사장 정련)는 제70회 장학금전달식을 9월 19일 오전 11시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봉행했다.

故석암 스님의 유훈을 계승해 1971년부터 불우한 가정형편에도 학업성적이 훌륭한 불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故 석암 스님 육성법문, 이사장 정련 스님의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명효 스님 외 학인3명, 박상준(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 전공) 외 재가학생 9명 등 동국대 재학생 14명이다.

박지원 기자

불법으로 바다 지킨다

울산해양경찰서 법당 개원, 오심 스님 위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 이하 해경)는 전용부두 내 법당을 개원하고, 오심 스님(울산 월봉사 주지)을 경승실장으로 위촉했다.


8월 23일 울산해양경찰서 법당 개원법회서 오심 스님(왼쪽에서 두번째), 김창권 해양경찰서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9월 23일 오후 2시 울산해양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당 개원법회에서 경승실장으로 위촉된 오심 스님은 "해양경찰 법우들의 신심을 일으키고 바른 불법을 전해,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력으로 울산 앞바다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원 법회는 경과보고, 김창권 서장에 감사패 전달, 경승 위촉패 전달, 통도사 주지 정수 스님 특별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법회에 참석한 500여 사부대중이 함께 함정 '1009함'에 승선해 해상 안전을 기원하고, 법당 앞에서 테이프 컷팅 등을 하며 개원을 축하했다.

향후 해경 법우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바다뱃길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직원, 전경 가정의 안전을 기원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3년 전 오심 스님을 경승으로 위촉해 해양경찰 법우들을 위한 법회를 마련해오던 중 법당 겸 경승실의 필요성을 느껴, 한달 여 준비해 경찰서 전용부두에 7평 규모의 법당을 마련하고, 법음 홍포의 첫발을 내 딛게 됐다.

박지원 기자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관음의 미소-大, 小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500년 역사의 향기 말하다

19~20일, 고창 선운사 제2회 선운문화제 개최

꽃무릇이 한창인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제2회 선운문화제가 성료됐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19~20일 '선운사 1500년, 그 역사의 향기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2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9월 20일 선운사에서 열린 '제1회 선운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 모습.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 문화제는 19일 보은염 이운 행사로 시작됐다.

보은염 이운행사는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선사가 생계가 어렵던 도솔산 인근 주민에게 소금과 한지 만드는 법, 숯 굽는 법 등을 가르친 은혜로 마을사람들이 검단 선사를 기려 1500년 동안 봄 가을마다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한 데서 유래했다.

가을 산사의 밤을 선율로 수놓은 산사음악회는 '선운사의 사계'를 주제로 열렸다. 3000여 대중이 운집한 산사음악회에서는 봄의 동백꽃과 여름의 녹차와 계곡, 가을의 꽃무릇, 겨울의 설경이 선율로 장엄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대중가수 이선희, 소리새, 김유성의 공연과 배우 오정혜의 판소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20일에는 '제1회 선운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가 열렸다. 경연대회에는 23개팀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청소년들의 장기를 유감없이 펼쳤으며 B-BOY 세계대회 챔피언 T.I.P 공연 등은 1000여 청소년들을 열광케 했다.

만세루에서는 <부풍향차보>에 소개된 전통차 시음과 동화 스님의 '한지로 피운 연화세계' 주제로 연꽃 문양과 달마대사 그림이 들어간 화초장, 한지등, 수납장 등 당장 일상생활에 사용이 가능한 작품들이 소개됐다.

또, 이날 한지공예전을 통해 얻어진 판매수익금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석전영호 대종사의 유묵전이 열려 각종 글씨와 서책과 친필편지 등이 전시됐다. 사천왕문 앞에서는 고창지역의 유기농산물과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고창우수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한편, 근대 한국불교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석전영호(映湖, 1870~1948) 대종사의 열반60주기를 맞아 '석전영호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도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본격적 도심포교 나선다"

광덕사 대웅전 낙성 및 본존불 점안법회

광주 남구지역 도심포교를 담당할 새로운 포교당이 세워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덕사(주지 우진)는 9월 22일 대웅전 낙성 및 본존불 점안법회를 열고 3여 년간의 이전 불사를 회향하고 본격적인 포교에 나섰다.


9월 22일 광주 광덕사 대웅전 낙성법회에서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행사에는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지장 스님(증심사 주지)을 비롯해 조영표 광주남구의회 의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선 스님은 법문에서 "도심 속에 큰 가람을 세운 대중에게 감사하다"며 "진정한 불사는 마음의 근본자리를 찾는 것이며, 수행자들은 그 과정에 자신을 이끌어줄 진정한 참 스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석가모니부처님은 우리에게 오신 큰 스승으로, 광덕사가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수행하는 좋은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우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심 속에서 포교와 수행을 하는 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광덕사의 역할에 대해서 "광주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광덕사 또한 불교문화와 체육을 접목하는 사찰로 발전해 다양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덕사는 이날 대웅전 낙성법회를 시작으로 기초교리와 초기경전 등을 배우는 불교학당, 불화 등 불교문화 강좌, 태극권, 요가, 명상 등 일반인들에게 큰 호응이 있는 체육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한편, 광덕사는 사찰건립이 드문 광주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지역으로 각광받는 진월동에 위치한다. 인근에 광주대, 송원대 등 많은 학교들이 있어 청소년 포교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광덕사는 대지 1200평 위에 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과 전통한옥 구조의 대웅전을 갖췄다. 건평 600평의 현대식 건물에는 설법전, 요사채, 종무소, 다실, 식당이 있으며 대웅전에는 이날 점안한 마애불이 봉안됐다. 또, 대웅전은 진월동에 위치한 옛 광덕사의 건물을 해체해 이전·복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고 고정관 행정실장

"청년불교 활발해야 지역신행 활기"

끝이 보이지 않는 김제 들녘이 황금빛 옷으로 갈아입을 즈음 모악산 아래 자리잡은 동국대 사대부속 금산중·고등학교 자비동산에서 고정관 행정실장을 만났다.

고정관 실장은 청년시절, 누가 불교에 귀의를 권유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속에서 끌리는 무언가를 따라 금산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금산사 청년회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인 청년회 활동을 시작했다.



고 실장은 신행활동의 대부분을 청년회서 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청년회활동에 모든 것을 쏟았다.

전북불교청년회가 호남지역 제일의 신행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고정관 실장이 큰 역할을 했다.

1995~1998년까지 제7·8대 대불청 전북지구 회장을 역임한 고정관 실장은 4년간의 재임기간동안 활동이 부진하거나 산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남원, 장수, 부안 등 전북 각 지역의 지회를 활성화시켰다. 지역별 조직을 재편하고 활성화를 위해 휴일이면 각 지역 청년회를 방문해 활동을 독려하고 침체된 지역에는 타 지역 지회활동의 노하우를 전수해 청년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힘썼다.

이런 노력 끝에 전북불청에 9개지회가 재창립되거나 조직재건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불청회장 재임 중에는 '현장중심의 행동하는 불청인'을 신조로 매년 여름과 겨울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또, 불교청년회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환경보호 운동을 겸한 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제17차 전국 불교청년대회를 금산사에서 개최해 불청인들 사이에 가장 모범적인 불청대회로 기억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고정관 실장은 늘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해 왔다. 금산사에서 개최되는 경로잔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무료경로식당 등의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종교편향 감시활동에도 나서 김제시청에서 열리는 타종교 조찬기도회를 청년회들과 함께 몸으로 막아내기도 했다.

전북지역 불교계에 헌신한 그의 공로는 1999년에는 불청대상을 수상하고 2000년에는 금산사 포교대상을 수상케 했다.

고 실장은 현재 종립학교인 동국대 사대부속 금산중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불교학생회 활동에 행정적 지원은 물론 물심양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청년불교가 활발해야 한국불교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지역활동가들을 결집해 전북지역 불교를 활성화시킬 조직을 구상 중 입니다."

전북 청소년불교가 답보상태에 머무는 지금, 어려운 포교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전북지역 불교계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다짐하는 고정관 실장의 얼굴에서 굳은 결의와 신심을 엿볼 수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전통의식 강좌

전통불교영산회 개최

광주전남지역의 영산작법 시연단체인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혜령)는 9월 20~26일 광주 율곡사에서 불교전통의식 강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30여 스님이 동참해 매일 8시간씩 초·중급별로 일반법회 상용의식, 천도의식, 영산작법 의식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혜령 스님은 "스님들이 불교의 전통의식을 배워 각 사찰과 포교현장에서 전통의식에 맞추어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불교의식은 하나의 수행방법이며, 포교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가한 선화 스님(서울 통영사)은 "강의에 임하는 강사스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어 고맙다. 평소 의식을 진행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는데, 많은 것을 보고 배워간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곱단이' 독거노인 돕는다

성효 스님, 25일 노인복지센터 200명분 전달

천연목욕용품 '곱단이'로 널리 알려진 성효스님(곡성 무각사 주지)이 9월 25일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에 목욕용품 200명분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대해노인복지센터장 무진 스님에게 후원품을 전달하는 성효 스님(외쪽).

한가위를 맞아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전달된 목욕용품은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재료로 제조돼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서 성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홀로 기거하는 어른들이 피부질환이 있고, 생활환경의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게 됐다"며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는 이 어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보은(報恩)의 마음으로 편안한 노후를 돌봐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해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 노인일자리 사업(학교교통정리, 아픈 노인 돌보기), 집 청소(방문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추억의 템플스테이 개최

10월 10~11일, 다양한 행사 및 산사음악회 열려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다녀갔던 1000여 대중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0월 10~11일 '추억의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제3회를 맞은 추억의 템플스테이는 전국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한 김제 지평선축제와 연계돼 역대 금산사 템플스테이 참가자 중 희망자들이 다시 모여 아름다운 산사의 추억을 되새기게 된다. 행사에는 풍물장터, 템플스테이 사진전, 전통 등 전시, 탁본 체험전과 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의 산사토크 '앉아봐라 꽃밭이다'와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무심 스님의 특별법문 '당신은 무엇인가'가 진행된다.

산사음악회도 열린다. 산사음악회에는 조상훈과 동남풍의 비나리 공연, 이소라의 판소리 공연, 유미경의 재즈 피아노 연주, 이창선의 퓨전국악, 전북도내 비보이팀 쏘울헌터스가 공연된다.

일감 스님은 "추억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다녀갔던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씩 모여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바쁘게 살았던 일상에서 조금만 여유를 갖고 자신을 돌아보면 주변에 새롭고 행복한 것이 가득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09' 일붕법왕 문도의 날 대축제

삼보에 귀의 하옵고!
일붕법왕 문도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아래와 같이 일붕법왕 문도의날을 기념하여 일붕조사전 기공식과 함께 일붕법왕 문도의 날 기념행사를 봉행하고저 하오니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0월 10일 (오전 11시 부터) ■ 장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법왕청
1부 - 일붕조사전 기공식 및 일붕법왕 일대기 출판기념회 / 2부 - 법요식 및 시상식, 가수초청 공연

※ 참고사항
1. 일붕법왕큰스님으로부터 건당 및 수계를 받으신 스님, 법사(문. 형제 및 손상좌 포함)님들께서는
이메일wbstf@yahoo.co.kr 또는 02)3216-3216으로 주소, 성명, 법명, 수계년도 등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왕청 제2담화정사에 건립 예정인 일붕 조사전에 문도님들의 이름과 법명을 동판에 새겨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2.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저서나 사진, 비디오테이프 및 큰스님과 인연이 있는 물품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저희 일붕법왕문도회 02)3417-1010으로 기증해 주시면 특수 제작하여 큰스님의 조사전에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 02)3217-3217
일 붕 법 왕 문 도 회 ☎ 02)3417-1010
우 110-846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76번지 귀빈빌딩 5층

스승의 가르침 이어 찬란에 찬란을 더하는 화엄성지

22 면면한 법맥이 뛰는 화엄사





동헌당 태현 대종사 26주기추모법회 모습과 부도 및 탑비 제막 장면.

동헌당 태현 대종사 원적 26년 만에 부도와 탑비 제막

화엄사 부도밭 3단 구조로 말끔하게 정비… 옛 부도와 근래 조성 부도 조화 이뤄

용성조사의 유훈 실현의지 후대로 전하는 기초 마련

2009년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지리산 화엄계곡에 범종이 울립니다. 긴 떨림으로 산을 에워싸는 종소리는 다섯 번 이어집니다. 행사를 알리는 범종소리입니다. 국보 제 67호로 지정된 각황전에는 전국에서 모인 스님들이 정연하게 좌정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헌당 태현 대종사 26주기 추모법회 및 사리탑비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선언에 맞춰 거문고와 대금이 장구 장단에 맞춰 청아한 가락을 토해냅니다. 추모법회를 시작하는 추모주악은 전각 안에 모인 사부대중을 더욱 진중하게 하고 바깥의 대중과 석등, 탑, 나무와 돌계단을 어루만집니다.

26년 전 초가을 화엄사 구층암에서 가사장삼을 수하고 문도들을 불러 모은 동헌당 태현 대종사는 "출가한 첫 마음을 잃지 말고 신심과 원행을 견지하면서 중생제도와 불법중흥을 위해 위법망구로 정진하라"고 부촉했습니다. 그리고 열반송을 읊었습니다.

80년 전 너는 누구이며
80년 후 나는 이 누구일까?
해는 서산에 지는데 동녘하늘에 달이 솟는구나.
낭산에 꽃은 빙긋이 웃고 산새는 노래하는구나.

그리고 26년, 가람도 사람도 풍습도 바뀐 지금, 화엄사에서 동헌당 태현 대종사를 기리고 부도밭에 부도와 탑비를 세우는 거룩한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회는 눈에 보이는 물상들은 세월을 따라 바뀌지만 법의 맥박은 바뀌지 않는 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장엄한 증명입니다.

일세의 선지식이고 민족의 선구자인 용성진종(龍城辰鐘 1864~1940) 조사의 법을 이은 태현 대종사의 법은 도광 도원 도문 도만 도철 도오 스님 등 40여명의 승속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26년이라는 시간의 다리를 넘어 부도와 탑비를 조성함으로 면면하게 살아 있는 법의 당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맥(法脈)은 한 순간도 멈춤이 없습니다. 구류중생의 맥박은 인연을 따라 생멸할지라도 법맥은 유정과 무정을 초월하고 삼천대천세계의 안과 밖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행사는 물이 흐르듯 푸른 잎에 단풍이 들듯 진행됩니다. 태현 대종사의 제자인 도철 스님이 은사의 행장과 이날 법회와 탑비의 제막식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소개합니다. 죽비에 맞춰 대중들이 입정에 들고 태현 대종사의 육성이 각황전을 가득 채웁니다.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 도문 스님이 문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범어사 전계사인 흥교 스님은 태현 대종사를 기리는 추모사를 올립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님의 법어는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합니다. 원로의장 종산 스님의 법어는 게송으로 마무리 되는데 태현 대종사의 생애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사나운 마구니 어지럽게 행할 때
(日帝暴魔亂行時)
남악 깊은 곳에 한 분의 도인이 계셨으니
(南嶽深處有一仙)
백운을 짝할 동헌당 태현 조사가 그 분이시라
(白雲道伴東軒堂)
법의 깃대 세우시니 온 산중이 보배롭구나
(巍巍法撞盡山寶)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의 축사에 이어 법창(法唱)이 공양 됩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가곡 이수자인 한자이 명창이 공양 올리는 법창은 태현 대종사의 오도송과 열반송에 가락을 얹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헌향과 헌화. 우선 태현 대종사의 문도들이 법당 좌측에 마련된 영단에 향을 사뢰 올립니다. 도문 도철 도업 도림 도오 도흥 도만 도실 도민 도열 스님 등이 향과 삼배를 올립니다. 이어 종단의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인 지혜 대종사 부의장 밀운 대종사, 정무 혜승 명선 대종사 등이 차례로 향을 사뢰 올립니다. 종단의 대덕들과 손상좌 재가 제자들, 일본에서 먼 걸음을 달려 온 묘법사 주지 이마니까 게이꼬 스님과 재가자 두 사람도 향과 꽃을 올립니다. 법회의 마지막 순서는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 부도와 탑비를 제작한 이재순(중요무형문화재 120호 석조각장) 선생과 탑비의 글씨를 쓴 서예가 산민 이용선생이 문도대표 도문 스님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추모법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동참 대중들은 부도와 탑비의 제막을 위해 부도밭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화엄사 부도밭은 일주문을 지나 절로 오르는 길 왼쪽에 있습니다. 훤하게 터를 다지고 말끔하게 정비해 누구나 절에 오르는 길에는 부도밭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도밭은 3단 구조인데 맨 오른쪽은 옛 부도들이고 중간은 동헌당 태현 대종사의 부도가 그 왼쪽은 태현 대종사의 사형인 도광 대종사의 부도와 근래 입적한 대덕들의 부도가 자리했습니다.

원로와 문도들이 흰 천에 덮인 부도와 탑비 앞에 섰습니다. 오색의 줄을 잡아당기니 웅장하고 화려한 부도와 탑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반야심경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원로와 문도들을 비롯한 대중들이 향을 사뢰 올리고 절을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그러나 엄숙하고 환희로운 시간, 그렇게 제막식이 마무리되고 대중들은 천천히 절로 돌아 갑니다.

동헌당 태현 대종사의 부도는 석종형입니다. 4m 높이의 이 석종은 지공대사의 석종과 연곡사 부도의 보주 부분을 응용해 둘레는 원만하고 상단은 화려한 모양입니다. 사각 지대석에 올려진 팔각의 연꽃 받침이 받치고 있는 석종은 높이에 비해 폭이 넓은 인상이어서 풍성합니다. 그 위의 보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극락조 4마리를 사각에 조각한 보륜입니다. 그래서 부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풍성함과 단정함 그리고 화려함을 적절히 갖춘 덕상입니다.

탑비는 웅장한 귀부와 오석의 탑신 화려한 이수가 조화를 이룬 걸작입니다. 높이 5m의 탑비는 힘차게 고개를 들어 올린 귀부가 주는 위용이 탑신에 적힌 태현 대종사의 생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표현한 이수 역시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당당하고 근엄한 모습입니다. 이수에 전액의 양식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태현 대종사의 비문은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이 찬했습니다. 앞면의 비문은 '종설겸통대비원력광도중생동헌당태현대선사비명(宗說兼通 大悲願力 廣度衆生 東軒堂 太玄大禪師 碑銘)'으로 시작됩니다. 선과 교에 통달하고 큰 원력으로 널리 중생을 구제하신 태현 대종사의 덕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문의 내용은 왼쪽 면으로도 이어지고 뒷면에는 비명이 이어집니다. 비명은 태현 대종사의 일생을 힘차고 아름다운 운율로 찬탄하고 그 법과 덕행이 현전해 중생구제 원력이 영원하길 비는 내용입니다. 태현 대종사는 1896년 6월 14일 충남 대덕군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여의 서당에서 유교의 전적들을 공부 했는데 그 성취가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청나라 순치황제의 출가시를 읽다가 '백년 3만 6천일이 승가의 한나절에 미치지 못 한다'는 대목에서 발심해 출가했습니다.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용성진종 스님을 은사로 불문에 득도한 태현 대종사는 화두 참구와 경학 연찬 그리고 은사의 독립운동과 역경불사 전국 제방 고찰의 주지 소임 등에 소홀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태현 대종사의 오도에 얽힌 일화가 재미있습니다. 1934년 8월 하동 칠불암 운상선원에서 장좌불와 용맹정진을 하던 중 임제선사가 나타나 "그대는 그다지도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앉아 있느냐"는 질책과 벽력같은 할을 하는 순간 활연대오 해 게송을 지어 스승께 바쳤다고 합니다.

지리산은 말이 없으니
(無言智異山)
칠불여래 또한 설함이 없네
(諱說亦七佛)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도 없으니
(無問是甚麼)
무심이라야 백운과 함께 하리라
(無心親白雲)

게송을 본 스승은 "네가 그러할지니 나 역시 드러하다"며 '동헌(東軒)'이라는 당호를 전하며 인가했던 것입니다. 이후 태현 대종사는 스승을 모시고 보임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에게 중생계의 시절인연은 버릴 수 없는 현실이어서 스승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지들이 등을 돌리고 일제는 창씨개명을 종용하는 등 어수선한 세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승은 '유훈10사목'을 부촉하고 입적했습니다. 홀로 된 제자는 스승의 지시대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이 돼 귀국해 수행과 불사에 진력했습니다. 세수 88세 법랍 66세로 이승인연을 마감하는 날까지 일마다 지극해 후학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먼저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간세상의 꽃으로 필 수 있는 것은 한 순간도 흐트러지거나 멈추지 않고 맥박이 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법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면면하고 역대 조사들의 활활발발한 '할'과 '방'이 유유한 것도 선과 교를 초월한 맥박의 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화엄성지에 근세의 선지식 용성진종조사의 유훈이 태현 대종사와 그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의 제자들로 번창하며 이어져 만중생의 복전을 이루는 까닭도 법맥의 영속(永續)에 있음을 알게 된 날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2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1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1월 5일 매주 (목)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중국 육조사 (육조선원) 지구본원 선원장 모집

중국 광동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육조선원)에서는
중국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대사에 이르는 선불교 사상과 정통조계선풍의 법맥을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님과 청정수행도량인 육조선원(분원, 명상센타)를
운영하실 스님 및 재가불자를 모집합니다.

◈ 자 격 :
★선 원 장 : 학력 및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로 자비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분으로 수행도장 여건을 갖추신 분
★문 화 원 장 :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정신수행에 관심있는 스님, 의사, 약사, 교사출신이나 일정한 수행 경력이 있는 분
◈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사본1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 연 락 처 :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소재)
TEL : 033)761-7008 033)761-2556
FAX : 033)761-3200 HP 011-285-6800
◈ 서울 문 화 원 : TEL : 02)766-6800 02)720-6363
FAX : 02)720-6340 HP 010-4176-5623
◈ 경기 문 화 원 : TEL : 031)574-1108
◈ 부산 육조선원 : TEL : 051)403-1375

※ 본 중국육조사 한국본찰 용화사 방장 석 연화 스님은 한국불교의 암담한 현실과 세계불교화에 뜻을 두고 중국 숭산 소림사 제자로 득도 수계 후 수행 중 지난 2008년10월11일 중국 광동성 육조사 (대원 방장)와 한.중 불교 선 문화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발을 전수 받았으며, 양국 사찰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 2008년 12월28일 중국에서 천 년 만에 재현된 육조제를 한국에 유치 봉행위원장으로, 2009년 5월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회 육조제를 봉행하였고 5월24일 불교 TV방송 "열린마당" 프로에 육조사 대원방장님과함께 특별출연 한 • 중선불교문화와 양국불교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6월 5일에는 다시 육조사를 방문 육조사 한국 본찰용화사 방장으로 임명 받았고 한국 육조 법맥의 수법 및 전권대표로 중국 육조사 전법중심인 육조선학원원장에 추가 임명 되었으며 지난 9월14일에는 육조사 대원방장님의 초청으로 중국 호남성 홍강구 선 불교문화 축제에 참가 대흥사 옥관음불점안 법회에 증명법사로동참하여 9월 17일에는 육조사 혜능대사 성상이 모셔진 육조전 에서 거행된 전법 수계식에서 육조사 한국 제자로 수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종도 및 불자여러분께 알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 2008가합97398 징계처분무효 등 확인
원 고 1. 박오복(법명: 지성)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 2층 201호
2. 이성복(법명: 혜안)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544
3. 정봉수(법명: 법상)
창원시 도계동 241-1
4. 유종표(법명: 원봉)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 2
5. 이규열(법명: 현우)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3524-1
6. 정창수(법명: 송원)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 2
7. 전길원(법명: 법만)
서울 중랑구 중화동 274-63
8. 박해언(법명: 청래)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 13-9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명 담당변호사 조영하

피 고 대한불교 법화종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1-73
대표자 총무원자 김용대(법명: 혜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9. 4. 29
판결선고 2009. 5. 27

주 문
1. 피고가 2008. 9.10. 원고 박오복, 이성복, 정봉수에 대하여 한 체탈도첩의 각 징계처분, 원고 유종표, 이규열, 정창수, 전길원, 박해언에 대하여 한 제적 및 종권박탈의 각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4, 내지 16,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4 내지 8, 10, 17, 24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승려들이고, 소의 김용대는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 2005. 4. 20. 개최된 피고 종단의 제 68차 임시중앙종회를 통해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승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종단의 일부 승려들은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이하 '정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정화추진위원회 명의로 2008. 7. 29.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1.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스님들은 총무원장 혜륜(김용대)스님이 재직하며 저질로온 부정부패의 종무행정과 패륜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총무원장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스님들은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총회가 엄연히 직분을 다하여 부정부패의 종무행정과 총무원장의 패륜적 행위를 감시감독하여 작금의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그에 방관하였고 오히려 총무원장의 그 같은 행위에 야합하는 몇몇의 중앙총회의원까지 있어 정화추진위원회 스님들과 모든 종도들은 더 이상 중앙종회를 믿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종회는 혜륜(김용대)총무원장 재직시 시행해온 입법, 예산, 결산, 감사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 중앙종회는 종도를 대표한 기구임에도 아직까지 한번도 종회회의 내용과 입법내용을 종도에게 고지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중앙종회가 그 임기 중에 행하여 온 모든 것을 2008. 8. 15.까지 공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 1,2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대책위원회 스님들은 그 책임을 물을 확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다. 이외에도 정화추진위원회는 2008. 8. 7 각 사암 주지 앞으로 총무원장 및 임직원들의 부당부정행위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는가 하면, 2008. 8. 20 잡지인 현대불교에 총무원장 이하 임직원들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총무원장은 몇 임직원과 결탁하여 종도들이 피땀으로 쌓아온 사암을 소위 종찰이란 명목으로 공갈협박하고 또는 갈취하여 그들만의 배 불리는데 현안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벌, 출가사찰의 허위, 속세법에 의한 벌금형, 종로가 구속되는 폭행사건, 비구니와의 부적절한 관계, 감찰교구의 집단탈종, 교헌사, 대방사, 금불사, 안정사, 흥국사 그 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현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 피고 종단의 총무원 감찰부장은 원고 박오복, 이성복, 유종표, 이규열, 전길원에 대하여 2008. 8. 8.부터 8008. 8. 28. 까지의 기간 동안 세차례에 걸쳐 2008. 7.29.자 결의문 발표와 관련하여 총무원에 등원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종단은 2008. 8. 11. 임시중앙총회를 열어 종헌 제90조를 아래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하였다.
바. 피고 종단은 2008. 9. 6. 개최된 총무원임원회의에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박오복, 이성복, 정봉수에 대하여는 체탈도첩의, 원고 유종표, 이규열, 정창수, 전길원, 박해언에 대하여 제적 및 종권박탈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8. 9. 10. 원고들에게 위 징계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징계자는 본종의 종헌, 종법에 있는 종단 내부적 부당함이나 이의를 본종 중앙종회 또는 총무원 각 기구에 청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해종행위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이유로 본 종단 총무원 감찰부로부터 3차례 등원요청을 받고도 계속 불응하면서, 종단의 법통과 안정을 파괴는 물론이고 종단의 종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다른 승려의 명의까지 도용하여 종단에서 알지 못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를 불법으로 구성하여 2008. 7. 29. 확인된바와 같이 본종의 총무원장, 총무원 임원 그리고 중앙종회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유인물을 전국 사찰에 우편으로 유포시키고, 또한 신문에 광고하여 전국 각 사찰에 유포함으로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하였음

사. **실제로 총무원장 김용대는 ① 1999. 11.경 피고 종단의 이사직에 입후보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한양대학교 기계과 3년 중퇴' 및 '통도사 백련사 입산'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②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 청룡암이 피고 종단에 증여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단에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단에 등록된 사찰에 대한 주지임명권을 근거로 소의 오명이를 협박하여 30,000,000원을 갈취하고, 화봉사의 소유권이 피고 종단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소의 최소순으로부터 30,500,000원을 사취하고, 오명이가 위와 같은 갈취사실을 형사고소하려 하자 오명이를 협박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2호, 김용대가 부산지방법원 2005노3489호로 항소 및 대법원 2006도6681호로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받은 바 있으며, ③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이던 2003. 3. 10.경 피고 종단 소속의 비구니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④ 총무원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소의 위술환이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가 아니라 '교헌사'라는 명의로 교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술환을 주지에서 해임시키고 소의 백정현을 교헌사의 주지로 임명하여 등기명의를 변경하였는데, 후에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해임처분이 징계사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3176판결, 이후 피고 종단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22223호로 항소 및 대법원 2009다 4732호로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판정된 바 있으며 ⑤ 금불사 소유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2차례나 금불사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금불사 소유의 불당과 주택 및 그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바 있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종단의 종헌 및 종법은 다음과 같다.

[종 헌]
<총치 제 7장 총무원>
제39조 3. 총무원장은 종헌과 종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사찰주지와 종단직원 및 임원을 임명위촉하고 그 취임을 인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4. 총무원장은 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려에게 도첩을 수여하고 승려 및 신도에 대하여 포상, 징계, 사면 또는 특권을 명할 수 있다.
<총칙 제14장 상벌위원회>
제 73조 상벌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1.원로원 추천위원 3인
2. 총무원장 추천위원 2인
3. 포교원장 추천위원 2인
4. 당연직: 총무원장, 포교원장
제 74조 상벌위원회는 상벌위가 부의한 승려 및 신도(창건주 포함) 의 상벌사항을 심의하고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 실행하게 한다
제75조 상벌위원회는 수시 총무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총칙 제17장 상벌>
제 88조 본종 승려의 선행과 비행에 대한 포상징계와 경감면사 및 복권 등은 상벌위원회를 경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단, 임명권자는 상벌위원회에 부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시는 당해 원의에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제90조 징계는 다음 방법으로 행한다
①체탈도첩
승적을 소제하고 도첩 및 승려증을 회수한다. 체탈도첩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복권이나 재득도할 수 없다.
②제적, 종권박탈
본종 승려의 작격을 상실하여, 승적에서 제적시킨다. 제적, 종권박탈을 당한 자는 종단의 모든 종무직 및 승니의 분한이 자동상실된다.
③종권정지
가. 징계 집행기간 중 일체의 종단 종무직 및 주지에 취임하지 못한다.
나. 기한은 최대 1개월에서 최고 5년까지로 한다.
다. 종권정지 징계를 당하면 기간 중 모든 종단 종무직 및 승니의 분한이 자동상실된다.
④법계수락
법계원부를 소제하고 법계증서를 회수한다.
⑤면직
종단 종무직은 물론 주지직도 자동상실한다.
⑥법계강급
1급 또는 2급 이상의 법계를 강급한다
⑦휴직
징계 집행기간 중 종단의 일체의 종무직 및 주지직이 정지된다. 기간은 최하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로 한다.
⑧견책 및 문서견책
구두 및 문서로써 비행내용을 경고한다.

징계적용
1. 체탈도첩, 제적 및 종권박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체탈도첩 또는 제적, 종권박탈 처분의 징계에 처한다.
나. 종정 교시를 위배한 자
다. 탈종, 개종도모 및 야합하여 파당을 형성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파괴하여 반종행위를 한 자
라. 종단 내부적으로 청원 및 시정 절차를 전혀 구하지 않고, 종단법통과 안정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여 명예훼손 및 사직당국 또는 법원에 민형사간 제청 및 도모한 자.
제 91조 선행, 비행의 종류의 포상, 징계처분의 경중과 또는 경감, 면사, 복권 등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총무원법]
<제3장 원의>
제5조 다음의 사항은 원의를 거쳐 처리한다.
5. 종헌 및 종법에 의하여 종무직원의 임명에 관한 일
7. 종무직원의 상전 및 징계에 관한 일

[종무직원법]
<제1장 총칙>
제2조 총무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종회 또는 기타회의를 통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 선임직원
2, 각극기관장의 내신추천 또는 제청을 받아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리
3.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직원
4. 전 각호 이외에 종헌종법 또는 기타 법규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임명한 직원
<제4장 복무>
제 14조 1. 종무직원으로서 아래의 각호에 해당 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6개월 이상 있을 때
나. 종단의 화합을 파괴한 행동으로 반종행위를 하였을 때
다. 직무상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때
라. 종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때
마.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전항 제2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면직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제청에 의한 종무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5장 상벌 및 징계>
제 16조 종무직원의 징계는 종헌 제 88조에 의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상벌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나아가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어떠한 해종행위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실체상 징계사유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징계처분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종헌에는 승려에 대한 징계는 상벌위원회를 경하여 임명권자가 행하되, 다만 임명권자가 상벌위원회에 부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원의에서 심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제88조)되어 있는데, 피고가 상벌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은 채 총무원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
앞서 본 종헌, 종법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종단에는 총무원, 포교원, 원로원이 있고, 총무원과 포교원에는 각 원의 임원들로 구성된 원의가 있으며 (총무원법 제6조, 포교원법 제5조), 총무원장과 포교원장에게는 위 각 원의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종헌 제 37, 44조, 총무원법 제7 내지 9조, 포교원법 제7,8조), ② 종무직원법에 의하면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직원이나 종헌종법 또는 기타 법규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임명한 직원은 종무직원이라고 규정(종무직원법 제2조, 제3, 4호)되어 있으며, ③총무원법에는 종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일은 총무원의 원의의 처리사항이라고 규정(총무원법 제6조 제7호)되어 있고, 종무직원법에는 종무직원의 징계는 종헌 제88조에 의한다고 규정(종무직원법 제16조)되어 있는 한편, 포교원법에는 포교원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④ 또한 종무직원법에는 임명권자가 종무직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종무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되, 그 중 특정한 사유로 면직시킬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면직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종무직원법 제14조)되어 있다.
이와같은 종헌종법의 전체 규정체제에 총무원 원의와 상벌위원회의 구성원, 피고 종단의 승려 및 신도 중 종무직원인 자와 아닌 자의 역할과 그 지위 등을 고려하면, 종헌 제 88조는 상벌위원회가 승려 및 신도에 대한 상벌사항을 심의하되, 총무원이나 포교원의 직원을 포함한 종무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무원장이나 포교원장 등 임명권자가 상벌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총무원 원의에서 그의 상벌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종무직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종헌 제88조 본문에 따라 반드시 상벌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하는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상벌위원회 경유 없이 총무원 원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채웅
판사 이지혜
판사 한지형

정본입니다.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이 분

관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정화 추진 위원회 일동

대구 달서구 유천동 120-1 화성파크리젠시 103동 201호 선불사 / 전화번호 053)643-4771, 팩스 053)643-4772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전국 사암 스님들께서는 현 총무원장에게 불이익을 받고 계시거나 받은분은 〈대한불교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불로 옷을 태워도 더러움은 사라지지 않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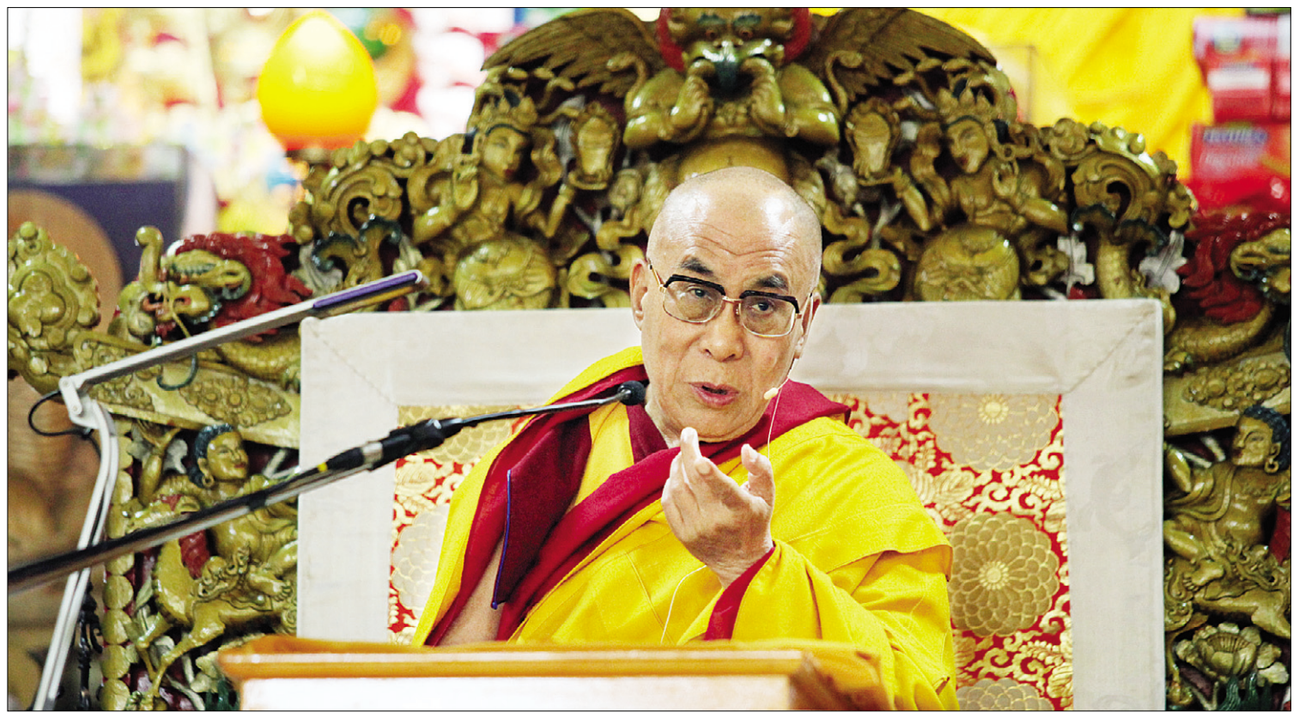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달라이 라마 특별법회

한국인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특별법회가 9월 15~17일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에서 봉행됐다. 이번 법회에는 한국인을 비롯한 대만, 유럽 등에서 온 3500여 불자들이 동참, 예불을 시작으로 〈반야심경〉을 봉독한 후 하루 두 차례씩 3일간 달라이 라마의 법문을 경청했다.

달라이 라마와의 인연을 9년간 이어오고 있는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은 법회를 열며 "이곳에는 수행하는 분들이 많다. 나 스스로가 재발심의 계기가 되고 많은 수행하시는 분들과 존자님을 뵈면서 그분을 통해 내 수행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다. 참석하신 신도님들이 바른 법에 들어서 모두가 번뇌를 버리고 실제 이익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인 불자들을 위해 〈입보리행론〉 〈보리도등론〉 등을 설법해 온 달라이 라마는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대다수의 불자를 감안해 기초적인 불교 지식과 함께 대승의 진정한 보리심을 발현하는 용수 보살의 저서 〈보리심석(菩提心釋)〉을 설했다. 달라이 라마는 보리심을 내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이유를 불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

선지식을 찾아서 — 달라이 라마



부처님 초전법륜(初轉法輪)의 해설서인 용수보살의 저서 〈보리심석〉은 본래 인간의 마음은 청정하며 밀교와 상통하는 것으로서 인간 마음의 허물을 없애는 것을 관건으로 합니다. 특히 가장 미세한 의식 상태를 현현시키는 것이 밀교의 수행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설하고 듣는데 있어서 근기(根機)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법자와 법을 듣는 이 모두 절실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을 유지하고 받들겠다는 마음으로 법을 설하고 제자 역시 신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멸성제(滅聖諦) 즉, 번뇌의 허물에서 벗어난 열반을 이루기 위해 불교 수행을 합니다. 비폭력으로 선취에 들 수 있지만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만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명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하며 일어나는 지혜에는 사해(思解)에 의해 일어나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문해(聞解)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습해서 일어나는 지혜를 수해(修解)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성(空性)을 사유함에 있어서 확신을 스스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많이 듣고 공부하는 문(聞)을 시작으로 사수(思修)의 과정은 반드시 인과의 관계로 성립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이 자리에서 법을 듣기 위해 모인 동기를 바로 세우십시오.

모든 고통의 근본은 번뇌이고 그로 인해 아집(我執)이 생깁니다. 나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꿈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면 우리는 아견의 반대되는 생각인 무아(無我)와 아집의 반대된 생각인 보리심(菩提心)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룬 것이 용수 보살의 〈보리심석〉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무아의 지혜를 증장시키고 이타심을 키워 나간다면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지속적인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행복은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보리심석〉은 무아의 지견을 이야기 합니다. 부처님의 경장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오온(五蘊: 생멸 변화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 즉, 色受想行識)에 의지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무아(人無我)입니다. 경량부에서 이야기하는 인무아는 몸과 마음을 좌지우지 하는 주체로서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아(我)'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에서는 인무아를 향유하는 존재자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점차적으로 수행하면 '아'의 집착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식학파와 중관에 있어 인무아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법무아(法無我)입니다. 아의 집착을 없앨 때는 인무아이지만 반대로 향유하는 주체 대상이 아직 남아있음으로 법아의 집착은 끊어집니다. 물론 인무아를 수행했을 때 법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인식하는 대상과 주체는 상호 의존적으로 안립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自性)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은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 이름과 달리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언어 또한 무자성(無自性)인 것입니다.

마음은 환(幻: 환상)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眼識)은 안근(眼根)과 대상 경계가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실체인양 느껴지지만 실상은 이것이라고 규명하려 할 때 결코 실체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롯한 모든 제법은 상호의존에 의해 존재하니 본래 자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체의 희론이 적멸한 무분별의 지혜가 생기기 이전에는 대상이 마치 진실인양 여겨집니다.

어떤 이에게 분별이 일어난다면 공(空)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승의보리심(勝義菩提心: 수승한 법을 취해서 닦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지해서 공을 이름붙인 것뿐이지 공 또한 실재하지 않습니다. 보리라는 말은 '희론의 적멸'을 의미합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허물이 벗겨져 본래가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하는 의식 또한 적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심으로 설법하고 수행해야… 번뇌없는 마음은 보물

"이타심으로 중생 이익 구하고 중생 향한 대자비심 내라"

보리(菩提)란 성품이 없고 생함이 없으며 존재한 적이 없어 허공과 같습니다. 공성을 깨달은 승의의 보리심은 분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음의 정수에 머무시는 부처님은 언제나 공이 허공과 닮았음을 아십니다. 붓다라는 말 속에도 '청정하다' '그치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착의 근거가 모두 적멸한 상태입니다. 희론의 적멸이 바로 공성(空性)입니다. 이런 공성을 깨달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대치합니다. 반야경에서 '제법이 무자성'이라는 궁극의 실상을 말씀합니다. 선(善), 불선(不善)이란 분별의 흐름을 깨 것이 공입니다. 마음에 의식의 대상이 없는 머무름은 허공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집착하는 것은 모두 배제돼야 합니다. 공의 사자후에 모든 실유론자(實有論者)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타력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과물이 발생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초전법륜 이후 부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체종지를 이루고, 이를 위해 승의보리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자성은 제법의 법성입니다. 사탕의 달콤함과 불의 뜨거움과 같이 모든 법의 본성을 공으로 인정합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 보살계법회 3일째. 9월 15일부터 이어온 법회의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남걀사원에 함께한 3500여 내외국인 불자들이 합장하고 〈반야심경〉을 봉독 후 달라이 라마의 법문이 이어졌다. 어떻게 진정한 보리심의 싹을 띄우고 가꿔야 궁극의 열반에 도달하는가? 지혜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티베트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자.

보리심의 보리라는 말은 티베트어로 '장춥'입니다. '장'은 허물을 모두 정화해 청정한 상태입니다. '춥'은 대상을 모두 알고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허물이 정화돼 깨끗해지는 근간은 '장'이 2가지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고 우연한 객진(客塵)을 대치법으로 청정해진 객진청정(客塵淸淨)의 관건은 바로 공성입니다. 공성은 궁극의 실상을 의미합니다. 공성을 깨닫지 못하면 번뇌에 휩쓸려 끊임없는 고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의 실상인 공성에 밝지 못하면 계속 윤회를 하는 것이고, 궁극의 실상을 밝히면 윤회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은 계속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성청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진을 대치로 다스려서 객진청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공에 대한 지견을 거듭 거듭 사유한다면 열반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법이 자성청정(自性淸淨)인데 이것이 국한된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객진청정과 자성청정은 생명체에 국한된 의식을 지닌 존재에게 한정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속 식(識)이라는 것은 대상을 요량하고 인지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지한데 무명의 반대인 실상(實相)을 확연히 요달할 때 본래부터 우리가 자성광명을 지니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수 보살의 저서 〈법성계찬탄〉에는 "윤회의 인(因)을 소멸한 것이 열반이다. 법신 또한 그것이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업을 쌓고 윤회를 하게 됨을 말합니다. 윤회하게 하는 번뇌의 뿌리인 무명에 물든 의식 상태입니다. 그렇게 윤회의 바탕이 되는 의식 상태에서 허물이 대치법으로 정화되면 열반입니다. 실제를 바탕으로 하는 방편으로 보리심이 뒷받침 됐을 때 번뇌의 습기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유로서 용수 보살은 "불로 옷을 태워도 더러움은 사라지지 않네. 마음의 객진을 대치법으로 청정히 해도 근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합니다. 마음의 허물들을 대치법으로 썼을 때 대상을 요량하고 광명의 자성을 가진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닌 또다른 특성은 물질적으로 바깥의 육체를 단련했을 때의 특징과 달리, 마음에 습(習)을 들였을 때 습이 견고해지고 무궁무진하게 증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복장용 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보리심 갖춰야 장애 없어

장될 수 있는 것이 내면의 마음이 지닌 공적(空寂)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의 일체 종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족하지만 많은 허물이 있는 의식 상태가 향상 돼 궁극의 성불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촙'은 객진이 없어 일체의 대상을 알아차리고 요량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대상을 요별하고 인지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는 대상을 인식하지만 현재 마음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모든 대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소지(所知) 즉 일체 대상을 알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것은 소지장(所知障)의 일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명을 없앤다면 우리에게 무시이래로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공덕들은 기존에 있는 것이기에 조건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닝마의 <마하무드라>에서는 '본래 갖추었으니 모두 부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장촙'이라는 보리심은 존재 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함입니다. 일체 종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실질적으로 소지장을 없애는 대치법이 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비로소 공성이 소지장을 없애게 됩니다.

보리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큰 이익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성의 지혜가 소지장을 끊어 일체 종지를 끊는 대치법이 될 때 진정한 성불로 가는 궁극의 원인이 됩니다. 출리심(出離心)을 내어 단순히 해탈을 원한다면 번뇌장(煩惱障)을 베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리심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지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공성의 지혜검은 소지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승의보리심과 진제보리심(眞諦菩提心)은 반드시 병행 돼야 합니다. 공성의 지혜를 수행할수록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견고해집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일체 중생의 구제를 원하는 보리심에 공성의 지혜는 힘이 돼 증장시킴으로써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의 방편은 쌍수(雙修)가 돼 병행돼야 합니다.

백조가 하늘을 날려면 두 날개를 펼쳐야 하듯 보살이 부처가 되려면 보리심과 스승의 힘과 공성을 깨우친 지혜의 날개를 펼쳐 선한 공덕의 발원으로 공덕을 성취합니다. 월칭 보살은 두 가지의 장애인 번뇌장과 소지장을 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샨티데바는 <입행론>에서 "보리심의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자들이 보리심이 있다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이를 아는 자 어찌 나태함에 빠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용수 보살의 <보리심석>에서 중관은 제법이 무자성임을 인정합니다.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해서 생겨난 것으로 의지해서 가설한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들이 항시 존재합니다. 12연기 가운데 안팎을 나누어서 대상을 이야기 합니다. 내면의 연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명에서 비롯한 노사(老死)까지의 연기는 조건에 의한 것으로 모두가 꿈과 같습니다. 원인과 성품 그리고 결과물은 모두가 무자성입니다.

샨티데바의 <입행론>에는 속제보리심(俗諦菩提心)이 자세히 규명돼 있습니다. 부처님 경에 보리심의 가르침이 가장 광범위 하게 나온 것이 <화엄경>입니다. 티베트에서는 <화엄경>이 6부 입니다만, 중국에는 80부가 있습니다. 티베트불교가 분발해야할 부분입니다.

보살은 대보리심의 마음을 일깨워서 자유롭지 못한 중생을 자유로 안내해야 합니다. '제법이 무아'이니 보리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을 구제해야 합니다. 유정(有情)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지닌 이는 진흙탕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수련의 향기가 납니다. 자비의 행장을 꾸리십시오. 세상에는 다양한 방편이 존재합니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 처음에 중생들의 관심을 끌어 성숙시키고 궁극의 길로 향하게 합니다. 윤회에도 열반에서 머물지 않는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번뇌가 없는 고귀한 마음은 보물입니다. 보물은 광명을 수행해 무간도에서 끊어야 할 바를 끊은 해탈도의 상태로 고귀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보리심에 두어 희유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매진하여 보현 보살의 행원을 따라 무지개 몸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정광명의 공성을 깨달은 상태를 이룰 때 지혜의 법신을 증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예찬하신 보리심을 찬탄합니다. 윤회의 바다와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이 양족존(兩足尊)께서 의지하신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 다람살라/정리=가연숙 객원기자
사진=이상원 (실크로드 여행사 대표)

달라이 라마는 ...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제14대 계승자로, 본명은 텐진 갸초다. 1935년 7월 6일 티베트의 동북부지역인 타크처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두 살 때 제13대 달라이 라마인 툽텐 갸초의 환생자로 인정받아 '왕위계승' 교육을 받다, 1940년 정식으로 제14대 달라이 라마로 즉위했다.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하자, 그는 16세의 어린 나이로 정치적인 전권을 인수했다. 1959년 발생한 티베트 국민의 민중봉기에 대해 중국이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인도로 정치적 망명길에 올랐다. 1960년 달라이 라마는 고국 티베트와 가장 가까운 히말라야 산맥 아래 다람살라에 13만 명의 티베트 난민과 30여 개 국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난민들을 위한 망명정부를 건설했다. 그는 비폭력 평화주의에 입각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핵실험 금지와 세계 평화 및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막사이사이상과 스웨덴의 월렌베르히 인권상을 받기도 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으로부터 조국을 빼앗긴 대신, 전 인류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인류의 스승으로서 불교 중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2. 한국의 유마 거사 장경호 회장

동국제강의 창업자 대원(大圓) 장경호(張敬浩, 1899~1975) 거사님은 '한국의 유마 거사'로 불려졌다. 1899년 부산 동래 초량에서 태어나 14세에 보성학교에 들어갔으나 17세에 동생의 죽음을 맞으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 때문에 통도사에 들어가 구하 스님으로부터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1920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일귀하처(一歸何處: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의 화두를 가지고 몸부림 치다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마니 공장, 수산물 도매시장, 정미소 등을 운영하며 철사와 못을 생산하는 '조선선재'를 만들어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유엔대사를 역임한 둘째 완성하여 이 세상을 불국정토'를 만드는 것이었다.

다행이 후계자들을 잘 만나 세속적인 사업체인 동국철강이 국제적인 제강업체로 발전하였고, 장상문 회장이 대원정사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출세속적인 불교



에 입학시켜 수료하였다. 또 불교진흥원에서 매월 1000불씩을 도와주어서 몽골어학당을 개설하고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보고 있다. 최근에는 고려사 명상센타를 만들어 교민들의 정신건강과 전통적인 몽골 불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진실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남산 대원정사에서 설법하고 국수 먹으며 들었던 법문이 기억 속에 새롭다.

"나는 20대부터 폭풍처럼 밀려오는 불교의 끌림에 정신을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서적을 읽고, 불교의 요체를 파악하여 바른 견해를 확립하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구해볼 수 있는 불교서적을 간행, 보급해야 하겠다

30억 희사해 '불교진흥원' 탄생… '곳곳이 법당' 서원 이뤄

아들 상문이 불사를 계승하고, 넷째 아들 상철이 동국제강을 성장시키자 아버지 대원 거사는 전국 선방을 유행하면서 마음의 담금질을 끊임없이 하였다. 1967년 서울 견지동에 불서보급소를 설립하고, 1970년 남산에 대원정사를 짓고 시민선방을 개원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 포교화를 언행일치로 실천하였다.

1975년 한국불교진흥을 위해 거금 30억원을 故 박정희 대통령에게 헌납함으로써 문공부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얻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망의 첫발을 내디뎠다. 거사님은 언제나 대원정사에 나와서도 옛날 통도사에서 용성, 한암, 한용운, 동산, 전강, 경봉 스님께 법문을 듣는 자세로 신진 불교학자들의 법문을 경청하고 통도사 마하연 무위암, 법수원 선방에서 안거를 지내는 마음으로 시간을 꼭꼭 지키며 정진하였다. 목적은 오직 '자아를 사업 또한 잘 되어 다보수련원, 불교방송국, 대원복지재단을 설립해 장학, 복지, 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비록 일은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속이 불이(不二)라 세속적인 사업은 호국불교운동으로 중생구제의 한 방편이 되고, 출세속적인 사업은 정신혁명으로 무명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밝은 빛을 제공하는 불사였다.

비록 세속에 몸을 담고 있으나 수행은 출가 수행자보다도 더 철저히 하여 모든 불자의 귀감이 되었으니, 진실로 추모하고 존경해야 할 어른이다. 나는 남산의 대원정사에서 여러 차례 뵙고 거사님께서 직접 창립하여 운영하는 대원불교대학 강의도 한 일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몽골 불사를 하면서 아드님께서 몽골까지 오셔서 장학생을 선발해 주셔서 여섯 명을 동국대학교 대학원 고 생각한 것이 불서보급사였습니다. 그때는 책을 구하기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책을 보고 나서 이것은 그분들의 체험이니 나도 한번 도(道)를 통해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 선방을 돌면서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었는데, 큰스님마다 돈이 없어 불사를 할 수 없다 하시므로 큰 원(願)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동국철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불교방송이 만들어진다면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니 집집이 법당이 되고, 곳곳에 부처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거사님의 원력은 헛되지 않아 마음 먹었던 일들이 1, 2대에서 형성되었고, 곧이어 불교TV까지 개국되어 보는 것마다 부처님이 되고, 듣는 것마다 불음이 되리란 말씀이 현실화 되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 · 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 = 베트남 = 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계 하였습니다.

자격조건=생활능력 있는분

1. 직장증명서 (갑근세 증명)
2. 자가, 전세 계약서
3. 장애 급수 증명
4. 정신 질 환자 제외
5. 심사 규정에 맞아야 함

위와 같이 자격을 갖추신 분에 한하여 특별 우대 하여 모십니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 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쟈빌딩 1505호)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16>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자족의 경제학 토대

시장적 가치 증대인 성장지상주의만 탐착하지 말아야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친숙한 경전은 <반야심경>이다. 한자로서 불과 262 개 문자의 짧은 경이긴 해도 여기에 대승불교의 엣센스가 축약되고 있다.

<반야심경>에 있는 사상은 공(空)이다. 모든 실체는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천한다는 법칙(無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나 마음을 구성하는 것(五蘊)도 모두 '이것은 XX 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번뇌가 부풀러 진다. 그러므로 "탐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는 "관세음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완성시켜 온갖 미혹이나 고통 투성이인 이쪽의 세상에서 편안함으로 충만된 저건너(彼岸)로 건너셨을 때, 육체도 마음도 그 모두는 공(空)임을 확인하시고 일체의 고통을 극복했다"고 한다. 여기서 '공' 은 텅빈상태(虛空)가 아니고, 인연이 이룬 가상(假相)으로서의 실체가 없음을 뜻한다.

다음에, <반야심경> 가운데 핵심적인 한 부분을 살펴보자.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2대제자 중 한 분인 '사리자' 에게 말한다.

"사리자여! 오온(五蘊)가운데 색(色)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물질로서 인식할 수 있다. 물질은 곧 공(空)이며, 공은 물질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오온 가운데 나머지 4가지인 수(受),상(想),행(行),식(識)도 이와 같이 공이니라.

사리자여! 모든 존재가 '공' 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은 생긴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경전의 위 구절 가운데에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란 일문은 색(色) 즉, 물질이나 물질적 현상은 모두 실체가 없다는 것, 무릇 실체가 없다는 것은 색=물질적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다. 그런대로 알 것 같으면서도 기실은 알듯 말듯 여간 이해하기 어려운 일문으로서도 유명하다.

여기서의 색(色)이란 눈에 보이는 것,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코 도(道)의 색(色)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형태가 있는 것은 무상(無常)이며 공(空)이고, 항상 변화유전(變化流轉)하는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에 구애받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색즉시공(色卽是空)이다. 후반의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색(色)은 전반의 색즉시공의 색과는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색즉시공' 으로서 일단 부정된 '색' 이, 이번에는 공즉시색으로서 해 또 다시 부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정의 부정 즉 2중 부정으로 긍정되는 것이며, 동일한 '색(色)' 이라도 질이 달라지게 된다. 말하자면 변증법적 발전을 이룩한 색(色)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색 즉 물질은 어디에서나 있지만 그 실체가 없다. 따라서 탐착에서 벗어나는 데에 물질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있고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실상, 무엇이든지 만들어지고 무엇이든지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실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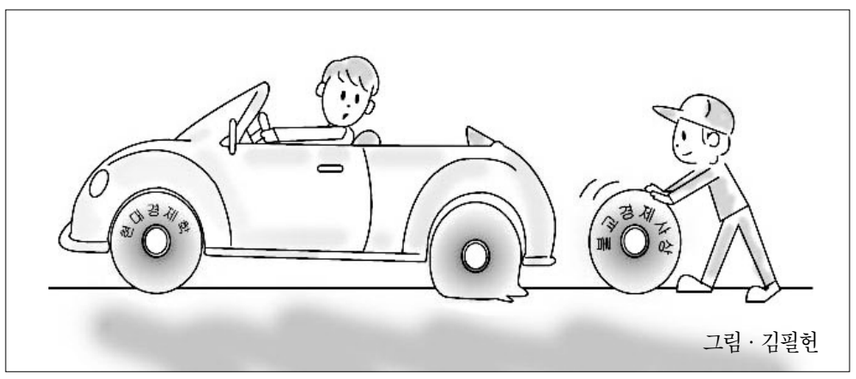


그림 · 김필헌

이것을 경제와 관련시켜 현대식으로 어떻게 풀이해 보면 어떨까?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다.

색(色)이란 눈에 보이는 것 형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로 말하자면 상품, 돈, 욕망, 생산, 소비이며, 혹은 기계, 석유이며, 이것들을 통해 GDP(국내총생산), GNP(국민총생산)이 만들어 진다. 이것들은 모두 즉, 시장적 화폐적 가치에 연관되어 있다. 이들 일체는 무상(無常), 공(空)이며, 그것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이다. 시장적 화폐적 가치의 증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장지상주의에 구애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색즉시공' 의 경제적인 해석이다.

전술한 바 있듯이, '공즉시색' 의 '색' 은 부정의 부정 즉, 현실 내지 현재의 긍정에 의해 최초의 색과는 질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의미인가?

최초의 '색(色)' 은 시장적 가치, 화폐적 가치만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것이 변증법적 발전의 결과 시장적 가치 플러스 비시장적 가치로 팽창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의 비시장적 가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 환경, 대지, 토양, 대기, 물, 여유, 마음과 마음의 상호교류, 일하는 보람, 사는 보람, 진선미, 사랑, 공덕, 풍속 등을 가리키고 있다. 현실적이고 총체적인 살림살이나 생활은 시장적 가치만으로 영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시장적 가치도 불가결 하며 따라서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 양(兩)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단 부정된 시장적 가치는 부정의 부정 즉 현실의 긍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비시장적 가치를 동반해 나타난다. 이것은 성장만능주의의 부정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적 가치도 비시장적 가치도 다함께 긍정하고 융합하는 보다 높은 의미의 진전된 탈성장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공즉시색(空卽是色)의 필자 나름대로의 경제적 해석이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색즉시공' 은 성장지상주의의 부정이고 '공즉시색' 은 탈성장주의의 진전이다.

이상과 같은 불교사상과 경제사상과의 융합으로의 시도위에 성립하는 불교경제사상의 특색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평등 · 공생(지구환경의 보전)

(2) 물질문명의 한계 간파(근대공업문명의 파탄 · 한계)

(3) 족(足)함을 아는 것(중도 = 절약 · 검소)

(4) 사적 이익추구 제일주의에 대한 의문(自利利他不二)

(5) 비시장적, 비화폐적 가치의 존중(대지, 자연, 환경, 목숨, 여유, 일하는 보람, 사는보람을 중시)

문제는 이들 불교경제사상의 특색을 기존의 현대경제학에 어떻게 응용해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교경제학으로서 이제까지 제기되어온 구상, 이념으로 이미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제창된 불교경제론을 바탕으로 그것을 한걸음 더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응용 경제학' 의 한 분야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불교경제 사상을 토대로 한 기반에서 '자족의 경제학' 을 제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허달의 불교와 코칭

⑯ 고객의 거울되기

'배려' 란 넉넉한 마음가짐의 산물

주한 벨기에 대사를 역임한 네이스컨스 부처(夫妻)가 다음 임지인 콩고로 부임한지 일년쯤 뒤, 휴가를 얻어 서울에 들렀을 때, 흥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콩고의 언어에는 어제와 내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과 오늘 아닌 것이 있을 뿐, 당연한 일로서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유실수(有實樹)를 재배하는 따위의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땔감을 위해 유실수를 베어 불 때는 일은 있을지언정.

콩고의 언어에서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어휘는 "고맙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대사관에서 일하는 콩고 일꾼들에게 칠면조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주었더니 도로 빼앗아 가기라도 할까봐 경계하는 태도로, 채어가듯 가져가더라는 것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생존이 참담했던 우리 상황에 비추어 미래를 준비하는 일, 선의와 배려 따위를 이해할 수 없는 콩고인들의 심적 상황이 아주 낯설지는 않았다.

벌써 오래된 일이나 전혀 다른 체험도 있다. 아침 신문을 받아들고 읽은 그날의 가장 즐거운 뉴스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기구(氣球-balloon) 나들이였다. 기구를 제작해 제공한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휠체어를 기구에 싣는 것에 안전상 '다소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애교 있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그 어려움을 금세기 영국인, 자신들의 자랑인 대 학자의 기쁨을 위해서 극복해낸 회사 기술진의 마음은 얼마나 따듯한 배려로 뿌듯한 것이었을까.

시간의 역행(逆行)이 존재함을 증명해 시간의 역사를 다시 밝혔다는 대 수학자, 물리학자에게 어린애 같은 꿈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만으로도 나까지 즐거워졌었다.

2000년 9월 호킹 박사가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강연하던 날, 이어 제주도에서 가졌던 학술 세미나까지 만사를 젖혀 두고 거기에 달려갔던 것은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강연 내용에 관심을 가져서가 아니었다. 그를 그저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이었을 뿐. 그의 미소는 특별한 것이었다. 컴퓨터가 느릿느릿 말하고 있었고 그는 그저 키보드 같은 것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다. 그것은 육신의 불구 마저도 감사하는 듯한 무구(無垢)한 웃음이었다.

위의 두 예에서, 배려란 넉넉함의 산물인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 이 넉넉함을 풍요의 심리(Abundance Mentality)라는 낱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코치는 넉넉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자신을 고객의 거울로 만든다.

요즘 많이 읽히는 한상복의 저서 <배려>에는 아스퍼거 신드롬(Asperger Syndrome)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를 뜻하는 말이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만 갇혀 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만, 아스퍼거는 아예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아스퍼거를 사회적 의미로 확대시켜 '사스퍼거(Social Asperger)' 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즉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뜻한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무자비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스퍼거' 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나 목적은 잃어버린 채 목표를 향한 경쟁만 남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나누며 베푼다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가치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경쟁과 이기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폐해들로 인해,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이 '사스퍼거' 인 줄 알게 할 수 있을까? 코치가 그들을 비춰주는 거울이 돼야 하는 것이다.

코치는 언어를 통해 고객의 거울이 되므로, 언어가 자칫 마술거울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 마술의 방에서 대상을 둘러싸고 비추는 오목거울 볼록거울. 그 비춰진 모습이 또 다른 거울과 거울들에 굴곡돼 일그러질 때 또 그 위에 참 모습이 합성돼 함께 어른거리고 간섭할 때, 어느 모습이 참 모습인지 알 길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코치는 늘 절제된 언어, 자아를 배제(Egoless)한 중립적 언어를 통해 고객 앞에 구면수차(球面收差) 없는 거울로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한다.

무명이 진여를 훈습해 존재라는 환(幻)을 내는 모습이 아마도 이 마술의 방, 중첩된 마술거울 놀음 비슷하지 않을까.

언젠가 <대승기신론>을 읽다가 문득 일어났던 생각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정부 사업이라도 성역 해치는 일은 용서할 수 없다”



승용차가 진주 인터체인지를 지나자 시가지가 바로 나타났다. 시가지를 허리띠처럼 두르며 흐르는 남강도 운전석 차창으로 들어왔다. 하늘도 강물도 모두 쪽빛이었다. 그러나 남강은 무심한 하늘과 달리 2차 진주성전투에서 죽어간 고혼들의 비통한 눈물처럼 가슴을 아리게 했다. 전사자의 핏빛 눈물이 푸른 빛깔로 변색해 슬프게 흐르고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승군들이 머물렀던 호국사는 진주성 안에 있었다. 강가에 솟구친 누각 촉석루와 논개가 왜장을 안고 몸을 던진 의암도 진주성 안에 있었다. 대연 거사는 시내로 진입하는 비좁은 도로가에서 승용차의 시동을 껐다. 남강을 모르는 체 무심코 지나칠 수 없었다. 촉석루 난간에 선 사람들도 남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암에 서서 사진을 찍는 남녀도 보였다. 이제 진주성은 공원관광지로 변모해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다.

대연 거사가 찾아가는 곳은 촉석루가 아니라 호국사였다. 대연 거사는 두 선지식의 흔적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었다. 한 사람은 영혼의 스승이 된 혜암 스님, 또 한 사람은 내고(乃古) 박생광 화백이었다. 대연 거사는 쌍봉사 옆에 자리한 공방을 떠날 때부터 가슴이 설렜다. 일기에는 대학시절 스승이었던 박생광 화백에 관해서 뒤늦게 스크랩해 둔 메모도 있었다.

박생광 화백은 불우한 천재화가임이 틀림없었다. 대연 거사가 다니던 대학의 시간강사 시절은 물론이고, 인생 말년인 75세를 넘어서까지도 화단의 주변을 맴돈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였던 것이다. 별세하기 전의 마지막 5년이 아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를 영원히 잊어버렸을 것이었다. 대연 거사는 아침에 보았던 메모를 다시 떠올렸다.

‘박생광 화백은 190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4세 때 진주농고에 입학한 뒤 친구 이찬호(청담 스님)와 함께 호국사로 가서 입산한다. 그러나 다음해인 1920년 진주농고 일본인 미술교사의 추천을 받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는 1924년 일본 ‘선전(鮮展)’에서 동양화 부문에 입선하고, 1929년 ‘명랑미술전’에서도 입선해 일본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1945년 귀국 후에는 진주에 정착해 작품활동을 계속했고, 1960년도에는 ‘동해일출도’ ‘의랑순국도’ 등 민족성이 짙은 작품들을 천착해서 그렸다. 특히 1982년 79세에 인도 성지순례를 하고 나서부터 불교정신에 뿌리를 두고 1985년 82세로 별세할 때까지 ‘출가’ ‘열반’ 등 강렬한 색채의 불교적 작품들을 남겼다.’

호국사가 청담 스님과 인연이 있는 절이라는 것도 메모를 보고 나서야 기억해 냈다. 그 전에는 어디선가, 아마도 박생광 화백의 강의시간에 청담 스님과 진주농고 시절 친구였다는 얘기만 들었지 호국사로 함께 가 입산했다는 사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다. 대연 거사는 작곡가 드뷔시의 말을 중얼거리며 승용차의 시동을 켰다.

‘예술가란 죽은 뒤가 아니고는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존재이다.’

박생광 화백은 늙은 노년에도 생활이 궁핍해 단칸방에서 살았다. 전세방을 전전할 만큼 가난했던 사실보다, 방이 좁아 1000호 같은 큰 그림을 작업할 때는 화선지를 조금씩 말아 가며 그렸다는 사실이 제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노년의 지병으로 석불이 산재한 경주 남산을 화폭에 담지 못하고 별세한 것도 그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쉽게 했다.

애석하기는 대연 거사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도예 작품들을 박생광 화백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평가를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도예를 하든 미술을 하든 ‘무엇이면서도 무엇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는 박생광 화백의 말이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뿐이었다. 실제로 박생광 화백의 후기작들은 불교적이면서도 불교적인 것을 초월해 있다는 것이 화단의 평가였다. 그러나 대연 거사로서는 참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대연 거사는 호국사 주차장 끝에 승용차를 세워놓고는 바로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중간쯤에 설치한 매표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관광객에게 표를 파는 진주성 관리직원도 없었고, 신도들을 안내하는 호국사의 종무소 직원도 없었다. 평일 오전이어서인지 호국사 경내에도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대연 거사는 대웅전에서 나오는 보살을 발견하고는 주지스님이 어디에 계신지 물었다.

“성법 스님 계십니까.”

“어디서 왔십니꺼.”

“주지스님과 전화로 약속하고 들렀습니다.”

“기다려보이소. 주지스님 방에 계실낍니더.”

잠시 사라졌던 보살이 나타나 성법 스님에게 안내했다. 주지스님 방은 상담실처럼 신도들과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종무실과 붙어 있었다. 벽에 걸린 혜암 스님의 친필 액자와 성법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살 때 촬영한 칼라기념사진 액자가 눈에 띄었다. 대연 거사가 엎드려 인사하자, 성법 스님이 군더더기 없이 시원하게 말했다.

“아침 일찍 전화하신 분이군요.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혜암 큰스님의 맏상좌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을 언제 어떤 인연으로 뵀습니까.”

대연 거사도 용건을 바로 드러냈다.

“제가 왜 출가했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겠지요.”

성법 스님과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대연 거사는 스님의 성격을 직감했다.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에다, 의리가 단단해 외호를 잘하는 것 같았다.

“모친은 불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그런 인연으로 스님들이 저의 속가 집에 많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장스님, 고봉 스님, 의현 스님을 어릴 때부터 보았지요. 저의 출가 동기는 이렇습니다.”

학창 시절, 스님은 친구들하고 은해사 산내암자인 중암으로 올라갔다. 스님은 낭떠러지 위에 자리한 중암에서 이십대 후반의 한 스님을 만났다. 그런데 잠깐 동안 친구들 하고 잡담도 하고 암자도 구경하는 사이에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 모두가 탈속한 분위기의 그 젊은 스님을 찾았다.

젊은 스님은 어느새 중암을 내려가 낭떠러지 밑의 산길을 홀연히 걷고 있었다. 불과 이삼십 초가 흘렀는데, 스님은 보통사람들이 이삼십 분 걸리는 거리에서 총총히 사라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 젊은 스님이 축지법을 쓰는 도인이구나! 하고 수군거렸다. 고등학생이었던 성법 스님은 그 젊은 스님이 부러웠다. 스님은 세상에서 복잡하게 얽혀 사는 것보다 출가한 뒤 축지법을 익혀 이쪽저쪽을 자유롭게 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꿈을 꿨다.

‘스님들은 축지법을 익혀서 다니는구나. 나도 출가해서 도인이 되고 싶다.’

그 후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친구 한 명과 함께 동화사로 출가했다. 출가한 스님은 행자 이십여 명과 함께 <치문>과 <사미율의>를 배웠다. 동화사에서 한 해 정도를 행자생활을 하다가 하안거 해제한 날 해인사로 갔다. 훗날 사숙이 되는 건장한 봉주 스님을 따라서 갔다. 비로소 스님은 도인들을 만나러 가는구나 하고 가슴이 부풀었다. 어느 날 봉주 스님이 해인사에 가면 도인들이 많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도 스님은 도인이란 축지법으로 다니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무예의 고수로 여겼는데, 백련암에 주석하고 있던 성철 방장스님도 그런 도인인 줄 알 정도였던 것이다.

“일타 스님이 계시던 지족암에 노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노스님의 아들이 봉주 스님이었어요. 거기서 하룻밤 잤지요. 그 이튿날 봉주 스님을 따라서 지금 총무원장 하시는 지관스님과 일타스님을 뵀어요. 사미계 수계는 며칠 후 동화사에서 같이 온 행자 열댓 명과 함께 받았습니다. 7월 말쯤이었어요. 당시 우리 스님은 지리산 토굴에 계셨습니다. ‘선방에서 공부만 하시는 훌륭한 수좌스님’이라고 은사로 맺어 주었지요. 성법이라는 법명은 우리 스님이 해인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일타스님이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일타 스님께서 ‘법을 깨달아라’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했지요.”

수계한 뒤 곧바로 공양간으로 갔다. 강원을 가기 위한 수순이었다. 당시는 산을 지키는 산감을 하거나, 공양간에서 3개월 이상 살아야 강원에 방부를 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은 행자생활을 동화사에서 한 번 하고, 해인사에서 두 번째 하는 셈이었다.

“같은 날 사미계를 받은 성한 스님은 밥 짓는 공양주를 하고, 나는 국을 끓이는 갱두 소임을 보았지요. 그때 해인사 원주스님은 종성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성한 스님은 일이 고된지 한 달 만에 떠났고, 저는 갱두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공양주를 맡았지요.”

총림이 있는 해인사에서 스님이 되겠다고 전국에서 행자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공양간의 밥과 국의 양은 엄청났다. 밥에 돌이 들어가거나 국을 잘못 끓이면 대중공사를 당하기도 했다. 공양간의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잠잘 시간이 부족했다. 잠 한 번 푹 자보는 것이 공양간 행자들의 소원이었다.

해인사에 온 지 한 달 만에 사미승 성한이 ‘해인사를 떠나자’고 은근히 꼬드겼다. 강원에는 다시 올 수 있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부산으로 도망치자고 했다. 성법은 생각 끝에 유혹을 물리쳤다. 절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행자장돌뱅이가 되기 싫었던 것이다. 그해 겨울이 되서야 사미승 성법은 강원에 방부를 들였다. 강원생활을 하는 동안 혜암 스님이 옥편 한 권을 보내왔다. 평생 동안 은사에게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다. 은사에게 받은 책 선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성법은 강원생활을 남보다 열심히 했다. 일등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던 시절이었다. 혜암 스님과 성철 스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불법에도 눈을 떴다. 도인이란 축지법을 쓰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 스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지요. 특히 봉주 스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봉주 스님은 72년도에 해인사 주지를 지냈는데, 별명이 ‘호랑이 주지’였어요. 호법신장 같은 분입니다. 대작불사를 한 만불사 주지스님의 은사스님이시지요.”

봉주 스님이 ‘호랑이 주지’란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지금의 장경각 건물을 지켜낸 일화 때문이었다. 핑퐁외교라고 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모택동이 닉슨 대통령에게 자랑한 중국의 국보가 만리장성이었던 바, 박정희 대통령도 만약 닉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를 참모들과 숙의했던 것이다.

그때 박대통령의 한 참모가 우리나라 국보 중에서 장경각의 팔만대장경판을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지시해 목조건물인 장경각의 보호 문제도 거론됐고, 급기야 정부는 화재를 예방하고 폭격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새로운 장경각을 짓는다는 복안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장경각 뒤편 수미정상탑 자리에다 지금의 장경각을 모방한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의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겠다고 해인사에 도면을 제시했다.

제시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고였다. 얼마 후에는 공사인력과 건설장비들을 투입했다. 대중공사를 벌이던 스님들은 모두 반대했다.

노스님과 수좌들은 우선 콘크리트 건물의 이질감을 부담스러워했고, 해인사가 행주형국(行舟形局) 즉 큰 바다로 배가 움직이는 형국인데 배 밑을 뚫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급기야 젊은 스님들이 건설 장비를 몸으로 막는 충돌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경산 스님이 중재를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해인사 대중 앞에 나서 말 한 마디 꺼내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때 가장 강력하게 나선 이가 바로 주지 봉주 스님이었다. 스님은 ‘아무리 정부사업이라 하더라도 성역을 해치는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관리들에게 호통을 쳤다. 뿐만 아니라 봉주 스님의 기를 꺾으려고 경찰이 무장하고 나타났지만 ‘우리 집안을 치려는 도둑놈들이 물러가면 문을 열겠다’고 산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결국 해인사 대중과 정부가 서로 양보해 극락전 터에 새로운 장경각을 지었는데, 그 콘크리트 건물이 바로 지금의 해인사 선방인 소림원인 것이다.

〈계속〉


그림 · 최문정

“세상에서 복잡하게 얽혀 사는 것 보다 출가한 뒤 축지법을 익혀 이쪽저쪽을 자유롭게 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화의 매력 속에 불교를 넣다

솔바람, '만화 불교이야기' 시리즈 12년만에 복간



지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1000만 부를 돌파해 '텐밀리언셀러'에 등극한 도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해리포터', 'Why', '마법 천자문' 시리즈 등 네 종이다. 해리포터를 제외하고는 과학 학습만화인 'Why' 시리즈와 '마법 천자문'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통 교육용 만화인데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 만화를 통해 고전을 익히려는 학생들이 주독자층이다.

이처럼 교육 또는 교양적 요소를 담은 만화들의 대박 행진이 이어지면서, 제2의 '마법 천자문'을 꿈꾸는 교육용 만화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일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불교를 쉽고 흥미있게 전하는 만화가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도서출판 솔바람(대표 동출)이 펴낸 '만화 불교이야기' 시리즈(전 5권)가 그것.

<만화 불교이야기>는 부처님의 일생, 고승들의 일화, 불교의 근본 사상, 불교문화와 상식, 생활속의 불교 등을 통해 방대하고 심오한 불교의 모든 것을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 설명해 준다.

제1권 '부처님 생애'는 불교의 시작과 참된 가르침, 부처님이 전한 맑고 서늘한 깨달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제2권 '인물 불교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불교를 이끌어온 위대한 고승들의 일화, 중국 및 한국 고승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내 불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제3권 '근본 불교'는 사성제, 팔정도, 윤회, 해탈, 자비 등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막막해지는 근본 가르침과 개념 등을 우화와 고사를 빌어 풀이해 준다. 제4권 '대승불교'는 아함경, 법구경, 화엄경, 법화경, 반야심경, 금강경 등 초기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전들을 통해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제5권 '불교 문화와 상식'은 우리의 언어와 문학, 건축, 음악, 미술, 문화재 등에 깊숙이 스며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불교 상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만화 불교이야기>의 글을 쓴 소설 <단>의 저자인 김정빈 작가는 9월 22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자일수록 어려운 이치를 쉽고 단순하게 말하는 법이다. 난해한 불교를 '현자의 단순성'에 근접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공동저자인 최병용 만화가는 "최근 만화가 드라마, 영화 등의 원작으로 쓰이면서 만화시장은 이제 성인들에게도 어필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만화를 불교 포교에 적극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원에서 나왔다 절판된 <만화 불교이야기>를 12년만에 재발간한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은 "현재 12권을 펴냈지만, 앞으로도 청소년 및 성인대상의 교양 불교만화를 지속적으로 펴내겠다"고 밝혔다.

성공인생 마음공부 | 만화 불교이야기 | 김정빈 글, 최병용 만화 | 솔바람 | 각권 9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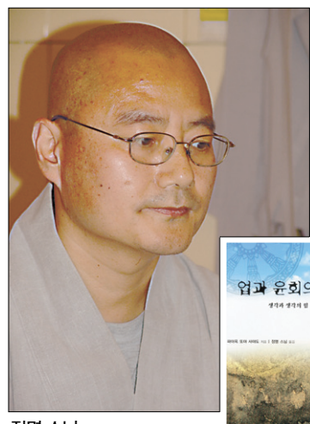
김성우 기자


공동저자인 김정빈 작가(右)와 최병용 만화가.

"수행은 생각의 힘 실천하는 것"

정명 스님, 우 아찐나 스님 '업과 윤회의 법칙' 번역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자인 김천 성전사(www.jungmyeong.com) 주지 정명 스님이 미얀마 파아옥명상센터 선원장인 파아옥 또야 사야도(우 아찐나 스님)의 저서 <업과 윤회의 법칙-생각과 생각의 힘(The Workings of Kamma)>을 번역 출간했다.


정명 스님.



파아옥 또야 사야도는 미얀마 정부에서 '명상수행을 지도하는 훌륭하신 큰 스님'이라는 칭호를 부여 받은 고승으로 부처님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으로 유명하다. 스님의 명저 <업과 윤회의 법칙>은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바른 수행을 닦기 위해서는 최고의 행복(열반)을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며, 업과 업의 과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 업이란 생각이고, 그 과보란 생각의 결과이다. 따라서 수행이란 생각과 생각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명 스님은 9월 17일 인터뷰를 통해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생사(生死)"임을 분명히 했다.

"보고 듣고 냄새맡고 감촉하는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알음알이가 일어나서는 사라지며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바로 이 순간 셀 수도 없는 생과 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 스님은 윤회의 흐름에 등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보는 순간에 알아차림이 되고, 들리는 순간에 알아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것을 '현명한 주의력'이라 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행복의 길인 도덕적인 삶과 마음을 통제하고 집중하는 삼매와 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통찰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명 스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은 다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워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며 "바로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이 순간에 100%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명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왜곡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부처님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며 법보시로 책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54)434-9090.

업과 윤회의 법칙 | 우 아찐나 저, 정명 역 | 향지 | 법보시

김성우 기자

제6회 불교출판문화상

10월 5일까지 공모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주관하는 '제6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을 위한 공모가 시작됐다.

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상은 올해의 불서 10종(상금 각 50만원)을 비롯해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1종(300만원), 우수상 2종(각 100만원)을 시상한다. 2008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저·역서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결과 발표는 11월 중순에,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신청자는 10월 5일까지 기본 서지정보 및 개요(300자 내외) 1부, 신청도서 5부(4권 이상 전집은 2질)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내 불교출판문화협회. 문의: (02)3672-7181

김성우 기자

창조적 최면으로 행복한 성공

설기문 동방대학원대 교수, 잠재능력 개발법 제시



"자신을 위한 창조적 성공을 원한다면, 그 성공적 상황을 강력하게 상상하고, 마치 그 성공을 이미 이룬 것처럼 오감적 차원에 연합하여 몰입하여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막강한 자력을 가진 자석처럼 자기최면이 되어 당신이 꿈꾸는 성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당겨 줄 것이다."

<창조적 성공최면>(마음살림 RTN)의 저자 설기문 동방대학원대 교수(자연치유학과 NLP(신경언어학 프로그램)최면 전공)는 이것을 '자기최면의 원리'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전생체험 등 최면 프로그램을 각종 방송매체에 소개해 온 설 교수는 9월 21일 가진 인터뷰에서 "인간의 잠재 능력을 깨워 저마다의 불성(佛性)이 지닌 지닌 무한 능력을 발휘하게 해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도록 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설 교수에 따르면, 최면이란 마음과 잠재의식의 원리를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상태나 목표를 잘 이룩하고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기계발 전문가인 얼 나이팅게일은 "인생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일은 바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듯이, 최면은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一切唯心造)'는 유심(唯心)의 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설 교수는 10월부터 6개월간 불교TV에서 '마음과 최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창조적 성공최면 | 설기문 글, 박다원 그림 | 마음살림RTN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禪의 세계 그린 시집

'仙歌-신선의 노래' 출간



"물속 달 잡으려다 진짜 달 놓친 너/ 날 찾아 거울 안을 끊임없이 헤매다/ 몽夢 몽夢 몽夢 담배 연기로 물음표만 그리네."(심외무불(心外無佛))

시조시인 한상철 거사가 전통율격을 엄격히 지킨 대구(對句) 형식의 평시조 108수를 시조집 <仙歌-신선의 노래>(삶과꿈)에 담아 펴냈다.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수의 시조를 통해 저자는 국민은행 지점장과 산악연맹 이사를 역임하며 겪은 인생의 풍상과 수행여정을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시조로 노래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선(禪)을 논하고, 신선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영혼을 태웠으니, 어찌 마음의 재가 남지 않겠는가?"라며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철칙을 어긴 실수를 토로하고 있다.

仙歌-신선의 노래 | 한상철 | 삶과꿈 | 1만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뜰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5	5분참선	현담	선
6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일곱 번의 작별인사	무비	불광출판사
8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9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원철	호미
10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법회 추석연휴로 인해 쉽니다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인판매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YADANBEOPSEOK 야단법석
구입문의:010-5318-0704
www.01053180704.com

제2회 이상시문학축제
이상시문학상 수상자 정진규 시인

"자연의 당길 심 덕분에 시작 잘 돼"
<심> <詩作>

제2회 이상시문학축제의 개막과 함께 발표된 제2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로는 원로시인 정진규 선생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슬픈공복'(<시안> 2009년 여름호 발표). 제2회 이상시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이승훈(시인 한양대 명예교수, 심사위원장) 돈연 스님(시인 메주와첼리스트 대표) 한분순(한국시조시인협회장), 장경렬(평론가 서울대교수), 장영우(평론가 동국대교수)로 구성돼 9월 21일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자로 정진규 선생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로 선정된 정진규 시인은 "내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이상시문학상'은 이상의 아방가르드적 문학정신을 모티브로 시 속에 녹아 흐르는 선적 경향을 오늘의 문학으로 계승하고 있는 시인께 드리는 상입니다. 선생님의 시작품들도 줄곧 인간 의식의 새로운 지향을 제시해 왔다는 측면에서 다분히 실험적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론'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요약 하시겠습니까?

한 시인의 머리 위에 이상(李箱)이란 관사가 붙게 된 것을 무엇보다 먼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은 우리 현대시의 포월적 향도요, 시의 본질인 실험정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상시문학상' 수상자로 과연 적격자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전 작고하신 김춘수 선생이 내시를 두고 "정진규의 산문시는 이미지의 내면적 리듬, 환상의 파도를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발간한 내 시집 <공기는 내 사랑>을 두고 김종길 선생께서는 "나이 들수록 시의 행갈이라는 것이 객쩍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의 산문체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나의 산문체 형식이 새로운 시의 형식으로써 그 실험의 성취를 보였다는 뜻으로 나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본다면 이상이 성취해낸 현대적 자각, 그런 현대시로서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시론을 요약하는 말로 '몸詩'라는 말을 장르화해 왔습니다. 이 또한 이상의 현대성이나 이 상(賞)이 지향하는 내면적 불성(佛性)의 세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몸詩'란 전일성(全一性)의 세계, 존재론적 실체성(實體性)의 세계를 그 궁극으로 합니다. 시간과 영원, 현실과 영혼, 안과 밖의 세계가 원융(圓融)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범박하게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여성어에 '눈에 밟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한 그리움을 실체화한 표현입니다. '그리움'은 마음이요 '밟히다'는 그 마음의 동사적 실체화, 가시화한 '몸'을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몸詩'의 세계가 실체로 존재합니다.

> "'이상' 관사 붙은 것 영광… 산문시가 성취 보인 것
> 이상시, 현대시 포월적 향도이자 실험정신 그 자체"

–월간 시전문지 <현대시학>과 선생님의 시적 행보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 보입니다. <현대시학>과의 인연과 현재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20여 년 넘게 시전문지 <현대시학>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창간 500호가 됩니다. 나로서는 하나의 종교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웠으나 보람도 컸습니다. 좋은 시와 좋은 시인들을 우리 시문학사에 성실하게 보탰다고 자부합니다. 현대시학을 만드는 일 자체로서도 행복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큰 힘을 얻어왔습니다.

제 시의 긴장과 탄력을 이완의 이 나이에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대시학>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늘 많은 시들, 그것도 신작들을 대하고 있고, 특히 젊은 시인들의 시를 분별해 읽는 동안 그 비의(秘儀)의 풋풋한 통로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대시학>은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전문지로서 모든 시인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잃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제 시에서도 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희의 연세에 서울 한 복판에서 월간 시전문지 주간을 맡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시적 감각이 첨단을 호흡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즘 시단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거주지는 생가인 경기도 안성으로 옮겼습니다. 석가헌(夕佳軒)이라 이름 했습니다. 선대 묘소를 한 곳으로 모시고 그 묘소를 관리하고 지키는 묘지기의 소임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만, 자연과 보다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것이 이른바 '자연의 당길 심(心)(힘)'이란 것입니다.

그 예인은 실로 놀라운 생명현상이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제 시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양으로도 시의 생산력을 활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 4년 터울로 평균 1권씩의 시집이 엮어지곤 했는데 이번엔 고향에 내려간 2년 만에 그것도 70여 편을 <공기는 내 사랑>시집으로 엮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연의 '당길 心'은 묘력을 지니고 있어서 제 시의 또 다른 혈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조붓한 그 자연의 통로에서 저는 황홀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에 새로운 실험정신을 빙자한 무질서한 우회와 굴절들이 혼미를 일삼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는 발효와 승화로 눈 뜨는 신생(新生)이지 무질서의 엉뚱한 해체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시들이 너무 많고 앞장서 이를 조장하는 시인들마저 있어 큰 걱정이 됩니다.

–시가 읽히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시집은 안 팔려도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시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의 시가 국민들의 정서와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와 인터넷, 시의 문화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지 모르나 시의 본질에 상처를 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격이 없는 남발의 천격을 보이고 있고, 시를 일종의 정보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의 교감은 내밀한 세계와의 만남으로 이룩되는 생명의 질감과 자유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표피적인 통과로 그 이해를 끝내고자하고 그러한 형식으로 독해가 되지 않으면 그 가치마저 외면하는 형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를 두고 '쉽다'고 할 때는 그 지시적 전달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 세계의 증가된 함량과 교감(交感)하는 전율의 감동을 뜻하는 것임을 알아야 진정한 시의 이해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지요. 어쨌건 시는 정보의 산물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시단의 어른으로서 사회의 원로로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독자의 저변이 확대돼가고 있고, 그 질적 수준도 상당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바른 이해로 시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정보물이나 장식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격조 있는 문화적 차원의 경영이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제2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진규 시인.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정진규 시인 약력

정진규 시인은 1939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 안성농업고등학교와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6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나팔'이라는 시로 등단했으며, 1963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시'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시전문 월간지 <현대시학>의 주간을 맡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현대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꽃피우고 있다.

한국시인협회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시인협회상, 월탄문학상, 공초문학상, 문화훈장 수훈, 불교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시집 <마른 수수깡의 平和> <매달려있음의 세상> <뼈에 대하여> <몸詩> <껍질> <공기는 내 사랑>등 17여권을 발간했으며, 그밖에도 독일어 번역 시집, 시론집 등을 출간했다.

이상시 그림전 등 시문학축제 열려
23일 삼청동 스페이스선+미술관서, 이상시낭송회도 열려

선과 아방가르드의 만남 제2회 이상시문학축제가 이상(李相, 1910~1937)의 탄생일인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스페이스선+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제2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로는 원로시인 정진규씨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정진규 시인이 <시안> 2009년 여름호에 발표한 '슬픈 공복'. 축제의 주요행사로는 이상의 시를 이미지화한 그림전시회, 이상시의 전위와 현대성을 알리는 강좌, 이상의 대표적 시들을 향유하는 낭송회 및 포럼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상시그림전은 이상의 시들을 화가들의 자유로운 안목으로 형상화한 독특한 형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병완, 장상복, 장진 등 21명의 중진 화가들이 참여한 이 그림전은 '시와 그림의 만남'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다. 이상의 시들이 갖는 복합성과 난해성을 그림으로 풀이했다는 점에 전문가들과 관람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것.

이번 축제는 현대불교신문사와 계간 문예지 <시와세계>, 시와세계 작가회가 공동 주관하고 이상시문학선양회가 주최했다.

이은정 기자



이상문학상 수상자 발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위).
동국대 장영우 교수(오른쪽)가 이상(李相)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0 불교달력출시 ※ 달력 1~42호 [국6절 · 12절 · 차걸이 · 미니 · 다이어리 · 한지 · 탁상]
www.buddhashopping.com

12절 100,000원 (100부)
창립35주년 기념세일
달력가격 대폭인하

불서보급 35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7호 가람의 향기 | 8호 관음도 | 10호 동자승의 하루 | 11호 물소리바람소리 | 13호 반야심경 | 14호 보궁과기도처
1호 날마다 새롭게(大) | 2호 내마음의 시(大) | 3호 붓다의 메아리(大) | 4호 산사로 가는길(大) | 5호 연향이 머무는곳(大) | 6호 천진미소(大)
15호 부모은중경 | 19호 풍경소리 | 26호 부처님의가르침(미니) | 27호 산에는꽃이피네(미니) | 29호 좋은말한마디(미니) | 37호 청정(다이어리)

특별기획카렌다
20 성불하소서(두달) 41 42 한지달력 2종 한지 달력 150,000원 (100부)
40 탁상용카렌다 탁상 달력 250,000원 (100부)
두달 달력 70,000원 (100부)

달력규격
국6절(大) 규격:30.5×31.0cm
12절 규격:25.8×26.5cm
두달 규격:25.8×26.5cm
차걸이 규격: 9.0×15.5cm
미니 규격: 8.9× 9.5cm
다이어리 규격: 9.5×13.4cm
탁상 규격:26.2×19.0cm
한지 규격:30.0×45.5cm

달력할인가
국6절 ……1,300원 (1부)
12절 ……1,000원 (1부)
두달 ……700원 (1부)
차걸이 ……400원 (1부)
미니 ……400원 (1부)
다이어리 ……600원 (1부)
탁상 ……2,500원 (1부)
한지 ……1,500원 (1부)

동진기획·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www.buddhashopping.com
TEL (051)515-8888,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 총 42종의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051)515-8888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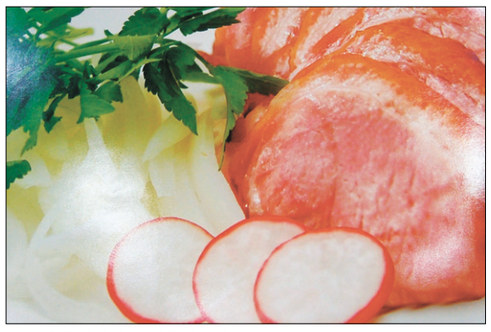
㊽ 밥은 모험: 채식당 기행-부채도사 편<1>

오리고기에 숨겨진 진짜 맛의 비결은?

채식주의자인 수안 처사와 그의 일행들과 도착한 오리고기집에는 선발대로 온 불교학과 학생들이 일명 '부채도사님'을 모셔놓고 둘러앉아있었다. 부채도사님은 서울과 경주 양 캠퍼스에서 티베트 불교와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불교학과 교수님이다. 그의 학생들이 마련한 저녁자리에 철학과 소속인 내가 염치불구하고 끼어앉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어야 사는 법. 원시부족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 지금도 굶어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지구 반대편에는 살 수 있을 정도의 먹을거리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먹어야 산다'는 나의 1조 1항의 원칙에 의거해, 상위에는 고기불판이 따끈하게 데워지고, 게다가 식당 한편 TV에서는 반짝이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가 울릉도 트위스트를 간드러지게 부르고 있는 이 순간을, 나는 '행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고기불판만 봐도 흐뭇해하는 나와는 달리 채식주이자인 수안 처사와 그의 일당들은 한편에 따로 상이 차려졌다.

불판 위로 납작납작하게 재단된 오리고기가 올라 지글지글 익어갈 무렵, 부채도사님과 학생들의 대화도 더욱 익어만 간다. 술은 한잔이요 고기는 일곱 점이면 족하다는 부채도사님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부채를 간간 펴들고는 살랑살랑 부채질을 해가며 이야기를 섞는다. 그의 부채질에 일어난 보이지 않는 미풍이 불판의 화력을 돋우는 듯도 싶지만 그렇다고 그 부채의 용도가 고기 굽기용은 아닐 테고, 여름의 기운도 한풀 꺾인 이 시절에 더위 때문도 아닐 테고, 불판에 꽂혀있던 마음이 뜬금없이 부채도사님의 부채로 옮겨 붙어 그 용도에 대해 나름 열심히 탐색하기 시작했다.



불판에 올려지기 전 먹음직스러운 오리고기.

이쯤에서 잠시 부채도사님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그가 우리 학교에 부임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말총머리에 잘 생긴 노총각'이라는 소문에서부터 머리에 후광이 뜬다는 얘기도 있었고, 수업방식이 좋게 말하면 특이하고 나쁘게 말하면 괴팍해 그 교수님 수업을 듣고 나면 머리가 뒤집어진다는 말도 떠돌았다. 말총머리에 후광이 뜬 총각의 이미지를 그려보며 혼자 할 일도 없는 궁리와 상상의 나래를 피어대다 지쳐 그 호기심도 시들해질 무렵, 지난 학기에 그에게 수업을 받았다는 미술학과의 한 학생이 다시 부채도사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 학생도 머리가 뒤집어졌더란다. 얘기인 즉 그만큼 기존의 사고체계를 흔들어놓았다고 말이었는데, 그 학생은 다행히 혼란기를 지나 안에서 꿈틀대는 작은 변화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누군가 흔들어줄 사람도 없어 지루한 여름을 보내던 참에 이보다 더한 희소식이 있을까. 그러한 양반들의 속성은 기분 내키면 언제든 산으로 훅 들어갈지도 모를 일이라, 가을학기가 시작 되는대로 전공과목을 두개나 포기하고 수강신청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미 두어 번의 객기와 반항기를 피어본 후 알아가고 있는 사실은, 그는 사람들에게 살랑살랑 봄바람질을 해대는 부채도사라는 거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바람이 봄바람처럼 반가운 미풍이 될 수도 있고 짜증나고 성가신 모래바람이 될 수도 있는지라, 바람의 속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나의 주관적인 견해와 느낌임을 밝혀두련다.

여하튼 오리고기집에서의 저녁식사는, 한쪽에서 푸성귀가 잔뜩 든 도시락을 펴놓고 된장찌개를 즐기는 채식파나 오리고기의 담백한 육질을 즐기는 육식파나 할 것 없이 부채도사의 봄바람질과 반짝이드레스 아가씨의 울릉도 트위스트 가락이 흥겹기만 한 이들의 만찬이었다. 그리고 그날 더불어 알게 된 사실은, 그 만찬 이후로 나는 채식이냐 육식이냐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할 일 없는 방황을 그만두었다는 거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⑤ 허리디스크

허리디스크, 수술 안하고 나을수 있다

자세를 똑바로 하고 편하게 서보면 자신의 허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주로 한쪽 다리가 앞이나 옆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한쪽 다리가 길다보니 앞이나 옆으로 나오는 것이다. 다리가 삐져나오는 이유는 골반이 삐뚤어졌기 때문이다. 허리가 똑바르게 되어 있다면, 바른 자세로 서있게 된다.

허리디스크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린 증상이 특징이다.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추간판탈출증.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빠져나오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린 증상이 생긴다.

허리디스크 원인으로 운동부족, 혈액순환장애, 허리근육과로 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교통사고, 충돌 등의 외상으로 오는 급성적인 원인과 운동부족, 흡연, 과음, 스트레스, 삐뚤어진 자세, 나쁜 습관들도 원인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열 가지 요통으로 구분한다. 신허요통, 담음요통, 식적요통, 좌섬요통, 어혈요통, 풍요통, 한요통, 습요통, 습열요통, 기요통이다.

1. **신허요통** : 지나친 성생활로 신기능이 상하여 정혈(精血)이 원만하지 못해서 은은히 아프면서 허리를 잘 쓰지 못한다.
2. **담음요통** : 담음이 온 몸의 경락(經絡)으로 돌아다니면서 허리와 잔등이 아프다.
3. **식적요통** : 술, 음식, 성생활을 과하게 하여 습열(濕熱)이 허한 틈을 타서 신(腎)에 들어가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기 어렵다.
4. **좌섬요통** :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접질렸거나(挫閃) 떨어져서 아프다.
5. **어혈요통** : 넘어졌거나, 맞았거나, 떨어져서 생긴 어혈(瘀血)로 허리가 아프다. 낮에는 덜 아프고 밤에 더하며, 몸을 돌릴 때에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6. **풍요통** : 풍(風)으로 신(腎)이 상하여 허리가 부분적으로 아프고 두 다리가 당기면서 뻣뻣하다.
7. **한요통** : 찬 기운이 신경을 상하여 허리가 아프다. 몸을 잘 돌리지 못하게 되고, 덥게 해주면 덜 아프고 차게 하면 더 아파진다.
8. **습요통** : 습한 곳에 오랫동안 있거나 비와 이슬을 맞아서 허리가 돌이나 얼음을 매단 것처럼 무겁고 아프다.
9. **습열요통** :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 허리가 아픈 것은 습열이나 음허(陰虛)로 생긴 것이다. 날씨가 흐릴 때, 혹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10. **기요통** : 자기의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 심혈(心血)이 왕성하지 못하여 근맥(筋脈)이 막히게 된다. 기가 막힌 탓으로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하고 많이 걷지도 못하게 된다.

필자의 임상경험에서 허리디스크는 남성과 여성의 원인이 다르다. 남성의 허리디스크는 대장과 항문의 기능을 좋게 하면서 치료해야 근원치료가 되고, 여성의 허리디스크는 자궁과 골반을 튼튼하게 하면서 치료해야 근원치료가 된다. 특히 출산후에 골반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디스크 예방은 올바른 걸음걸이와 자세이다. 걸을 때는 턱을 들고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딛으며 팔을 앞뒤로 저으면서 걸어야 하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바짝 붙여야 한다. 걸음과 자세만 확실하게 지켜도 허리디스크 예방이 된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약침요법, 한약요법, 이침요법, 교정요법 등이 있다. 약침요법은 천연약물을 경혈에 주사하여 기를 보충하면서 허리의 기능을 원상회복시키는 치료법이다. 이침요법은 귀에 있는 이침혈에 자극을 주어 치료하는 새로운 침치료이다. 귀는 우리 몸의 리모컨에 해당하여 귀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경혈에 자침하는 방법이다. 한약요법은 허리 기능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키는 한약을 복용하는 방법이다. 교정요법은 삐뚤어진 골격과 인대를 찾아 교정하여 정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한방차 요법은 양인체질은 오가피, 솔잎차가 좋고, 음인체질은 갈근, 백작약차가 좋다.

허리디스크는 증상, 체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맞춤치료를 한다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가위 맞이 현불샵 특별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수의 등 수납한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결혼 인연찾기
홀로 외로운 독신남녀
초혼, 재혼 70세까지
성실한 男, 착한 女 상담환영
불자님 자녀 인연 맺어 드림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우주 氣편지 받고 부처님 신통력 업장소멸
- 건강, 인생, 우환, 사업이 잘 안되는 분.
- 영적장애, 신내림 등 고통받는 불자, 수행자.
- 빙의, 신병,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등
- 병원치료, 최면술, 천도재를 해도 안되는 분.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요가 개인, 출장지도
요가 명상 무료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 명상, 오후 : 요가)
위치 : 종로2가 종각역 4번출구
사띠 요가 명상원
02)723-6817

후불탱화
가로 4m × 세로 1.6m, 조성 5년
필요하신 스님들께
저렴하게 보시하겠습니다
010-5153-0052 경북

법우림 스님 소원성취기도
- 소원성취 · 21일 · 백일기도 수시접수
- 천도재 · 49재 · 태아영가천도 수시접수
- 개인 사정과 사찰 형편에 맞게 의식집전

부 설 : 동양철학상담센터
기도성취 전법도량 자성사
문의 서울)02)3663-8416
문경 1566-842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부산
011-551-17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불심깊은보살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50대 전후반
010-9045-90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52)227-0827
052)225-0829

스님 시봉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 컴퓨터 가능자
▷불심이 깊으신 40~50대 분
포천시
010-9269-8445

참선기도도량에서 법우들과 포교하는 법사입니다. 맘껏 기도하고 포교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가능
02)2665-9690 보광 법사

보담 스님의 하늘 소리
천도재, 사십구재, 구병시식, 법문, 지장보살님을 95년도에 친견하고 지금까지 영가천도를 위해 실행합니다.
010-9444-0035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40~50세
양평 용문면
010-7484-6885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696-8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경험자 우대
011-9707-3490

공양주 구함
♦앞에는 저멀리 산으로 둘러 쌓인 호수같은 바다요
♦뒤에는 황토산에 소나무가 울창하도다.
물 맑고 공기좋은 지장성지에서 함께 할 공양주를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여수시 소재)
*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011-696-8500

전통 범패 배우면서 행자, 스님 하실 분
▷무료탱화 필요하신분
경남
016-428-6665

독도탱화불사 모금사 모집
독도에는 절이 없습니다. 탱화에 그림으로 모십니다. 모금사 사암주지 50%. 납입조건으로 울릉도 충북영동 만불전에 이름올려드립.
자기소개, 사진첨부, 신분증사본, 주민초본.
043)745-3010
054)791-3010(6시~9시)
저작권 : 도평 스님
충북 영동 독도탱화 모금본부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명리학 대강좌
(사주학대비 체질의학 특별강의)
석진성 돈오전법원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교를 회통한 전법강의를 개설.
스님과 함께하는 방편과 깨달음 (근본 실상자리)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1-1747-8558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작은스님의 큰 깨달음
지식은 나를 살리고, 지혜는 모두를 살리고, 경험은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은 실로 보고 들을 수 없느니. / 몸과 마음, 휘고, 뒤틀리고, 쑤시고, 결리고,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달고 사는 매우 불편한 종합병원 같은 중생. /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다이어트! 배우긴 했어도 도대체 정리가 안되는 중생. /모두 피안의 길로 안내하리. / 세상사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법. 그것을 알아내면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니. / 불보살의 가피를 진정 알고 싶은가
연락처 : 031)386-3967 / 시 간 : 낮 1시 ~ 6시까지
치유, 명상의 건립터 필요함.

도반 찾습니다
병신생 비구승입니다.
물 좋고 경치 좋은 암자에서 황토집을 짓고 요양 기도하며 함께 지내실 보살님 인연 바랍니다.
018-406-3073

주지 및 사찰 관리자 자리구함
법회때 한자 적절히 사용 환희심 나는 법문 해드림.
현재 천년고찰 노전 소임 중
50대 초반. 청정비구(순종)
혜안 사문
010-2606-1299
(개인사찰은 장기적으로 매입가능)

부처님 가족 모심
기도하며 무료 명리 배우실 분
신심있는 스님, 남녀
011-223-3334

불교의식 무료강의
- 비구, 비구니, 예비승려 불교상용의식 (범음, 범패)
- 전문 염불의식 무료강의 (사물, 작법 일체 강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산천리 521번지 도동 삼보사 대승불교 염불원 원장 보공 스님
052)254-2922
010-5030-6366
010-9413-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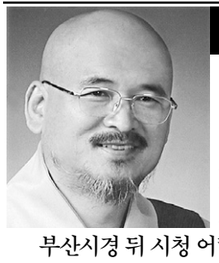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www.kbs.cc 월간역학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창간되어 주역 사주 관상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유 불 도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싣습니다. 1년 구독료 10만원을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광고(1백만원)+수맥탐지봉(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과 회원증, 해설위원 위촉장을 보내드립니다

돌에 새겨진 石經, 인연자를 찾습니다
대정 12년(1172년) 명문이 있는 석경!
팔각돌기둥에 한문으로 450여자가 새겨져 있는데 높이 84.5cm 지름 26cm로 해인사 목판대장경 보다 앞선 시기에 중국에서 조성되었음.
이 외에 한점은 무량수불근본다라니며 아미타불이 마애불식으로 조성되어 있음. 소장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바람.
수행처소 불사자금이 필요하여 인연자를 찾습니다.
018-246-0211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보름단기출가학교 모집
수행자의 모든것을 경험
- 일시: 10월 5일(월)~10월 19일(화)
-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대구큰절 ·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등
- 출주 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자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약사사
- 법 명 : 혜관 (전종택)
- 주 소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346-1번지

- 사찰명 : 보현사
- 법 명 : 혜문 (김용일)
-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58-8번지

- 사찰명 : 보현사
- 법 명 : 자혜 (윤석자)
-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58-8번지

- 사찰명 : 무량사
- 법 명 : 영담 (정진규)
- 주 소 :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6-1번지 4층

- 사찰명 : 해인정사
- 법 명 : 혜인 (이영희)
-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67번지

- 사찰명 : 대각사
- 법 명 : 진경 (박재돈)
- 주 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리 229번지

- 사찰명 : 대각사
- 법 명 : 혜련 (김현옥)
- 주 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리 229번지

- 사찰명 : 홍련암
- 법 명 : 홍련 (이종우)
- 주 소 : 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3리 104번지

- 법 명 : 승조 (황철주)
- 사찰명 : 약수정사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산133번지

상기 9인과 상기 9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서로 달라 귀 종단으로부터
탈종을 하고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선화사
- 법 명 : 혜진 (서용석)
- 등록번호 : 8-1188
- 주 소 :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357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를뿐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 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74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 만 5천 6백원)+수맥 탐지봉(1만 5천원)+휴대용 케이스(2만원) 무료 기증해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74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하루밤이면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입금, 전화(1688-1137) 주시면 저자가 직법 사인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8천 8백원) 무료 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www.kbs.cc
주역 사주 관상 풍수지리 수상 육효 자미두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고 확실하게 공부. 수료증 자격증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추석연휴로 인하여 화요일까지 마감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동해안)
- 법당 : 25(목조)
- 요사 : 50(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 위치 : 대구근교
- 법당 : 60평 (납골당 3,000기 수용가)
- 요사 : 80외 전각 3동
- 부지 : 3,800평
- 가액 : 28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4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건평 : 30평
- 산밑
- 가액 : 4억 5천

- 위치 : 대구
- 대지 : 1,2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가액 : 18억

- 위치 : 경기도
- 부지 : 800평
- 인법당 : 35평외
- 산세수려최고자리
- 가액 : 3억 8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영도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총대지 : 약 100평
- 법당 (와가) : 25평
- 주지실 : 15평
- 요사채 : 방 4개
- 산신각
- 가액 : 2억 8천

지리산 아름다운 절
- 대지 총평수: 420평
- 법당(와가) 20평
- 요사채 3동
- 도량주변 산세, 풍광
- 주차장 및 텃밭 마당넓은 절
- 가액 : 1억6천(은행 5천 포함)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비밀보장 철저, 세무상담 무료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원주 세밀 IC에서 5분거리
- 대지 500평 ● 건평: 90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55평)
- 계곡산세수려한 기도도량 최고의 명당
- 가액: 4억 6천(전세 가능)

033)345-5597
011-771-559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3억

011-9888-1563

암 자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124평, 법당 13평
- 요사채 24평, 방 2, 현대식거실, 주방, 2층 다락방1
- 가액: 2억 2천 (융자 5천 5백 포함)
- 마을안 전원 주택같은 암자

010-9249-19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구제봉 줄기
- 임도 삼리욕을 관광지 목적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곳
- 총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큰 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4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대공원에서 200m
- 대로변 2층 25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2)269-0232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8653-321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평수: 55평, 2층건물에 2층
- 삼존불, 지장보살님,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900만원

010-7188-298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감만동 대로변
- 3층 건물에 3층, 40평
- 옥탑방 2칸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옥탑방 포함)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8108-0108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5천만원

011-9071-7713

임 야 안 내

- 위치: 경남 창영
- 평수: 임야 약 1만평
- 특징: 암자터 좋은 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 가액: 6천 5백만원

010-7325-1259

포교원 최고의 요지

- 위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냉정역 1번출구 앞
- 포교원 임대 하실 분
- 90평형, 130평형

010-3400-9400

사찰(급)안내

- 위치: 왜관읍에서 5~7분거리
- 평수 : 516평(2필지)
- 법당, 단청,20평 요사 2동 (산 밑에 있음), 잔디 마당, 지하수 +수도
- 특징: 청정지역으로 마당에는 메뚜기가 놀고 밤에는 반딧불이 반짝임
- 가액: 3억 8천만원 (대출 4천만원 있음)

개인 사정으로 시세 이하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진군 북면 두천2리
- 대지: 800평, 하천부지 200평
- 건물: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주차장 100평
- 산이 깊고, 물 맑은 기도도량,송이와 능이를 딸 수 있는 산 약 10만평
- 마음에 있는 분에 한해서 울진으로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054)782-0659
011-7571-65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동부산 대학교입구
- 평수: 30평 , 3층
- 가액: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2천만원

051)545-5572
011-590-575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5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역 근교 (4층)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5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동구 효목동 지하철 역세권
- 3층 건물 중 2층
- 평수: 50평, 방 2 살림가능
- 가액: 보증금 3백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즉시 법회가능)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

017-808-010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매천동
- 법당 30평, 삼존불
- 가액: 4천만원

010-5340-635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0-6506-4059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시 응상읍 덕계리
- 대지: 200평, 건평: 50평(1층, 2층)
- 2층법당, 삼존불
- 시설 완벽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권리, 비품대) 8000만원

016-9620-0990

작 은 토 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 평수 : 대지 110평 (건평 30평)
- 임법당
- 가액 : 1억원

033)434-2916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38억 (금액조정불가)

010-3683-2578

암 자 안 내

- 위치: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 요사채 1, 작은법당 1
- 가액: 6,000만원

011-723-664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마산 운동장 옆 산호시장 부근
- 평수: 30평(3층 중 2층 전체)
- 삼존불, 신중탱화
- 즉시법회 가능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 스님 부재 중으로 급 안내

055)232-7151
019-550-97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 법당 15평, 지장 보살
- 방 4, 거실, 주방
- 종교부지 200평
- 주차장, 텃밭 176평
- 심야전기, 지하수
- 가액: 2억 3천 만원

011-769-702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동부지청부근(5분거리)
- 평수: 30평 ● 3층 건물에 2층
- 시설완비,즉시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월 20만원 시설비 약간

051)782-0110
010-3101-115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72평
- 10층 건물 중 2층
- 시설완벽
- 가액: 1억 5천만원

010-7188-7723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2753-7089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남 벌교읍 부용리702번지
- 집터 31평 방 3개, 수세식 화장실
- 가액: 2,200만원

010-3541-2314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 (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사찰터 안내

- 위치 : 전북 정읍 시내에서 10분거리 (부전동)
- 남향, 한옥 2동
- 대지.전 : 1700평
- 임야: 2,300여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0-4391-3019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010-3875-6305

카페 및 토굴 가능한 집 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양평) 남한강 옆 산세 수려함
- 토지, 면적 290평, 건물 60평
- 아스팔트 포장 및 상수도 연결되었음
- 가액: 2억 9천만원

010-4736-3567

포항 도심 속 기도도량

- 1층: 법당 20평, 요사채, 큰방 1, 사무실1, 사무실방 1, 주방, 외부해우소1 대지 50평 (약 100평 정도 사용)
- 2층 휴게 공양간, 정원수 많음, 소나무 등 연산옥 분재
- 법당 안 소불 1,500불
- 외부 – 약사동산 소원석 독성각, 용궁, 문수동자 200불
- 가액: 4억(절충가능) 주지스님 사정상 '급' 양도

017-516-0773

절터안내(복지원)

- 위치 : 충주 신니면 부근 일죽 IC 에서 15km 대로에서 700m
- 대지 500평, 건평 120평(3동)
- 주차 20여대
- 가액: 3억(1억 2천 융자)

011-712-9121(주인)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시장 2층
- 약 50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방3, 공양간, 욕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800만원 즉시법회가능
- 역학 및 보살님 최적지
- 유동인구 밀집지역

017-541-1140
051)631-2378

대형포교당(전세및양도)

- 위치: 경기도 지역 고속터미널 부근 (부천)
-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220평, 14층 /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0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임대 3억 5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011-707-555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부경남
- 부지 : 800여평
- 대웅전, 삼선각, 요사채
- 대작불사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량
- 가액: 5억

010-6455-2325

신도시부근사찰

- 경기북부 시내중심(도보10분거리) 풍치 수려한 절
- 부지 680평(실사용 천평이상)
- 대웅전 20평, 요사채 2동 (100평 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전철역(2블럭) 개통예정
- 잠실,강북 30분거리 포교와 수행의 최적지
- 가액: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 선이나 상담후 절충가

011-393-0013
011-710-729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중심지 사찰
- 대지: 230평, 건물 법당 25평,요사 30평 2동
- 주차시설 완비
- 가액: 6억 5천만원

- 위치: 부산 중심지 사찰
- 대지 79평, 건물 25, 슬라브 2동
- 가액: 2억 5천만원

018-554-6198

암 자 안 내

- 위치: 영천 금호 ● 부지: 106평, 건평 60평
- 법당1, 거실1, 방3, 공양간1 창고, 보일러실, 화장실,지하수
- 조경–뒤에는 작은산, 앞에 큰 저수지 有
- 조용하고 아담한 수행도량
- 비구니 스님에게 적합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포교원(급)전세

- 위치 : 관악구 은천동 봉일시장옆
- 실평수 50평. 3층에 3층(옥상사용)
- 법당삼존불, 신중, 산신, 용왕탱화, 영가단
- 스님방, 공양간, 사무실, 욕실, 창고
- 가액: 3천에 월 1백만원(보증금 조정가능)
- 꼭 하실 분만 연락 주세요

010-3550-1180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 2,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 평수 : 약 60평 4층
- 구조: 법당, 주방, 방5, 욕실2, 창고2, 옥상사용, 옥상가건물 약 25평, 창고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님,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 104위, 산신탱화, 호신불 관음지장 108원불, 인등 400기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모든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함. 스님사정상 급

010-4457-547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 대지 357평, 인법당 37평
- 요사 25평, 창고건물 10평, 3층 석탑
- 30년 이상 사찰연대 ● 정원수 많음
- 연등 500개, 인등 250개 현재 켜고 있음
- 모든 것이 안정되고 구비된 사찰
- 가액: 2억 6천만원(절충가능)

010-4029-488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고령쌍림국도접, 대구 30여분
- 대지: 약 800평, 건평 약 80평, 법당 30평, 삼존불, 방 7개
- 노인요양원 및 사리불 안치계획, 불교특화사업가능
- 가액: 융자 9,700만 안고 9,800만 입주(시세반값)
- 잔금 5천만원, 인수할 인연자에게 불사하여 최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017-501-2315

원교로 만법 섭수하니 비로소 세상일 헛됨을 깨달았노라

<43> 원제국의 공신 야율초재(耶律楚材) 거사


그림 · 김흥인

성안원조 선사 만나 스승의 인연 맺고 불교 귀의
'원' 발전에 중요한 역할, 임종 이르러 전 재산 사찰에 보시

<종용록(從容錄)> 찬술자인 만송행수(萬松行秀) 선사의 재가 제자 가운데에는 <명도집설>을 찬술한 이순보 거사 외에 원(元)의 공신으로 유명한 야율초재(1190~1244) 거사가 있다. 하지만 야율초재 거사는 이순보 거사와는 상당한 사상적 차별 속에 다양한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

야율초재 거사는 자가 진경(晉卿)이고, 법호는 종원(從源)이며, 담연거사(湛然居士)의 호를 사용해 역대로 '담연 거사'로 잘 알려져 있다. 거란족으로 요(遼)나라 왕족 출신이었으며, 대대로 연경(燕京; 현 北京)에 거주했다. 요나라 패망 후 거사의 부친 야율복관(耶律履官)은 금(金) 나라 관리가 돼 상서우승(尙書右丞)의 관직을 지냈다. <원사(元史)> 권145에 실린 거사의 전기에 따르면, (야율초재 거사는) 어려서부터 "군서(群書)에 매우 박학해 천문 지리 율력(律歷) 술수(術數) 석로(釋老) 의학과 점술 등 다양한 학문에 뛰어났다"고 한다. 거사는 17세에 진사에 급제했고, 24세에 개주(開州) 동지(同知)에 임명됐다. 그 이듬해 몽고군이 연경을 공격해 선종(宣宗)은 변(汴; 지금의 開封)으로 천도했고, 거사는 좌우원외랑(左右員外郞)에 임명돼 연경을 지켰다. 이듬해(1215) 몽고군이 연경을 함락시키자 거사는 한가롭게 집에 머물며 불교공부에 전념했다.

거사의 불교와의 인연은 본래 연경의 원외랑을 제수 받았을 무렵 성안원조(聖安圓照) 선사를 만나 스승의 인연을 맺고 불교에 귀의했다. 후에 원조 선사는 거사에게 만송행수 선사를 소개했다. 거사는 이러한 스승의 인연을 <종용록>의 서문에 상세히 적었다.

"지난날 내가 경사(京師; 燕京)에 있을 때 매우 많은 선백(禪伯)들이 있었지만, 오직 성안사(聖安寺) 징공(澄公) 화상만이 정신과 기개가 엄숙하고 명료하며 언사(言辭)가 넓고 분명했다. 나는 유독 그분만을 존중해 자주 찾아뵙고 조사의 도리를 물었다. 여러 차례 옛 존숙(尊宿) 들의 어록 가운데 얻을 만한 것을 물었다. 징공 화상은 간혹 인정해 주었고, 나는 또한 스스로 얻는 바가 있었다. 바로 우환(憂患)을 만난 이래로 공명(功名)의 마음은 높은 누각에 묶어 버리고 더욱 조사의 도리를 구하는데 마음을 쏟았다. 그러던 중 이전의 일을 다시 가지고 성안사로 찾아갔더니, 징공 화상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어 내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선사는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공은 요직에 있었고, 또한 유학자는 불서(佛書)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어록을 뒤져 이야기꺼리[談柄]나 삼기 때문에 내가 감히 지적하고 혼내지를 못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과연 본분사(本分事)로써 내게 묻는데, 내가 어찌 옛날의 허물을 답습하여 입 아프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이미 늙었고 유학에 조금도 통하지 못하니, 그대를 가르칠 수가 없다. 만송 노인이 계시는데, 그는 유가와 불교를 겸비하고 종설(宗說; 宗通과 說通)에도 모두 정통하며 변재(辯才)에 걸림이 없으니, 그대가 찾아뵙도록 해라'라고 했다."

이 서문에서 거사가 만송 선사를 만나게 된 인연이 짐작된다. <종용록> 서문에는 다시 만송 선사를 만난 이후의 수행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나는 만송 노인을 찾아뵙고 사람들과 집안일을 끊어버리고, 혹한이나 무더위에도 참선을 거르는 날이 없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등불을 켰으며, 잠자는 것을 폐하고 밥 먹는 것도 잊어가며 3년을 지냈다. 외람되게도 선사의 법은(法恩)을 입고 제자로 인정받아서 '담연거사' '종원'이라고 불렸다."

이로부터 거사가 만송 선사를 참알해 치열하게 수행했음이 여실히 짐작된다. 또한 이러한 점은 거사의 문집인 <담연거사문집>의 만송 선사가 쓴 서문에서도 확인된다.

"담연 거사는 27세부터 만송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법을 위해 생사(生死)를 잊었고, 세간의 명예에 움직이지 않고 슬픔과 기쁨에도 빠지지 않았다. 담연은 그 마음을 크게 모아서 신묘한 경지를 정밀하게 참구하여 옛날에 배웠던 학문을 모두 버리고 추위와 더위, 밤과 낮이 없이 참구하기를 3년 만에 그 도를 다했다. 만송은 그에게 법의 · 불자(拂子)와 게송을 내리고 담연 거사 종원이라고 칭했다."

이는 거사가 쓴 <종용록> 서문과 완전히 일치한다. 또한 만송 선사를 만난 것이 거사의 27세(1216)라고 하는데, 이때는 몽고군이 연경을 함락시킨 다음해이다. 따라서 거사가 만송행수를 만나 맹렬히 수행한 시기는 원외랑이란 직함으로 연경을 수비하다가 함락되자 오히려 불교공부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의 태조 징기스칸이 거사의 명성을 듣고 태조 13년(1218)에 거사를 불러 서역정벌에 함께 수행토록 했다. 이후 태조 22년(1227)에 이르러서야 거사가 다시 연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징기스칸을 수행해 서역을 정벌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거사는 징기스칸을 수행하며 상당한 공적을 쌓아 태종이 즉위 후 2년(1241)에 재상인 중서령(中書令)에 봉해졌다.

징기스칸을 수행하게 되면서 만송 선사와 이별하게 되자 거사나 선사 모두 크게 슬퍼했지만, 거사의 구도는 전쟁터에서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거사는 만송 선사에게 서신을 통해 굉지정각(宏智正覺) 선사가 찬술한 <송고백칙(頌古百則)>에 '평창(評唱)'을 청했고, 만송 선사는 시자 이지(離知)에게 필록(筆錄)하도록 해서 태조 18년(1223) 서역에 있는 거사에게 보냈으며, 그 다음해 거사는 서문을 썼던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책이 바로 <종용록>인데, 또한 <만송노인평창천동화상송고종용암록(萬松老人評唱天童和尙頌古從容庵錄)> · <천동각화상송고종용암록(天童覺和尙頌古從容庵錄)>으로도 칭해진다. 이는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의 <벽암록(碧巖錄)>과 함께 선종 2대 보전(寶典)으로 중시되는데, <벽암록>이 임제종의 선풍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종용록>은 바로 조동종 선풍을 밝힌 것이다. 이로부터 <종용록>이 출현한 배후에는 바로 두터운 사제의 정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야율초재 거사의 전쟁터 군영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참다운 구도의 마음이 짐작된다.

그렇다면 과연 거사의 선학적 수준은 어떠했을까? 만송 선사가 '인가'하여 '법의'와 '불자'를 내려줄 정도였으니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사의 문집인 <담연거사문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당년에 불서(佛書)를 좋아해 경론(經論)과 주석서들을 궁구했으며, 공안(公案)을 빌려 이야기꺼리로 삼아 활두선(滑頭禪)을 희롱했다. 그러나 일단 만송 선사를 만난 후에는 느려터진 말이 채찍을 맞은 듯했다. 모든 일들을 다 쓸어버리고 옷을 추스르기를 3년. 원교(圓敎)로 만법을 섭수하니, 비로소 세상일이 헛됨을 깨달았노라. 옛날의 학문을 돌아보니, 오히려 티끌에도 못 미치는 구나. 점차로 선의 미묘한 도리에 능히 들어가니, 서서히 높고 견고함이 다해간다. 의단(疑團)을 하루아침에 부수니, 통(桶)에 일곱 여덟의 구멍이 뚫리는구나. 커다란 화로위에 눈이 날리고, 돌 위에 백련(白蓮)이 피도다"(<담연거사문집>권12)

또한 거사는 경론 등으로부터 시작해 결국 선으로 귀결되는 이른바 '사교입선(捨敎入禪)'의 과정을 거쳤음이 엿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거사는 조동선 중심이었으나 기본적으로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사상적 경향을 보였다. 거사는 또한 징기스칸의 원정 때부터 이후 태종시절에 중서령에 재직하면서 전체적인 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거사가 중서령을 맡았을 때, 관무를 처리함이 매우 빠르고 정확해 매번 하나의 사안을 처리하면 태종이 며칠 동안 그 일을 찬탄했고, 또한 수시로 포상을 받아 거대한 재산을 이뤘다고 한다. 그러나 거사는 항상 검소한 옷차림에 소식(蔬食)을 했으며, 임종에 이르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찰에 보시했다. 거사는 남송 순우(淳祐) 4년 5월에 세수 55세로 입적했다. 후에 '광녕왕(廣寧王)'으로 추봉(追封)됐고 '문정(文正)'의 시호를 받았다. 문집으로는 <담연거사집>(14권)과 <서유록(西遊錄)>이 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전통사찰



■ 대지 : 실,사용 (200평) 등기 123평
■ 법당 : 30평 (목조단청)
■ 요사 : 2동, 종무소 (불사리탑 5층)
■ 특징 : 포교와 전법수행 도량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인접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인 사찰입니다.
■ 가액 : 11억

010-9336-2568

서울 - 과천 - 의왕 - 수원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9-205호

보 현 사 신 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제 2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란
불교 상 • 제례 관련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사찰, 신행단체에서 상가봉사활동과 불교상례를 지도할 실무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교육받아 상 • 제례 업종에 진출하게 되는 전문 직종입니다.

● 교육기간 : 2009. 10. 24 ~ 2010. 3. 27 (6개월 과정, 총 108시간)
● 모 집 : 주간반 40명, 저녁반 40명
● 강 의 : 주간반(토) 오전10~오후3시30분 저녁반(토) 오후3시30분~오후9시
●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3호선 안국역 6번출구(조계사옆) -1호선 종각역 2번출구(조계사옆)
● 등 록 금 : 60만원(교재,실습비,현장학습 포함)

● 교육내용
- 불교 상 • 제례 이론과 실습
- 불교장례 관련시설 현장학습
-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 상조문화와 외국장례

● 수료후 진로
- 사찰 • 신행단체 상가봉사활동, 운영관리
-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관리자
- 장례행사, 회원관리, 홍보활동 등
- 장례관련업체 진출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 발급 ◆

● 교수진 :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출강 교수
- 불교 상제례 실습 : 유재철 - 큰스님들 (법장, 숭산, 석주 외) 장례와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진행함
- 불교 상제례 이론 : 순남숙 박사 - (사)한국생활문화연구원 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참여
- 불교의례, 천도재 : 구미래 박사 - (사)성보문화재연구원 기획실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39-4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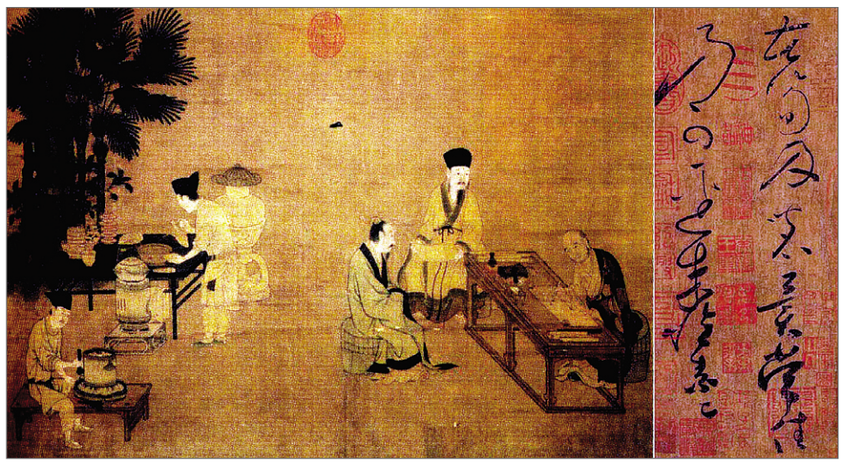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⑦ 연다도

명차향에 취해 회소 스님 글쓰니…

당나라 서법의 대가 회소(懷素, 737~799)는 초서체를 잘 써 '초성(草聖)'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자유분방한 승려였던 그는 술이나 고기를 가려 먹지는 않았으나 한 편으로 차는 매우 좋아했던 것 같다. 대북고궁박물원 소장의 '연다도(攆茶圖)'는 남송시대 화원화가 유송년이 그린 작품으로 차를 기다리며 글을 쓰는 회소가 등장한다. 화면의 오른편에는 책상에 앉아 글씨를 쓰고 있는 승려 회소가 보이고 곁에는 당대 시인이자 벗이었던 대숙륜(戴叔倫)과 전기(錢起)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모팔에 모아 붓 끝에 실었다. 빠르고 유연하게 써내려간 14자의 초서는 흰 비단 위에 담긴 글자이지만 전해지는 것은 뜻만이 아니라 회소의 마음이며 지극히 미적인 형상 그 자체다.

작품에는 많은 감식인과 소장인이 찍혀있어 이후,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은 내역도 알 수 있다. 그 중 북송 휘종대의 연호인 '선화'의 감장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송대에는 황실에 소장됐으니 그 명성 때문에 회소의 일화도 그림의 소재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왼쪽은 유송년의 '연다도', 남송, 비단위에 채색, 44.2x61.9cm, 대북고궁박물원 소장. 오른쪽은 회소, <고순첩>, 비단위에 글씨, 25.1x12.0cm, 상해박물관 소장.

두 시를 지어 회소의 서예를 칭찬한 적이 있는 지우(知友)들로 이들의 만남은 당대 문인들의 아취 있는 시회(詩會)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반라의 승복 차림인 회소는 준비되는 차를 기다리며, 한편으로 팔을 들어 두루마리 위에 글을 쓸고 있다.

시원한 초서의 필체로 <고순첩(苦荀帖)>의 구절이라도 쓰고 있는 것일까.

"특별하고 아름다운 고순의 명차가 이에 회소에게 왔구나(苦荀及茗異常佳 , 乃可逕來 , 懷素上)."

회소의 작품으로 유명한 <고순첩>은 운필이 둥글게 꺾이면서 글자와 글자사이가 물 흐르듯 이어진다. 표현하기 어려운 생동감 안에서도 굳센 기운을 잃지 않고 있다. 무슨 일로 회소의 붓끝에서 이러한 기운이 펼쳐지게 됐는지 궁금하던 차에 글귀의 뜻을 헤아려본다. 서법이란 '그 통쾌함이 나는 새가 숲을 빠져나올 때 같고 놀란 뱀이 풀 속으로 사라질 때와 같다'고 말하던 회소는 뜻 밖에 명차를 받고 기쁨에 넘쳐 붓을 휘두르게 된 것일까.

<고순첩>의 여운을 느끼며 그림을 다시 바라보면 남다른 감흥이 생겨난다. 명차를 받고 시동에게 차를 준비시키고 회소는 그 차를 마시기 직전의 설렘과 기쁨을 한순간에 발산하지 않고 응축해 오른

화면의 좌측에는 차를 준비하는 두 명의 인물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또한 이색적이다. 앞에 긴 의자에 걸터앉은 인물은 맷돌질하듯이 자루를 돌리고 있는데, 바로 송대 대표적 다구인 다마(茶磨)이다. 이것으로 차 덩어리를 가루 내어 다말(茶末)을 만들고 있다. 그 뒤로 옆으로 돌아서 있는 인물은 큰 탁자 앞에서 점다(點茶)를 하고 있다. 다완 옆으로는 거품을 내기 위한 다선(茶筅)과 청자다완, 주칠다탁, 다말합(茶末盒), 수우(水盂) 등의 다구들이 보인다. 점다를 하는 시동은 뒤편에 있는 연잎모양뚜껑의 항아리에서 물을 떠올려 탁자 앞의 화로에서 물을 데우고 이를 병에 담아 지금 사용하고 있다.

화가 유송년은 회소가 <고순첩>을 쓰는 이 순간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그리고 화폭 안에는 과거의 일화와 함께 화가가 살았던 송나라의 다법을 묘사해 생생한 시대성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서예와 차의 조화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중국인들의 차에 대한 고차원적인 문화 활동을 대변해주는 역사적인 증참이 돼 지금까지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④ 송광사 풀방석



천 년 세월이 지나간 절집에 선지식의 이름들이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승보(僧寶)사찰 송광사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혜린(慧璘)'이란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송광사 역시 많은 선지식의 이름들이 남아 있지만 지눌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열여섯 분의 국사(國師) 이야기는 다른 절집과는 표지부터 다른 송광사만의 포트폴리오(portfolio)다.

학인스님들이 법회를 위해 좌복을 나르고 있다. 어른 스님들이 앉는 좌복이다. 그 옛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풀방석에 앉아 깨달음을 얻었다. 연화대(蓮花臺)의 유래가 이 풀방석이다. 송광사를 승보사찰이라 부른다. 학인스님들의 어깨 위에 놓인 저 좌복은 언젠가 학인스님들도 앉아야 할 풀방석이 아닐까.

詩가 있는 도량

▪ 산은 그대로인데

산은 그대로인데
내가 좋다 그런다

산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멋 있다고 말한다

꽃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꽃이 피었다고 말한다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푸르다고 말한다

말 없이 묵묵한
산, 나무, 꽃처럼 된다는 것
찾아볼 일이다.

–육관응, 시집 <푸른 숨결의 높낮이>에서

옛 판화의 세계

징관 스님이 소를 짓다
징관조소(澄觀造疏)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석징관이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지을 때 자신의 몸이 용으로 변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나는 등의 기이한 현상을 판각한 작품이다. 화엄종 제4조로 추앙받고 있는 청량국사(淸涼國師) 징관(澄觀, 738~839)은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로, 성씨는 하후(夏侯), 자는 대휴(大休), 시호는 청량이며, 지금의 중국 절강성 소흥현 출신이다. 아홉 살에 체진 대사 문하에서 출가했으며, 화엄을 전해준 스승 법선 화상으로부터 '법계는 모두 너에게 있다'고 인가를 받았다. 화엄뿐만 아니라 계율을 익히고, 열 가지의 서원을 세우는 등 철저한 수행으로, 내외전은 물론 인도의 고전에도 능통했으며, 대흥선사에서 진행된 역경장에 참가해 6년간 경전 77부를 번역하는데 기여했다. 당 태종 때는 〈화엄경〉 '제보살주처품(諸菩薩住處品)' 가운데 "문수보살이 오정(五頂)을 비춰 본다"는 구절을 알고자 화엄성지 산서성 오대산으로 옮겨 그곳에서 수행했다. 오대산(五臺山) 대화엄사(大華嚴寺)에 머물면서 대승참법(大乘懺法 : 대승경전을 읽어 죄를 참회하는 수행방법)을 닦았으며, 또 〈화엄경〉을 강의하고 〈화엄경소〉를 지었다. 저서는 총 42종 600여 권 가운데 현재 21종 400여 권이 남아있다. 제자는 100여 명을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종밀(宗密) · 승예(僧睿) · 보인(寶印) · 적광(寂光) 네 사람은 '징관 문하의 네 철인(門下四哲)'이라 불린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징관이 소를 짓고 난 후, 어느 날 꿈에 자기 몸이 용으로 변해서 머리는 남대에서 쳐들고 꼬리는 산북에 서려 하늘을 움켜잡고 비늘과 갈기와 빛나는 눈으로 헤아리는 작은 용으로 화해서 푸른 하늘에 뛰어올라 치솟았다가 깔려 흩어지면서 더 나는 꿈을 꿨다. 이것은 아마도 교법의 지류가 나눠져 유포되는 상을 취한 듯했다. 또한 소를 지을 때 법당 앞 못에 다섯 가지를 지닌 합환연화가 돋아났고, 한 꽃에 모두 세 개의 마디가 생겨났다. 그 후 장안에 이르게 되자 조정의 신하들이 그에게 귀의했는데, 제(濟)의 상국 위태상, 무원형, 정인, 이길보 등이 모두 그의 높은 도풍을 사모하고 함께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와 같이 징관의 실천적 화엄사상은 출 · 재가를 망라한 제자들에게 이어져 징관 스님은 송대 이후 화엄종의 제 4조로 추앙받게 됐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징관조소(澄觀造疏)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751호 현대불교
2009년 9월 30일(음 8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나라고 고집하지마시고 모든 걸 둥글게둥글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사람을 죽였다 해도, 아무도 못 봤다 하더라도 천지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 내가 아마 몇 번 했을 거예요.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서 내다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스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이게 내 의자다, 저것이 내 의자다' 하고 서로 뺏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버스가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도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찰나찰나 걸림이 없이 돌아가는지 이것을 이 버스 안에서 우리가 상세히 증득한다면, 나를 증득해서 내가 벗어난다면 그런 데서도 모두 속박 안 받고 자유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다면,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도깨비장난 하는 것과 같고 어떻게 보면 즐겁고 어떻게 보면 환희스럽고…,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생물들이 모두 암수컷이 되어서 자식을 낳고, 그래 놓고도 뭐 사람들처럼 질투를 하고 그러는 게 없이, 수컷이라면 암컷을 많이 두어도 그저 순간순간만 하곤 지나가면서 그냥 착을 두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왜 그렇게 착을 두느냐는 얘기죠. 그까짓 거 찰나에 살다가 찰나에 가고, 한 철 살다가 가고 또 한 철 오고 가고 그저 그러는 거뿐인데 그렇게 야단들이거든요. 요만한 거 가지고도 그냥 불편하게 싸우고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하고 싸우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뿐입니까? 자식이 가출했다가 들어오면 "요놈의 새끼, 깡통을 찰 놈의 새끼!" 그러고선 욕을 하고 말입니다. 여차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속에서 그 업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의식이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자꾸 나와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마음에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지 어떻게 때리고 욕을 해서 고칩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한마음은 둘이 아니니까 벌써 자식과 부모 사이다 이런다면 가설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주인공에다가 '둘이 아닌데, 저 애가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모두 맡긴다면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통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이 됨으로써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이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 싫어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이 자꾸 나가니까 몸도 따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그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서 행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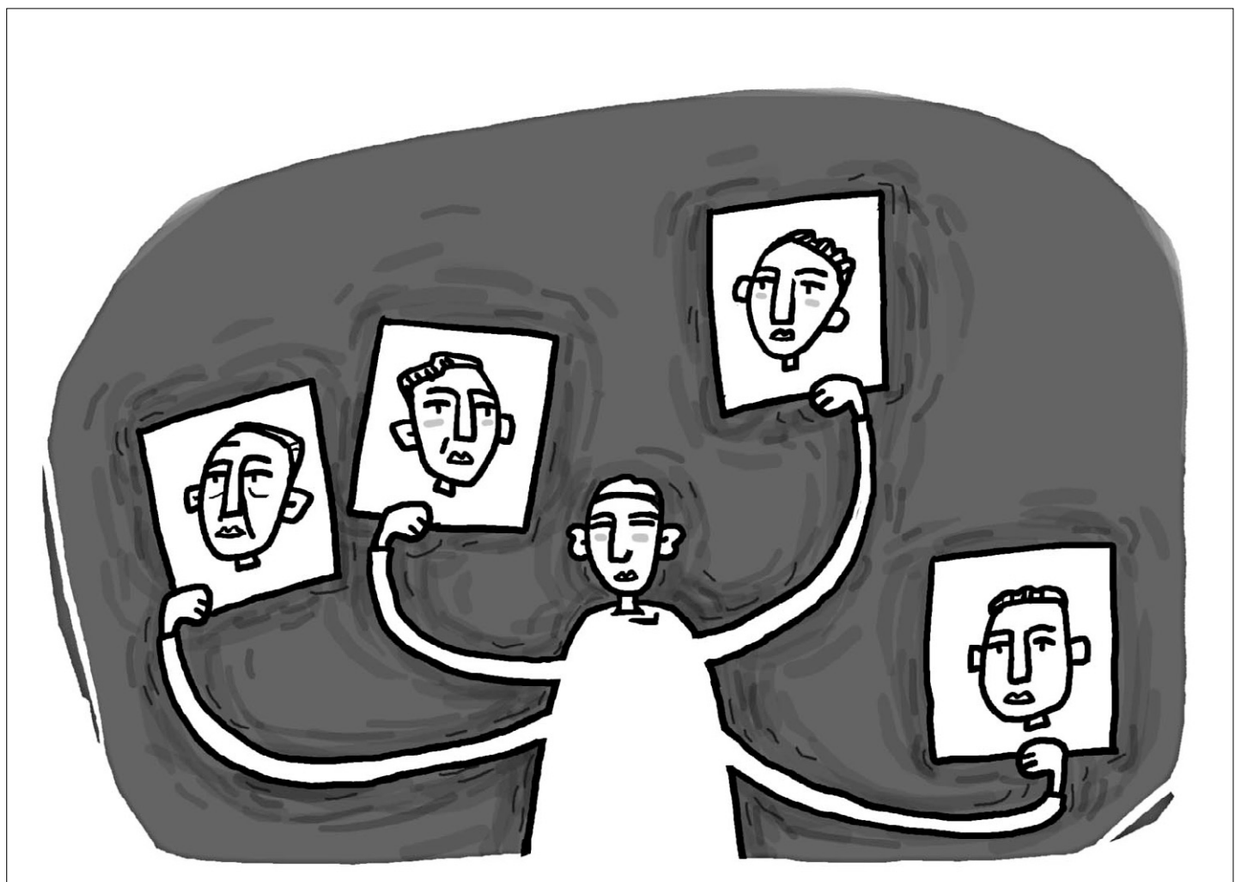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모두 볼 때에, 영계성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영계들이 들어와 집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들어와서 살거든요. 내 집이 비었으니까, 모르니까, 주장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가 모두 주둔해서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서, 그저 욕으로 다스리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 주고 거기에 맡기세요. 아무리 나가서 자고 오더라도 "너, 나가서 춥지나 않았니?" 또 더울 땐 "덥지나 않았니? 밥이나 먹었니?" 아, 이렇게 따뜻하게 좀 해 주고 "아이, 시원하게 집에서 먹고 집에서 하지 왜 그랬니?" 하고 이렇게 인의롭고 부드럽게 대해 준다면, 그러고 거기다가 맡긴다면 거기서 그쪽으로 불이, 통신이 갈 수 있죠. 그러나 욕을 하고 말로 한다면 통신은커녕 오히려 마음이 천리만리 달아나가죠.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데 조심해서 잘 실천해 보십시오.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금방 찰나에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얘,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되고 아, 이렇게 하고들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면서 살아나가는데 내가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나투어 가는 거니까 나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한 아름으로 안아서 둥글게 둥글려 보십시오. 그렇게 넓게 오신통이라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둥글려서 굴린다면 그게 바로 통 속에서 벗어나서 만사를 다 부끄럽지 않고 자유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모두를 다 함께 해서 도리천에 이르러 고요한 적멸궁에 든다면 다시금 이 세상에 소임을 맡고 나올 때는 별성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도 별성이 있고 여기도 별성이 항상 자기한테 같이 해 주기 때문에 항상 자기 소임을 그대로 잘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분들은 가시는 것도 오시는 것도 없습니다. 오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신 것도 없고, 그냥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니까 영원한 오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오늘에 그대로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자체 깊은 속을 안다면, 부처님의 그 마음 깊은 속도 같이 둘 아니게 알아서 부처님이 계신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1(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빌 공(空)' 자와 '없을 무(無)' 자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공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불교 사전에 보면 '진공묘유 진여실상' 등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풀이하신 『뜻으로 푼 반야심경』에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나니' 하여 공을 마음으로 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문집에 '모든 것이 다 공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공에다가 다 맡겨라.' 하고 자주 거론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공에 빠지면 안 되죠. 빌 공에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공이라 하면 용무(用無)를 말하죠, 용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죽거린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여기가 그대로, 지금 공이라는 자체 그대로입니다.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니 그대로 그냥 비었단 얘깁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죠? 한 가정으로 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이랬으니 그거는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없으면서 그대로 용무가 되죠.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아마 여래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여래 속에서 여래의 행동을 하면서, 법이 그냥 그대로 용이면서 무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다 그냥 비었습니다. 우리가 '비었습니다' 이래도 빈 줄로만 알지 마시고 '꽉 찼다' 이러더라도 꽉 찬 줄로만 알지 마세요.

전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 에너지가 다 없어진다면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이 허공에 생명들이 꽉 찼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이 꽉 찬 데는 에너지도 꽉 찼단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무를 그대로 알아서 진실하게 함이 없이 할 줄 안다면 에너지를 얼마든지 끌어 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26면으로 계속

부전 스님 초빙

신심으로 함께
수행 정진하실
조계종 소속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연락처 : 051)853-5486~7

범어사부산포교원
여여선원
부산불교회관(부산시청 옆)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도율스님 자연치유
(自然治癒)강좌

각종의 난치병 선치[先治] 후불[後拂]

자석치유법의 특징
무통, 무혈, 안전하며 비용이 저렴하여 쉽게 배울수 있으며 치유효과가 뛰어나 재발이 없다.



교 육 대 상
스님, 법사, 일반신도, 대체의학종사자, 카이로, 지압, 뜸방, 피부관리사, 좌욕, 체육관, 사찰, 본인, 가족 중 투병자, 등.

호 전 체 험
위 관련된 분들은 주위로부터 사기(邪氣)를 받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운기에 따라 병고가 깊어지는 현상을 막을수 있으며 자석편 세트로 본인의 건강을 평생 관리 할 수 있음. 교육은 철저한 임상주의 교육이며 요통, 술통, 골반교정, 비염, 치질, 변비 등은 교육 중 호전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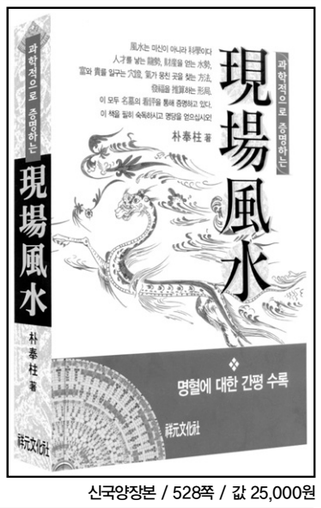
강 의 : 매주 목요일 2시간씩 1개월 교육비 20만원
자석편세트 구입시 2만원
치유상담 : 010-3810-6158 (출장가능)
사암오행침 연구회(舍岩 五行鍼 硏究會)
자기(磁氣)뜸 개발자
도율 (道律) 합장 010-3810-6158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번지 4층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대승사 불교대학 강의실 053)325-0400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現場風水
현장풍수

❖명혈에 대한 간평 수록!

풍수지리 안내서! 풍수지리의 근본사상은 승조효친사상이다. 어떤 종교를 믿던 간에 먼저 자기 조상을 숭상해야 된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풍수지리에 대해 소개한다. 심혈 순서, 음양오행론, 나경총론, 용법론, 각종 사법론, 혈장총론 등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명혈에 대한 간평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제1장 심혈 순서
제2장 음양오행론
제3장 나경총론
제4장 용법론
제5장 각종 사법론
제6장 혈장총론
제7장 수법론
제8장 발복추산법
제9장 본신룡의 특성과 물형론

朴奉柱著
신국양장본 / 528쪽 / 값 25,000원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祥元文化社

buddhanews.com

마음에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됩니다

☞25면에서 계속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요! 해골을 놓고도 그 해골과 자기와 둘이 아닐 때 비로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너 저기에 묘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비 거고 하나는 자식 거니라. 그런데 양쪽에 구멍이 뚫렸느니라. 그런데 아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아비한테로 가면 아비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인가?' 하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스물 몇 살인데 말입니다. 알 게 뭡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아, 발이 떼어 놓아져야죠. 그래서 3일을 그냥 그것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하!' 이럭하고선 일어났죠. 생각을 해 보세요. 영에다 영을 넣어도 둘이 아니요, 이쪽 영을 이쪽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요, 만 불을 하나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요. 이랬으니 어찌 공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이 묘한 법을 말입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께 질문을 준비해 오면 법문하시면서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해 왔으니까 여기에 모이신 여러 불자님들을 위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진리의 법을 모두 설하셨지만 미혹한 저희들이 실천하는 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불성이, 주인공이라는 나의 근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주 전체를 싸고 있는 근본처라고 항상 저희들에게 간곡히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 근본처를 알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재가불자들 가운데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해 놓고 남의 사주를 봐 주며, 사찰에서도 부처님의 진리 공부는 뒤로 미루고 세간과 중생들이 즐겨 찾는 각종 행사에만 치중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그 수효가 점차 증가하여 대부분의 불자들이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법인 것처럼 알고 생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가자나 출가자가 부처님의 진리를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첫째, 금강과 같은 흔들림 없는 공부 방법과 둘째, 이분들을 제도할 때의 주의 사항, 그리고 이분들과 자손들이 받는 과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법을 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하여튼 그냥 간단히 대답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또 조금 붙어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영원히 자기는 자기대로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과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의 과보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눈이 떠지질 않고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짝 짓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거나 짝 짓는 데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닭이다, 토끼다, 뱀이다, 두꺼비다, 올챙이다 뭐 갖가지 짐승들이 짝을 짓는 데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천 년이 가도 그 모습을 벗고 인도환생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항상 우리 스님네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도들한테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 철 날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온통 마음으로 밟아 뭉그러뜨리고 내치고, 기를 쓰고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남의 거를 뺏어 먹고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간다면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닭으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칼산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산 거를 칼로 턱 턱 쳐서 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탕지옥이다 하면 이건 물에다가 그냥 텀벙텀벙 넣어 가지고 그냥 끓여서 털을 뽑습니다, 모가지 이렇게 해서. 닭뿐이 아니에요. 생선도 그렇고요. 살아서 펄펄 뛰는 걸 그냥 도마에다 놓고 탁 탁 하고 자르니 칼산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아무리 음매음매 하소연을 모두가 해도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소연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이 졸려서 죽는다거나 칼로 찔려서 죽는다거나 도끼로 머리를 맞아서 죽는다거나 해도 옴패부득 자기는 그 모습을 타고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수명이 짧고 길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몇 번 알을 낳고 몇 번 자기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받는 줄 알지 마세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 천당입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아래로 내려간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둘 아니게 생각을 해야죠. 어떤 때는 산 거를 놓고선 칼로 탁 칠 때에 고개를 홱 돌립니다. 너무나 아휴! 보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그 본 것만은 '아! 잘됐구나. 네 모습이 그게 뭐냐. 내 이 물방울 하나로 들어온다면 그냥, 찰나에 내가 되는 거고, 찰나에 또 블랙홀에서 별들을 출생시키듯이 그냥 나가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못한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 양면을 다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의연하게 그대로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것도 없지만 또 마다할 것도 없고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아주 여여하게 즐겁게, 하늘이 딱딱 그냥 비벼져서 곤죽이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3(남): 큰스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의 근본은 전지전능한 한마음이라는데 어째서 미생물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윤회에 빠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업식에 가려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업식이 있기 이전에는 그대로 밝은 한마음 자리였을 텐데, 어떻게 하여 무명에 빠지고 업식이 생기게 되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지(地), 수(水), 풍(風) 세 가지가 한데 합쳐져서 그냥 그 암흑을 돌다가 부딪치고, 부딪치니까 화(火)가 일어난 거야. 안 그래? 일어나서 그것들도 다 생명이 돼 버렸어. 생명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집을 지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 미생물로 화한 거야. 연방연방 그냥. 그러면 그 미생물로 태어나서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해! 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리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천체를 다 헤아리고 나갈 수 있고 대치할 수 있고 안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지혜가 터져야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뱀으로 태어났다 하면 뱀으로 살던 습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살던 데로 놀러 가려고 그러지 자기하고 맞지 않는 데는 가려고 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을 벗지 못하는 거야. 모두가 다 그래. 사람이 법도를 못 지키고 사람답지 못한 데로 빠져나가는 것도 자기가 좋으니까 가는 거야. 잘 하라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는 데는 싫거든. 그건 싫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가고, 만약에 독사나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 모습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마음의 차원 때문이야.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큰스님: 왜 알질 못해? 내가 대답을 해 줬는데…. 너로만 있는 게 아니야. 너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중에 청년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자꾸 뒤바뀌어 가면서 요다음에 또 어린애가 되고, 여자가 될는지 남자가 될는지 그것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 이제 알아듣겠니?

질문자3(남): 스님, 그 과정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윤회하게 되는 시작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큰스님: 아이고, 시작은 너한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하하하….

질문자3(남):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우지만, 주인공에게 관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답을 얻은 경우가 드문 것 같고, 잘 안되는 것도 법 잘되는 것도 법이라지만 제가 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스님: 바로 가든지 외로 가든지 뭐 아래로 내려가든지 무조건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네놈한테다 놔 버려. '너만이 일체를 다…, 잘못하는 것도 너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해 버려,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승가대학 기금 마련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둘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둘이 아니라고요. 스님네들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스님이라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모두 응신이 돼 주시는 그 스님네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배출돼야 여러분께서 아마 다 승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여러분이 하신 거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만약에 비싼 물건을 사려면 돈을 많이 가져가야 하고, 싼 물건을 사려면 돈을 조금 가져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 형편껏 어떠한 문제가 닥쳤는지, 큰 건지 작은 건지 그거를 생각하셔서 큰 거라면 크게 놓으시고 작은 거라면 작게 놓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내가 돈을 주고 내 물건을 사 왔으니 돈을 준 사이도 없고 그 쪽에서도 물건을 준 사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스님네들이 "나는 너한테 받은 사이도 없고 내가 너 준 사이도 없느니라. 그러나 부처님한테서는 너에게 그런 공덕이 갈 수 있고 선물이 갈 수 있고 복덕을 이룰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승가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스님네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 대가는 거짓말 없이 꼭 갈 겁니다, 내놓은 대로. 일억이 걷히든지 몇천이 걷히든지 여러분이 내놓으면 내놓는 대로 그 대가는 거짓 없이 증명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이 없거든요. 아주 보증 수표거든요. 하하하…. 그러니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다고 건방지다고 하지 마시고요. 조그마큼 도와주신다 해도 여러분의 그 애로는 풀리실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 일체 만물과도 다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우주의 별성들하고도 모두 직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요다음에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혼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럿이 뭉치면 이루어 내고 흩어지면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어느 사람도, 기독교인 가톨릭교인이라 할지라도 한 불교 안에, 한 지구 안에서 지구를 몸뚱이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구를 우리는 마음으로 벗어나서, 지구가 나중에 팽창되거나 타 버리는 일이 없이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지구라는 우리 집이 뚫어진 게 있으면 에너지를 다 갖다가 고치고 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는 마음을 한마음으로 내서 해결합시다.

그러고도 스님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여러분을 위해서 동참하신다면 아마 자손들 대까지도 세세생생 나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내려가도 됩니까?

(앞쪽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보시며) 감사해요. 정말 어린 싹들이 앞으로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주 증명해야 돼요. 알았죠?

학생 일동: 네.

큰스님: (합장하시며) 예.

>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아주 여여하고 즐겁게**
> **하늘이 딱딱 비벼져서 곤죽이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위 법문은 1995년 10월 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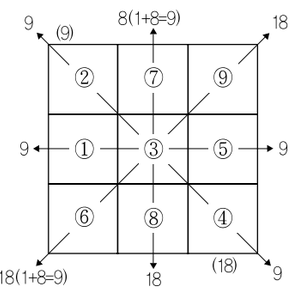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9년 10월 24일 – 10월 30일 [6박 7일]	우또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0월 24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0월 30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방한쇼울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책임10일 완성★
저자 : 법화(정흥교)큰스님 직강!



[구단구궁원리도]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길흉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등 다양한
명운을 주저없이 판단 미래 예측함

개강 : 화,수,목요일반 ——(오후2시~5시)
토요일반 ——(오후1시~5시)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호상빌딩
(051)467-4665 010-7725-1024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자 세상보기

김정연
동국대 학군단장 · 육군 대령

병역기피, 비겁한 선택의 말로

최근 병역비리가 다시 화재로 떠오르며 뉴스와 각종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란 법률에 의해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즉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 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로 이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방위해야 할 의무이며, 법률에 따라 병역에 종사할 법적인 책임이다.

가수 ○○의 병역비리 사건이후 잠잠해졌던 병역비리가 이제는 한층 더 교묘한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자 바꿔치기, 신체 훼손, 국적포기, 우회적 입영연기 등.

날로 교묘하게 진화해 다시금 이슈화 되고 있는 지금, 인터넷만 조금할 줄 안다면 검색창에서 병역기피를 원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예로 "이미 현역은 끝났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국적포기 이해합니다." "저라면 차라리 군대 갖다오는 시간에 자기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자신의 청춘 2년을 군에서 허비하기 싫다."등.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서의 시간을 무의미하다 생각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현상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요소다.

중동전쟁 당시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하숙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나자 같은 날 두 학생이 모두 없어졌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 청년은 조국에 가서 전쟁에 가담했지만, 이집트 학생은 징집될 까 봐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은 불과 1주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이스라엘 국민은 300만, 이집트는 1억이 넘는 대국이었다. 이스라엘은 300만이 한마음으로 단합했지만 이집트등 아랍권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지리멸렬한 상태였다.

이렇듯 이스라엘 국민의 하나로 단합된 힘 앞에서 이집트는 항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스라엘은 사막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늪지대와 모래땅을 적셔 비옥한 옥토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강한 훈련과 병력의 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투철한 안보의식이 강한 국가를 만든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강한 국가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자유민주국가의 한 성원으로서 군복무는 누구나 수행해야 할 의무이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한 국민만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명예로운 특권이다. 군에 가고 싶다고 누구나 군복무를 할 수는 없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택받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임무완수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법규를 잘 지키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맡은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인 북한과의 휴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위의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의 안보를 수시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제2의 임진왜란과 을사조약과 같은 역사적 오점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나눔으로 넉넉한 추석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에 와 있다. 올해는 기상재해가 없어 들판마다 오곡이 풍성하다. 산 빛도 곱고 바람도 청량하니 올 가을은 어느 해 보다 청복을 담고 온 듯하다. 그 한 가운데 한가위가 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 넉넉함의 상징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끝점에 도달했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경제는 암울하다.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자영업을 하려해도 할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여전하다.

한가위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곳곳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아직 잔치를 하기엔 어둡고 추운 곳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이럴 때 불교계가 할 일이 많다. 이웃을 위해 쌀 한 포대 옷 한 벌을 나누는 보시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각종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도 한가위를 겨냥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 등 각 종단 대표들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위문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불교가 이 땅에 행복을 전하는 숭고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임을 알리는 일이다.

불자 개개인의 행동 또한 나눔과 어우러짐의 도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생활현장에서 개인개인이 실천하는 자비희사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에는 모든 불자들이 이웃의 고통을 돌보는 자비의 보살이 되길 기원한다.

국립공원에서 경내지 구출하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규제당하고 있는 사찰의 경내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조계종의 요구가 본격화 됐다. 국립공원과 조계종의 대립은 긴 역사를 갖는다. 1970년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부터다. 국립공원의 대부분 지역이 고찰을 끼고 있으며 고찰이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람객이 모인 까닭에 공원입장료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신경전이 30년 이상 이어져 왔었다.

현재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문제는 사찰의 자유로운 신행활동을 위한 각종 불사가 공원법에 제한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건축 불사가 지나쳐도 사찰의 역사성과 문화재의 격이 훼손 될 수 있다. 조계종은 종단 내의 기구를 통해 불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최소한의 증개축마저 어려운 법적용에 불만을 가져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계종과 정부는 효율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 했고 급기야 조계종은 고유의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조계종이 정부에 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한 경내지의 면적은 1억 5천만㎡에 이른다. 정부가 이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계종도 수용여부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듯하다.

어쨌거나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립공원의 면모와 사찰의 기능이 함께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

현불만평 박구원



녹색만이 희망 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바쁜 생활 속의 작은 즐거움, 책 읽기

9월의 테마-독서

전공서적을 독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실제 나의 독서량은 그리 많지 않다. 책을 잘 읽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 또한 일에 쫓겨 책을 읽는 여유로움은 사치에 가깝다. 최근 몇 년간 내가 읽은 책은 딱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그 전부터 좋아하던 작가의 신작이고 다른 하나는 저자에게 직접 법보시의 형태로 받은 책이다. 읽는 책의 대상이 협소하다보니 책 읽기의 기회는 그리 자주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과거에는 책을 꽤나 좋아해 많이 읽었다. 특히 군에서 소대장 하던 시절인 2001~2003년 까지는 1년이면 50여 권의 책을 읽었다. 군 생활 하면서 유일하게 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토요일이면 일간지에 끼어 있는 책에 관한 섹션 뿐이었다. 매주 일요일 오후가 되면 부대가 있던 강원도 화천읍내 서점에 들러 신문에서 봐뒀던 책들을 사서 읽는 것이 그맘때의 유일한 낙이었다. 마음에 든다 싶으면 체크해뒀다가 구해 읽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좋아하는 장르 · 작가가 생기게 됐다. 지금도 그 때 좋아하던 작가의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사서 읽는다. 몇 일전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1Q84>가 5년 만에 출간됐다는 소식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책을 읽고 있다.

하지만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은 짧으면 수개월, 길면 몇 년 만에 나오기도 하니 책 읽기의 기회는 그만큼 적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법보시 받은 책. 처음에는 책을 받아도 잘 읽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받는 책의 수량이 꽤 됐다. 하나씩 읽다가 보니 이제는 또 누군가 책을 쓰지 않을까 기다릴 정도다. 지인이 직접 쓴 책을 받아 읽으면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 몇 곱절 즐겁다. 내가 평소에 알고, 또 대화를 나누던 분들의 책이어서 그런지 읽다가 보면 행간에서 그 분들과의 대화가 곧잘 떠오르게 되고, 또 그렇게 나눴던 대화들이 글에 녹아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빙긋이 웃게 되거나 아니면 글이 전해주는 것 이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덕대 이태승 선생님의 <인도철학산책>이나 동국대 김호성 선생님의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와 같은 책은 자주 만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의 책이어서 그런지 읽는 내내 즐거웠다.

보조사상연구원과 인도철학회 등 여러 학회의 간사 소임을 맡아 일하다보니 학술대회 자료집 편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록된 논문들을 거의 대부분 읽게 된다. 그렇게 읽은 논문은 학술대회 자리에 가면 저자들이 직접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 한층 수월할 뿐 아니라 재미가 생겼다. 그런 경험으로 한 가지 제안 한다면, 자신이 아는 사람의 글을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상관없다. 유명한 정치가나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학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분들의 육성을 들어보고 또 그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단순히 문자로만 접하는 책 읽기보다는 훨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쁜 와중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작은 즐거움이기에 아마도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 싶다.

안필섭
동국대 강사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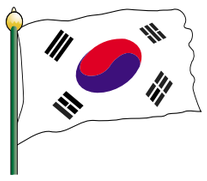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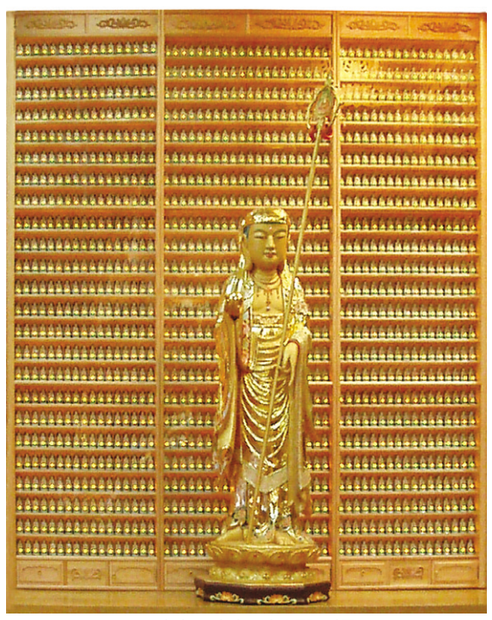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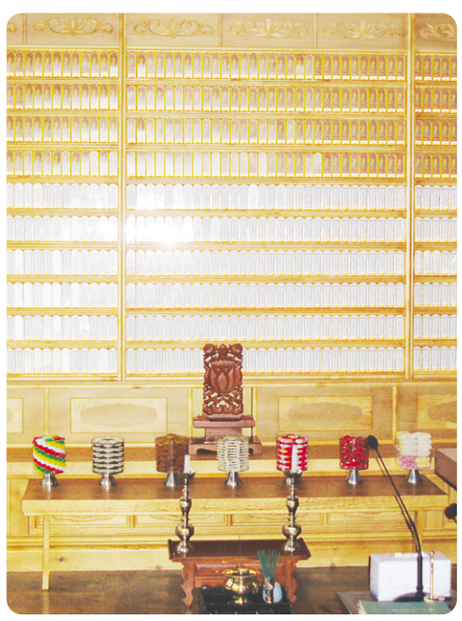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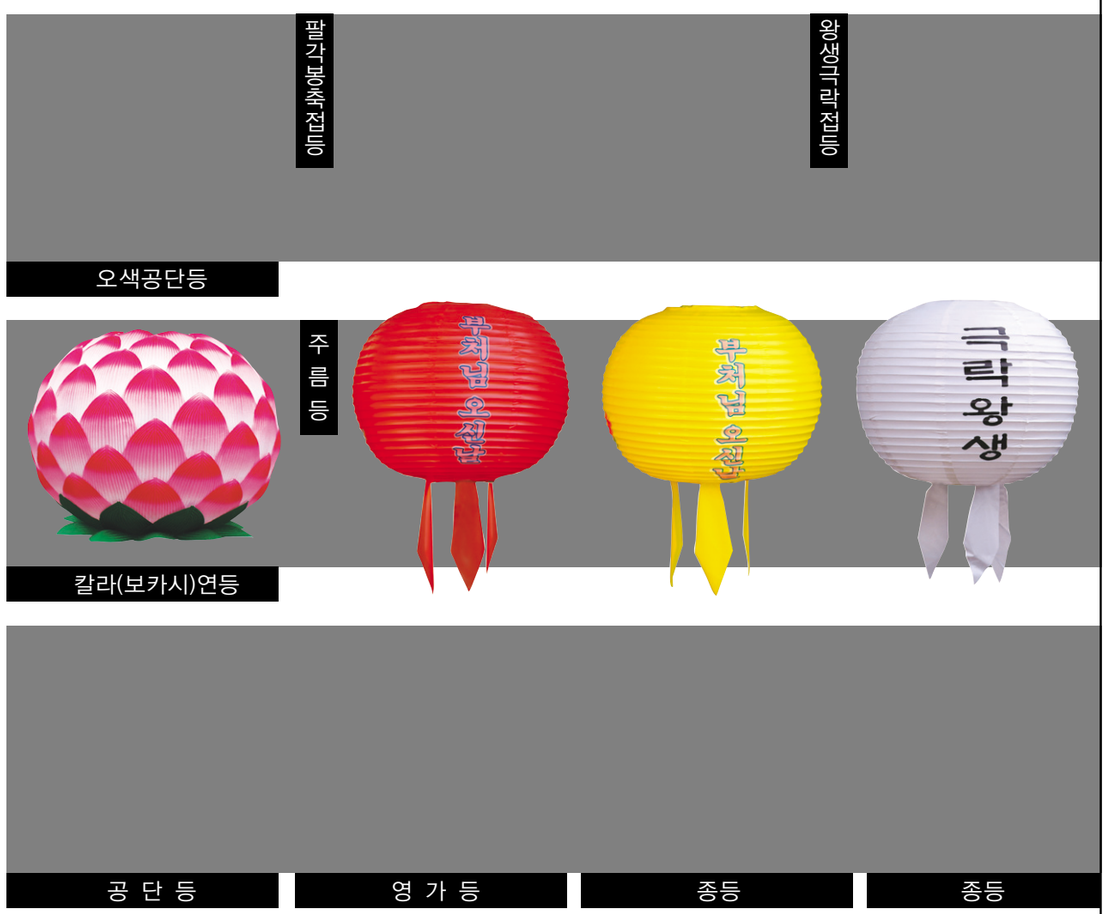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國立 이화학연구소
日本 두뇌집단 최우수 걸작품

79년의 연구역사
23개국 국제발명특허

유산균생산물질 "세이겐"은
불교경전에서 유래

불교에서는 종종 "제호를 맛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반열반경"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제호"는 맛이 최고로다,
이를 취하는 자는 만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모든약의 효험이 이 속에 함께 있도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문 · 문의전화 02)3448-9100, 070-7410-2007 (주)세이겐코리아

계좌안내/국민 : 853801-04-045718

유산균생산물질로 불임을 극복한 체험담



예술미디어 刊

유산균생산물질 임상보고서



유산균생산물질로 아토피를 극복한 체험담



건강타이체스트 刊

유·산·균·혁·명!

면 역 력 선물시대

"세 이 겐"



일본 명품 완 제 품

세이겐골드
₩198,000(90포/BOX)

자세한 임상 발표 동영상과 보고서는
www.seigen.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임상실험 결과가
원천기술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로 · 무력감으로 오는
식욕부진호전 100%

2500년전 불교경전 "대반열반경" 원문
"세이겐"은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乳より酪を出し、
酪より生酥を出し、
生酥より熟酥を出し、
熟酥より醍醐を出す。
若服する者有らば
衆病皆除く。
大般涅槃経第十三より

락 → 생소 → 숙소 → 제호

「제호는 최상의 것으로
이것을 음용하면, 모든
병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다른 약은 일체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산균생산물질로
암, 난치병을 극복한 체험담 2,3,4권



예술미디어 刊